

*The Hyowo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효원 영어영문학

| 2018. 2 | 제 36 호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효원영어영문학

제 36 호

2018. 2

목 차

한국 아동문학의 번역에 대한 코퍼스 기반 연구	김 세 현 / 1
폴리시스템 이론을 적용한 『햄릿』의 번역본 분석	김 은 아 / 15
한영 번역 전략을 위한 결속구조 비교 연구 -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권 유 진 / 25
주격 인칭 대명사의 자막 번역 양상 연구 - 라폰젤, 그래비티, 내 인생의 변화구를 중심으로	최 은 영 / 49
영어이중모음화 동인에 대한 고찰	주 혜 정/ 71
텍스트 속에서의 라캉 : 제임스 조이스의 「애러비」를 중심으로	고 현 주 / 85
Thorton Wilder의 『Our Town』에 드러난 일상적 삶의 가치	이 희 영/ 109
희미한 희망에 관하여: 코맥 매카시의 『로드』 읽기	정 희 연/ 123
2016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137
2017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138
2017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연보	139

한국 아동문학의 번역에 대한 코퍼스 기반 연구

김 세 현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코퍼스 기반 번역학(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CTS)의 관점에서 연구자가 자체 구축한 한-영 아동문학 번역 코퍼스와 비번역 비교 코퍼스를 대상으로 번역 보편소(translation universals) 중 ‘단순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다. 코퍼스 기반 번역학(CTS)은 베이커(Baker 1993: 235, 248)가 번역학에 코퍼스 기반 연구를 도입하여 이를 독립된 연구분야로 주창한 이래, 라비오사(Lavidosa, 1998, 2002), 올로한(Olohan 2002, 2004), 자네티(Zanettin 2012) 등의 후속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번역학의 하위 연구 분야이다. 이들의 문헌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온 화두가 번역 보편소와 번역 문체 연구인데, 본 연구에서는 번역 보편소 가설의 검증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베이커(1993: 243)에 따르면, 번역 보편소란 “원전 발화보다는 번역된 텍스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특정 언어 체계의 언어적 간섭의 결과가 아닌 자질”을 뜻한다. 번역 보편소 연구에서는 비번역 텍스트와 비교하여 번역 텍스트에서만 존재하는 보편적인 경향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번역 보편소 연구에서는 언어계가통이 유사한 유럽어 언어쌍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언어계가통이 다른 영-한 언어쌍을 다룬 국내의 연구에서는 주로 전체 문학 텍스트(이창수, 2013) 내지는 신문 텍스트(고광윤·이영희, 2016)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문학 텍스트 중 한-영 아동문학으로 연구범위를 축소하여 번역 보편소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번역 보편소는 단순화(simplification), 명시화(explicitation), 표준화(standardization, or normalization), 균일화(levelling out)의 개념으로 구성되는데 단순화는 번역 문에서 언어가 단순화된다는 가설로 평균 문장길이가 짧아지거나, 어휘 다양도,

어휘 밀집도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설명된다(Baker, 1996). 명시화는 비번역 텍스트에 비해 번역 텍스트에서 의미를 좀 더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뜻하고 접속사나 설명적인 어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표준화 내지 규범화는 번역 텍스트가 도착어의 특징을 과장되게 사용하거나 도착어의 전형적인 형태를 따른다는 가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균일화는 비번역어에 비해 번역어에서 동질성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보편소 개념 중 단순화에 대해 고찰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제까지 다뤄진 바 없는 한국 아동문학의 영어 번역에 대한 코퍼스를 자체 구축하여 단순화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에 초점을 둔 정량적 분석 연구를 미리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겠다.

첫째, 한-영 아동문학 번역 코퍼스에서 ‘단순화 가설’ 입증 여부를 논의한다.

둘째, 번역 하위 코퍼스 간에 단순화 정도에 있어 차이 여부를 살핀다.

셋째, 연구 결과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한다.

2. 번역 보편소: 단순화 가설

단순화는 번역 언어가 비번역 언어보다 어휘적, 통사적, 문체적으로 단순한 경향이 있다는 가설이다(Baker 1996, 181-182). 단순화에 관한 논의는 코퍼스 기반 연구가 도입되기 전에도 경험적 연구로써 수행된 바 있었다. 블룸-쿨카와 레벤스톤(Blum-Kulka & Levenston, 1983), 반데라우웨라(Vanderauwera, 1985)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적은 수의 텍스트 표본에 대하여 수작업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명확한 선험적 정의나 다량의 텍스트 분석 자료, 일관성 있는 방법론이 부족하였다(Laviosa 2002). 이후 코퍼스 기반 번역학 연구에서는 Baker(1995)의 연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비번역문과 대비되는 번역문의 단순화 특징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단순화 개념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 라비오사(1997; 1998b; 1998c)는 단순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 각각 어휘적 다양성, 정보량, 문장길이와 관련된다.

첫째, 영어의 다중원언어어 비교코퍼스에서는 번역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범위는 비번역 텍스트들의 어휘 범위보다 더 좁으며, 그리고 이 차이는 원전 언어 변인과는 독립적이다. 둘째, 영어의 다중원언어어 비교코퍼스에서는, 번역 텍

스트들은 비번역 텍스트들보다 사전적 단어 대 개별적 단어의 비율이 더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원전 언어 변인과는 독립적이다. 셋째, 영어의 다중원전언어 비교코퍼스에서는, 번역 텍스트들은 비번역 텍스트들보다 더 낮은 평균 문장길이를 가지며, 이 차이는 원전언어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순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라비오사의 연구를 다른 언어쌍에서도 입증하는 연구가 많은데 샤오 외(Xiao et al., 2010)는 중국어의 단일어 비교 코퍼스에서 번역 텍스트에서 어휘적 단순화 경향을 입증하였다. 또 Hu(2007)와 Wen(2009) 역시 중국어에서 단순화 가설을 연구하였다. 한국어를 포함한 국내 연구로는 김혜림(2014), 김지은(2014), 고광윤·이영희(2016), 이창수(2013)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며 단순화 가설을 입증하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영 아동문학 코퍼스를 자체 구축하여 연구범위를 제한해 보았으며, 구체적인 코퍼스 구축과 연구방법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3. 연구방법

3.1 코퍼스 구축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문학 코퍼스에 한하여 번역된 영어 텍스트의 단순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아동문학에 대한 코퍼스가 없었기 때문에 한영 아동문학 코퍼스와 비번역 영어 아동문학 코퍼스를 자체 구축하였다.

코퍼스의 종류는 언어 종류에 따라 단일어 코퍼스(monolingual corpus)와 다언어 코퍼스(multilingual corpus), 비교 코퍼스(comparable corpus)와 병렬 코퍼스(parallel corpus)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번역 텍스트와 비번역 텍스트 분석을 위해 단일 언어 비교 코퍼스를 활용했다. 먼저, 번역 코퍼스에 포함된 텍스트는 한영 아동문학 3종이고 총 61,448어절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한영 아동문학 연구(오미형, 2007; 권인경, 2012; 오윤선, 2016; 장영미, 2016)에는 그림책과 챗터북이 혼재되어 있고 출판사도 국내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만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의 텍스트를 포함시키고자 그림책을 제외한 챗터북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출판사는 국내 출판사, 북미 아동문학 전문 출판사, 글로벌 출판사를 모두 포함시켰다. 비번역 코퍼스에는 번역 코퍼스에 포함된 텍스트와 비슷한 양과 수준의 텍스트를 담고

있는 모던 클래식 아동문학서 3종을 선정하였고 총 61,128어절로 구성되었다. 구축된 코퍼스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1〉 번역 코퍼스와 비번역 코퍼스의 설계

코퍼스	제목	출판사	작가	번역가	토큰수
TLC1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Penguin	Sun-Mi Hwang	Chi-Youn g Kim	20,567
TLC2	The Story Bag	Tuttle Publishing	So-Un Kim	Setsu Higashi	20,299
TLC3	Cat School	Munhakdongne Children	Jin-Kyung Kim	Sukyeon Cho & Andrew Killick	20,582
NTC1	Charlotte's Web	Harper & Brothers	E. B. White	-	32,235
NTC2	Stuart Little	Harper & Brothers	E. B. White	-	19,104
NTC3	Fantastic Mr. Fox	Puffin Books	Roald Dahl	-	9,789

번역 코퍼스와 비번역 코퍼스에 포함된 대상 텍스트들은 모두 비전자화된 텍스트¹⁾를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화한 다음,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 여부를 확인한 뒤 텍스트 파일(.txt) 형태로 저장하였다. 구축된 코퍼스는 AntConc 프로그램, Compleat Lexical Tutor 웹 어휘분석기를 활용하여 아래 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할 단순화 지표들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1) 전자화된 아동문학 텍스트는 Gutenberg Project, BNC 코퍼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Gutenberg Project에는 19세기~20세기 초에 출간된 고전 아동문학 위주였고, BNC 코퍼스 역시 출간 연도가 오래되고 아동문학 텍스트는 세 건만이 확인되어 번역 코퍼스에 대응하는 비번역 코퍼스를 자체 구축하기로 하였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의 지표로 어휘 다양도, 어휘 밀집도, 통사적 복잡도를 탐색하기로 하고, 각각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어휘 다양도는 타입/토큰비(type-token ratio: TTR)로 계산되는데 타입은 단어 유형수, 토큰은 총 출현 단어수를 말한다. 해당 코퍼스에 상이한 비반복적인 단어가 많을수록 어휘 다양도는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번역 텍스트에서는 어휘 다양도가 낮고 따라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어휘 밀집도는 전체 단어 대비 내용어 비율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내용어란 명사, 동사, 형용사 등 의미 구성에 필수적인 단어들을 말하며 한 문장에 내용어가 많을수록 정보 부담이 높아진다. 번역 텍스트에서의 일반적인 가정은 비번역 텍스트에 비해 내용어 비율이 낮아 어휘 밀집도가 낮아지고, 결국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통사적 복잡도는 평균 문장 길이(mean sentence length)로 산출하였으며, 한 문장에 포함된 단어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두 코퍼스 간의 평균 차이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R프로그램과 엑셀의 데이터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t-검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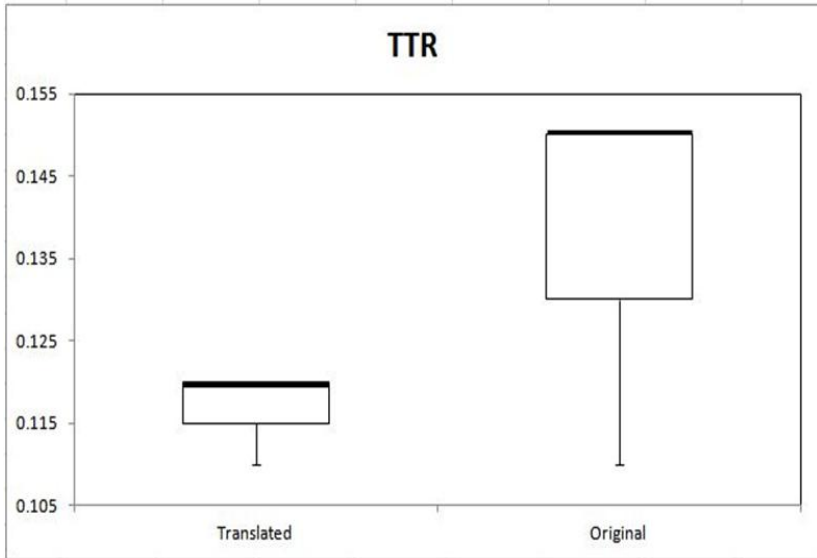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 데이터로 ‘한영 아동문학 번역 코퍼스는 비번역 영어 아동문학 코퍼스에 비해 어휘 다양도, 어휘 밀집도, 통사적 복잡도가 더 낮아 단순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이 검증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장에서 제시되겠다.

4. 분석 결과

4.1. 어휘 다양도(TTR)

번역코퍼스와 비번역 코퍼스 간의 TTR 분석은 AntCon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각 코퍼스 내의 TTR값을 구한 후 평균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림1〉 번역 코퍼스와 비번역 코퍼스의 TTR 박스 플롯



두 코퍼스 간의 차이에 관한 통계검정 이전에 두 코퍼스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해 <그림1>과 같이 박스 플롯(box plot)²⁾을 제시한다. 박스에서 진한 실선은 데이터의 중간 값을 의미한다. 박스 안에는 중간 값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 25%, 전체 50%의 데이터가 포진해있다. 그리고 박스 밖의 선은 휘스커라고 불리는데 이 안에 나머지 상하 25% 데이터가 분포한다. <그림1>의 경우 번역 코퍼스와 비번역 코퍼스 모두에서 중간값, 상위 25%, 최대값이 동일하였으므로 중간값 위쪽 박스와 박스 위쪽의 휘스커가 시각화되지 않았다.

먼저, 박스의 위치와 데이터의 중간 값을 비교해보면 번역 코퍼스보다 비번역 코퍼스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해있다. 이는 두 코퍼스간의 TTR값에서 번역 코퍼스에 비하여 비번역 코퍼스가 더 크다는 뜻이다. 즉, 두 데이터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번역 코퍼스의 중간 값과 평균은 0.12였으며, 비번역 코퍼스의 경우 각각 0.15, 0.14이다. 두 코퍼스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2) 박스플롯은 자료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는데 많이 쓰인다. 박스플롯을 통해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과 특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해당 자료가 정규분포를 보이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이용훈, 2016: 103)

한가는 별도의 통계검정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박스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비번역 코퍼스가 좀 더 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중간에 더 많이 몰려 있어 첨도(kurtosis)³⁾가 높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박스에서 휘스커까지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두 코퍼스 박스 아래쪽 휘스커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두 코퍼스 모두 중간 값 아래에 더 많이 포진한 상태로 왜도(skewness)⁴⁾가 더 높다는 뜻이다. 그리고 데이터 중 정상치를 크게 벗어난 수치가 있을 경우 그래프에서 선 밖의 점으로 표현되고 이를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두 코퍼스 모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두 코퍼스 간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t-검정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과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로 나뉜다(김재철, 2008: 229). 본 연구의 두 코퍼스는 종속적이지 않고 서로 독립적이므로 대응표본 t-검정이 아니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는데 먼저 등분산성을 검정해야 한다. 등분산성 검정은 두 코퍼스의 분산도 값을 계산하고 두 수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다. 등분산성 검정 결과 번역 코퍼스의 분산도는 0.000033, 비번역의 코퍼스의 분산도는 0.000533으로 비번역 코퍼스의 분산도가 더 높게 나왔다. 다시 말해, 비번역 코퍼스의 균일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이 차이에 대한 p값은 .0588로 유의수준 5%보다 높게 확인되었으므로 두 코퍼스는 등분산성을 보이며 두 코퍼스의 분산은 같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두 코퍼스 간에 이와 같이 등분산성이 있다는 조건 하에 t-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은 $p=.2193(t=-1.4552, df=4)$ 로 번역 코퍼스와 비번역 코퍼스의 어휘 다양도의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번역 코퍼스와 비번역 코퍼스는 어휘 다양도 측면에서 비번역 코퍼스의 TTR 평균이 더 높아 좀 더 다양한 어휘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여부를 살펴봤을 때 두 코퍼스의 어휘 다양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풀이된다.

3) 어떤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김재철, 2008: 12)으로, 자료의 분포모습이 정규분포보다 더 중앙에 집중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4) 좌우대칭을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값(김재철, 2008: 11)으로, 자료의 분포가 대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2〉TTR의 등분산성 검정결과

변수	F	p
TTR	0.0625	.0588

〈표3〉TTR의 독립표본 t-검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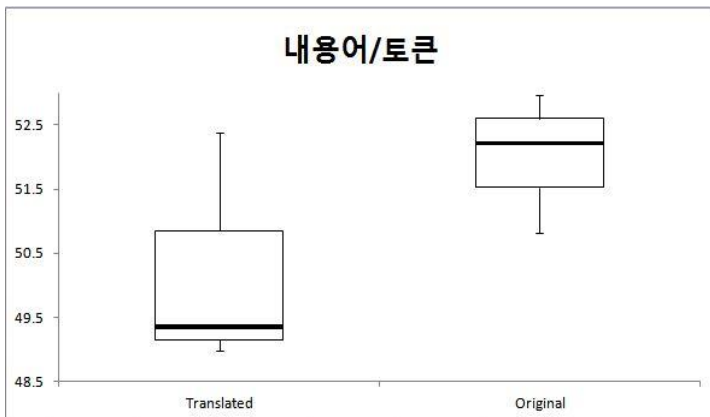
코퍼스	N	M	SD	t	P
번역	3	0.11	0.0000	-1.4552	0.2193
비번역	3	0.13	0.0005		

4.2. 어휘 밀집도

다음으로 두 코퍼스 간 어휘 밀집도를 비교하기 위해 3장에서 밝힌 대로 전체 토큰 수 대비 내용어 개수를 계산하였다. 먼저 〈그림2〉의 박스 플롯을 통해 데이터 분포를 보면 번역 코퍼스의 박스 크기가 비번역 코퍼스보다 더 큰데, 이는 번역 텍스트가 비번역보다 상대적으로 중간에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 박스로부터 휘스커까지의 거리를 보면 번역 코퍼스는 위쪽으로 훨씬 길게 벌어져있어 데이터가 중간값 아래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ositively skewed).

데이터 중간 값(median)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번역 코퍼스의 중간 값(49.32)이 비번역 코퍼스의 중간 값(51.53)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 번역 코퍼스에서 내용어 수가 더 적어 어휘 밀집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번역 코퍼스와 비번역 코퍼스의 어휘 밀집도 박스 플롯



다음으로, 등분산성 검정 결과 번역 코퍼스의 분산도는 3,5065, 비번역의 코퍼스의 분산도는 1.1976으로 확인됐다. 번역 코퍼스의 분산도가 더 높게 나온 것은 번역 코퍼스의 균일도가 비번역 코퍼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이다. 이 차이에 대한 p값은 .2546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높게 확인되었으므로 두 코퍼스는 등분산성을 보이며 두 코퍼스의 분산은 비슷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 코퍼스 간에 등분산성이 있다는 조건 하에 t-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은 $p=.2290(t=-1.4188, df=4)$ 로 번역 코퍼스와 비번역 코퍼스 간의 어휘 밀집도 평균값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번역 코퍼스와 비번역 코퍼스는 비번역 코퍼스의 토큰 대비 내용어 비율이 더 높아 어휘 밀집도가 높고 그만큼 정보 전달량이 다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봤을 때 유의확률 p값이 유의수준 5%보다 높으므로 두 코퍼스의 어휘 밀집도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4〉 내용어/토큰의 등분산성 검정결과

변수	F	p
내용어/토큰	2.9279	.2546

〈표5〉내용어/토큰의 독립표본 t-검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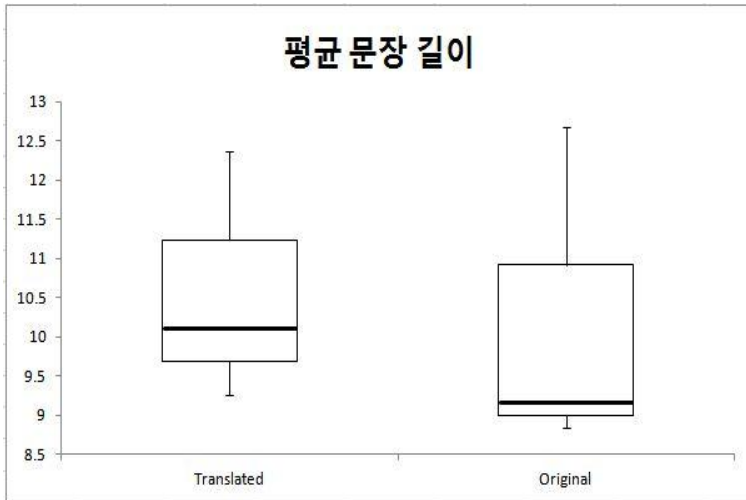
코퍼스	N	M	SD	t	P
번역	3	50.22	3.507	-1.4188	.2290
비번역	3	52.00	1.198		

4.3. 평균 문장 길이

양 코퍼스 간의 통사적 복잡도를 비교하기 위해 문장 당 평균 어절 수에 기초하여 평균 문장 길이를 산출하였다. 먼저 <그림3>의 박스 플롯이 나타내는 데이터 분포를 보면 박스크기는 비번역 코퍼스가 더 크므로 비번역 코퍼스의 데이터가 중간값에 몰려있어 첨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고, 박스로부터 휘스커까지의 거리가 위쪽으로 더 길게 뻗어있어 데이터가 아래 값에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 코퍼스에 비해 비번역 코퍼스의 첨도나 비대칭보다 더 높다는 뜻이다. 박스의 중간 선 높이를 통해 데이터 중간값 차이를 비교해보면 번역 코퍼스의 중간값이 비번역 코퍼스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 평균적으로 문장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번역 코퍼스의 중간값과 평균은 각각 10.11, 10.58으로 비번역 코퍼스의 9.16, 10.2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등분산을 전제한 t-검정 결과 $p=.8312(t=0.2274, df=4)$ 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보다 높아 두 코퍼스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두 집단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3〉 번역 코퍼스와 비번역 코퍼스의 평균 문장 길이 박스 플롯



〈표6〉 평균 문장 길이의 등분산성 검정결과

코퍼스	N	M	SD	t	P
번역	3	10.58	2.566	0.2274	.8312
비번역	3	10.23	4.540		

〈표7〉 평균 문장 길이의 독립표본 t-검정결과

변수	F	p
평균 문장 길이	0.565	.3611

다음 <그림4>는 앞서 살펴본 타입/토큰 비율, 내용어/토큰 비율, 평균 문장 길이에 대하여 두 코퍼스의 평균 값을 시각화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두 그래

프의 양상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t-검정을 통해 두 코퍼스 간에 발생한 차이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영 아동문학 번역에 대해 코퍼스 기반 연구를 실시하였고, 번역 보편소 중 단순화 가설을 입증하고자 어휘 다양도, 어휘 밀집도, 통사적 복잡도를 산출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영 아동문학에 대한 번역 코퍼스와 이에 대응하는 영어 아동문학 비번역 코퍼스를 자체 구축하였고 분석 데이터 값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두 코퍼스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 비번역 코퍼스에 비해 번역 코퍼스에서 타입/토큰 비율과 내용어/토큰 비율이 더 낮아 더 단순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평균 문장 길이로 산출되는 통사적 복잡도 측면에서는 번역 코퍼스에서 더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다. 번역 텍스트에서 어휘적 측면에서는 더 단순화되었지만 평균 문장길이에서는 더 길어졌다는 기존 연구(Laviosa, 1998a; Xiao & Yue, 2009, Xiao, 2010)와 일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이 점 역시 기존 연구들과 일치했다. 따라서 한영 아동문학 코퍼스가 비번역 아동문학 코퍼스에 비해 단순화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번역 텍스트에서는 어휘가 단순화되고 평균 문장 길이는 길어진다는 일관된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결과값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코퍼스에 포함되는 샘플 사이즈 수를 더 많이 확보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문학 코퍼스의 하위 코퍼스에서도 번역 보편소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며, 이 연구를 통해 구축된 코퍼스는 키워드 분석, n-gram 분석 등 어휘 분석에 대한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교 코퍼스로 비번역 아동문학 텍스트 대신 성인 문학 텍스트와 대조해 보는 것도 앞으로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사료된다.

Work Cited

- Baker, M. 1993. 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In Mona Baker, Gill Francis and Elena Tognini-Bonelli (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ur of John Sinclair*, Amsterdam: John Benjamins. 233-250.
- _____. 1996.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In H. somers (eds.)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Studies in language engineering, In Honour of Juan C. Sager*. Amsterdam: John Benjamins, 175-186.
- Laviosa, S. 1997. 'How Comparable Can 'Comparable Corpora' Be?', *Target* 9(2): 289-319.
- _____. 1998b. 'Core Patterns of Lexical Use in a Comparable Corpus of English Narrative Prose', *Meta* 43(4): 557-570.
- Malmkjaer, K. 1993. Who Can Make Nice a Better Word than Pretty? Collocation, Translation and Psycholinguistics. In Baker et al. (eds.)
- Stubbs, M. 1986. Lexical Density: A Computational Technique and Some Findings. In M. coultard (eds.) *Talking about Text. Studies Presented to David Brazil on His Retirement*. Birmingham: English Language Research, U of Birmingham, 27-42.
- Vanderauwera, R. 1985. *Dutch Novels Translated into English: The Transformation of a Minority Literature*. Amsterdam: Rodopi.
- Yu, J. 2014. A Readability Study and Its Relevance to Simplification on Translations of Lun Yu,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9(3): 47-57.
- Zanettin, F. 2012. *Translation-Driven Corpora: Corpus Resources for Descriptive and Applied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 권인경. 2012. 「아동문학의 한영 번역전략 연구」. 『동화와 번역』 23: 15-40.
- 고광윤, 이경희. 2016. 「한국 신문의 영어 번역에 나타난 번역 보편소의 코퍼스 기반 분석」. 『비교문화연구』 45: 109-143.

- 오미형. 2007. 「한국아동문학의 외국어번역에 있어 자국화와 이국화」. 『동화와 번역』 13: 187-211.
- 오윤선. 2016. 「영문 그림책으로 다시 쓴 한국 전래동화의 현황과 과제」. 『동화와 번역』 32: 225-256.
- 우형숙. 2006. 「아동문학작품의 한영 번역 오류 분석: 조이북닷컴 작품 대상으로」. 『번역학 연구』. 7(2): 105-125.
- 장영미. 2016. 「한국 아동문학의 해외 소개 현황과 과제 연구」. 『스토리앤이미지 텔링』. 11: 213-241.
- 최희경. 2016. 「한영 문학번역 문제연구: 코퍼스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 193-216.

Abstract**A Corpus-based Study to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Children's Literature****Kim, Sehyoun**

This study aims to test the 'simplification hypothesis' in a Korean-English translational corpus of children's literature and a comparable non-translated corpus of children's literature in English, driven by a corpus- and statistic-based approach. Simplification, one of translation universals, is the overall tendency to contain simpler language in translated texts than in non-translated texts. To compare the degree of simplification between the two corpora, type/token ratio (TTR), content words/token, and mean sentence length are calculated by using the AntConc concordance program,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an scores is measured. The initial study hypothesis was that the translational corpus is to show a higher degree of simplification than the non-translated corpus. Even though the study results have revealed a close similarity between the two corpora in terms of lexical variety, lexical density and syntactic complexity, they also have shown that none of the indices of the corpora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ly,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would include a more extensive compilation of the texts and further parsing the corpus.

Key Words

corpus-based approach, simplification, translation, children's literature, quantitative analysis

폴리시스템 이론을 적용한 『햄릿』의 번역본 분석

김 은 아

1. 서 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햄릿에게 존재의 문제가 절박한 만큼 중요한 것이 고전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이다. 『햄릿(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은 국내에 출판된 번역서만 20종이 넘는다. 번역서뿐만 아니라 영화로 각색되어 국내에서도 개봉하였으며, 뮤지컬로 각색하여 공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번역서가 모두 잘 되었다고 보기 힘든 만큼, 번역서 중에서도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버전이 따로 있다. 에스24와 알라딘이 공개한 판매지수에 따르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가진 번역서는 최종철 연세대 교수의 번역서(민음사, 1998년)이다. 민음사 번역본 외에는 문학동네, 창비, 열린책들, 아침이슬, 펍킨, 시공사 등에서 출판한 번역본이 있으며, 셰익스피어 사망 400주년을 맞아 최신판 번역본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Ben Jonson이 “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작가(최종철 번역 인용, 2002)”¹⁾라고 찬사를 남긴 부분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세계적인 명성을 받고 사랑받은 작품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재번역이 되는 이유에 관해 단지 원작 혹은 작가의 위대한 고전 작품이기에 계속 개정되어 꾸준히 읽혀야 한다는 단순한 가정 대신 번역 문학의 지위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폴리시스템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 가능하겠다. 폴리시스템에서 문학은 주변 요소 혹은 질서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여러 시스템 중에서 번역문학 시스템은 문학 시스템 내에서 주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때 위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문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한다(Even-Zohar 1990b: 80). 폴리시스템 이론은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에 관해 다소 추상적이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1) “He was not of an age, but for all time!”

(Chang 2011), 구체적으로 햄릿에 관해 분석하기에 앞서 Chang(2011)이 구체화한 폴리스시스템 이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햄릿(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으로 설정한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많은 번역본이 출간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폴리스시스템 이론의 등장으로 문학과 번역 문학의 연구가 오역 혹은 누락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번역문학이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간주하여, 이때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였다(Bassnett 2002). 마승혜(2017)가 제안하는 폴리스시스템에 앞서 장(Chang 2011)이 폴리스시스템 이론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아래 여섯 가지의 폴리스시스템은 특히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영향을 받는 하부 시스템들이다.

정치적 폴리스시스템 : 권력을 지닌 그룹과 권력 밖의 그룹으로 구성됨
 이데올로기적 폴리스시스템 : 한 문화에서 각기 다른 그룹이 지지하는 경쟁적 또는 상충적 이데올로기들로 구성됨
 경제적 폴리스시스템 : 번역 활동이 특정 “경제적 원칙”에 따르도록 함
 언어적 폴리스시스템 : 번역이 다양한 언어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함
 문학적 폴리스시스템 : 인정된(recognized)(투리, 1995) 문학적 모델을 번역에 제시함
 번역적 폴리스시스템 : 번역의 규범이 번역 교육 시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말하는데, 번역 연습 시에는 실제적 목적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마치 문화적 진공상태에 있는 것처럼 상정하고 번역하도록 지시받음

(마승혜 번역 재인용, 2017)

이러한 규범과 시스템이 형성된 시스템 안에서 번역가는 여러 사회, 문화, 이념적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번역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3. 논의

3.1. 정치적 폴리시스템

셰익스피어가 국내에서 처음 소개된 것은 3·1운동 이후이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유화정책으로 인해 신문과 잡지들이 대거 창간되면서, 서양문화가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다(오인철, 1988). 그중에서 셰익스피어는 세계적인 극작가로 1920년대에 각종 신문과 잡지에 소개되었다(조영미, 2001). 하지만, 이때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번안되거나 일어 중역이 대부분이었다(신정옥, 1998).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현철이 1923년 『햄릿』의 완역인 『하믈레트』를 출판하였다(조영미, 2001). 이 번역본은 당시 수준으로는 훌륭한 번역본이었으며, 충실도가 높았다는 평이다(신정옥, 1998). 1930년대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가속화되면서 희곡 번역은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해방되는 1945년까지 셰익스피어 작품은 선택되지 못했다. 이후,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많은 대학이 설립되었고 가장 먼저 들어선 학과인 영문과에서 셰익스피어는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작품 출판의 활기를 되찾게 된다. 1954년 최재서의 『햄릿』이 출판된다. 이후, 출판이 이어지다가 1990년대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셰익스피어 작품이 운문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이다. 1997년 계명대학교 출판부에서 김종환 교수는 『햄릿』 번역에서 운문 번역을 시도하였다(조영미, 2001). 즉,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번역될 수 있는 선정 요인에 영향을 끼쳤으며,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완역됨으로써 작품의 위치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옮겨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언어적 폴리시스템

언어적 폴리시스템은 목표 문화권의 언어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번역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마승혜, 2017). 번역 시 통사적 구조 및 단어 선택이 달라지는 것도 언어적 폴리시스템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햄릿』에서 가장 유명한 독백이자 작품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3막 1장의 햄릿 독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HAMLET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번역하기에 앞서 번역자들이 결정해야 하는 요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문장부호와 접속사 그리고 어투이다²⁾. 문장부호는 한글에서는 콜론과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접속사 or를 번역할 것인지, 생략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한다. 어투와 관련하여는 『햄릿』은 1601년경의 작품이므로 고어체로 할 것인지, 현대어에 가까운 어투를 할 것인지 번역가는 결정해야 한다. 국내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있음이나 없음이나, 그것이 문제로다. - 최종철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경식
 이대로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다. -설준규
 존재냐, 비존재냐-그것이 문제다. -이상섭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구나. -박우수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김정환
 사느냐, 죽느냐-그것이 문제구나. -노승희
 살아남느냐, 죽어 없어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신정옥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석기

위 9가지의 번역 모두 ‘To be’로 시작하는 영어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문장부호에서 모두 콜론(:)을 생략하고 마침표로 마무리하였다. 접속사 번역에서는 김정환과 이경식이 접속사를 그대로 번역하였고, 이상섭과 노승희는 접속사 대신 줄표(-)로 대신하였으며, 나머지는 생략하였다.

하지만, 최종철의 번역의 경우 ‘있음이나 없음이나’라는 구문은 한국어에서 어색한 구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경식과 김정환의 번역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설준규의 번역의 경우 햄릿이 고뇌하는 죽고 사는 문제의 의미가 사라지고, 현 상태로 있을 것이냐 변화를 모색할 것이냐고 의미가 흐려진다. 박우수 번역본의 경우 ‘마느냐’라는 어감에서 삶과 죽음의 동등한 기술기가 아닌 ‘사느냐’에 치중된 뉘앙스를 띄고 있다. 즉, 한국이라는 목표문화권의 언어적 폴리시스템에 맞는 구두점 사용과 접속사의 선택에 있어 더욱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읽히도록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 사례이다.

2) 2017년 1월 17일자 새움지기 티스토리에서 게재된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것이 문제다(1) - 다시 번역하는 <햄릿>”에서 발췌하였으며, URL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aeumbook.tistory.com/650>

3.3. 문학적 폴리시스템

셰익스피어가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극 작품 대사의 음악성에 있다 (최종철, 2002). 셰익스피어는 정형시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반복되고 규칙적인 음의 흐름을 표현하였고, 극은 전체적으로 음악적인 연결성과 통일성을 갖는다. 또한, 산문은 대조의 효과를 통해 운문 대사의 음악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성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4년 최재서의 『햄릿』의 머리말에서 최재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문은 시와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번역에서는 서정시만을 시 형식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밀어 산문체로 썼다. 셰익스피어를 우리말로 살리는 데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셰익스피어의 음악성을 번역본에서는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 우리말 운문 번역 시도가 있었다. 운문 번역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최종철 교수는 우리말로도 음률과 리듬이 살아 있는 운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있음이나 없음이나, 그것이 문제다.
무엇이 더 고귀한 마음일까?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는 걸까, 아니면
무기 들고 고해와 대항하여 싸우다가
끝장을 내는 걸까? 죽는 건-잠자는 것
그뿐인데, 잠 한 번에 육신이 물려받은
마음의 고통과 오만가지 타고난 갈등이
끝난다 말하면 그건 바로 경건히 바라야 할
결말일 것이다. 죽는 건 잠자는 것,

최종철 교수는 자신의 운문 역의 큰 특징으로 각 행의 길이를 16자로 제한하였고, 각 행에서 3·4조의 자수율을 지키는 시 형식으로 번역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말이 가장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리듬이며, 배우들의 호흡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달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셰익스피어 극 작품의 번역이 단순히 우

리말에서는 운문으로 읊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짐작하여 운문 번역 시도가 늦어졌지만, 1990년대 이후 구체적으로 번역 행위가 운문 형식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번역적 폴리시스템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또 다른 번역의 어려움은 중의어의 번역이다. 셰익스피어는 하나의 단어로 둘 이상의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함축적이면서도 복잡 미묘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뛰어나다. 그중 하나가 바로 ‘arms’이다. 이는 팔과 무기라는 뜻 외에도 당시 영국 사회에서 젠트리 이상의 계급이 사용하던 가문의 문장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햄릿』의 5막 1장에서 무덤을 파던 광대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등장한다(조영미, 2001).

OTHER Was he a gentleman?

GRAVEDIGGER A[He] was the first that ever bore arms

무덤을 파던 광대가 양반들의 조상도 정원사, 도랑치기, 무덤 파는 자가 아닌 사람은 없었다며 모두 아담의 직업을 물려받았다고 말하자, 다른 광대가 ‘Was he a gentleman?’이라고 묻는다. 두 번째 광대는 ‘A[He] was the first that ever bore arms’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arms’는 ‘팔’이라는 뜻으로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앞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양반 가문의 문장도 뜻한다. 하지만, 다음 이어지는 대사 “The Scripture says Adam digged. Could he dig without arms?”에서 연장이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그는 문장을 걸치고 다닌 최초의 양반이었지 - 이덕수

그야 인류 최초의 연장을 가졌던 양반이지 -신정옥

암, 그분이야말로 세상에서 처음으로 연장(家紋)을 가졌던 양반이었지 - 김재남
그 양반이야말로 참 이 세상에 처음 나오시는 장하신 양반이지. 우선 연장을 가졌고, 둘째로 가문(家紋)을 팔에 달았으니 완장(腕章)을 가졌고 - 최재서

이덕수는 이를 ‘문장’으로 신정옥은 ‘연장’으로 한정시켜 번역하였지만, 김재남은 괄호 안에 한자로 처리하여 이중적 의미를 모두 전달하고자 하였다. 최재서의 번역은 arms의 두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연장과 완장이라는 각운을 이

루는 두 단어를 선택해 부각했다. 위의 예시처럼 중의어나 말장난 등 번역으로 셰익스피어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적절한 역주를 사용할 수 있다. 최종철과 김중환의 번역본에서 역주를 활용한 예가 있다. 따라서, 중의어 혹은 말장난을 번역할 때 번역자는 여러 의미 중에서 선택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글을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마 셰익스피어의 의도를 해쳐서도 안 된다. 비네이와 달베르니(Vinay & Darbelnet 1995)는 차용, 모사, 치환, 변조, 번안 등과 같은 번역 전략을 소개하였다. 목표 문화권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번역적 폴리시스템에 따라 번역가가 구체적인 번역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4. 결론

폴리시스템은 목표문화권에서 원작과 번역문의 상대적인 위치에 관해 유기적 관계에 있는 여러 시스템을 통해 살펴보는 이론이다. Chang(2011)이 더욱 구체화하여 보완한 폴리시스템의 기준에 따라 『햄릿』의 번역본을 비교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언어적, 문학적, 번역적 폴리시스템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살펴보았다. 그동안 『햄릿』의 번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오역 지적이나 누락된 부분 등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으나, 폴리시스템 이론을 적용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번역을 분석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폴리시스템은 더욱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보완해간다면 좀 더 폭넓은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Work Cited

- 신정옥. 1998. 『셰익스피어 한국에 오다』, 서울: 백산출판사.
 오인철. 1998. 「3·1운동기의 셰익스피어 작품」, 『광장』, 177, 242-265.
 조영미. 2001. 「특집 : 번역, 무엇이 문제인가; 셰익스피어 번역의 어제와 오늘/『햄릿』을 중심으로」, 『안과 밖』, 10, 48-68.
 최재서 역.1954. 『햄릿』, 서울: 연희춘추사.
 최종철. 2002. 「셰익스피어 극작품의 운문번역 - 햄릿의 제3독백」, 『번역문학』, 4, 45-55.
 Bassnett, Susan. 2002.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Chang, Nam Fung. 2011. 'Polysystem Theory: Its Prospect As a Framework

for Translation Research', *Target* 13(2): 317-332.

Even-Zohar, Itamar. 1990b. 'Interference in Dependent Literary Polysystems', *Poetics Today* 11.1, 85-95.

Vinay, Jeang-Paul & Darbelnet, Jean. 1995. 'Comparative Stylistics of French and English: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Abstract

Polysystem Analysis of Hamlet's Translation

Kim, Euna

This paper deals with the augmented version of Polysystem theory of Itamar Even-Zohar, then the application of Polysystem theory in a case study,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 and finally the effect of systems on a number of translation versions of the 『Hamlet』. It is to identify that these systems ideologically, politically or linguistically committed to translations through time and space.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extended the application of theory of the polysystem theory to various versions of translations to find out the influencing factors in terms of politic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ystems, but the definition of each system should be further clarified.

Key Words

Hamlet, Polysystem, Shakespeare, Translation, To be or not to be

한영 번역 전략을 위한 결속구조 비교 연구 -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

권 유 진

1. 서 론

문학 번역가는 원천 텍스트(source text: ST)의 의미를 목표 텍스트(target text: TT)로 옮겨 담는 단순한 의미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ST와 TT의 정중양에서 ST 저자가 촘촘히 짜놓은 글의 구성 속으로 TT 독자가 빠져들어 갈 수 있도록 담화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 같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번역가는 문장을 분석 단위로 하는 기존의 통사적 접근에서 벗어나 텍스트를 분석 단위로 하는 담화·화용론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텍스트는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집합체가 아닌 의미가 문장으로 부호화되어 표출된 의미적 단위로써 하나의 상징적 체계이기 때문이다(Halliday 2013).

텍스트는 짜임새(texture)를 갖추으로써 결속성(coherence)이 유지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텍스트 가독성과 연결된다(Lautamatti 1987). 아동문학 번역의 경우, 텍스트 결속성과 같은 담화 능력이 독자의 가독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촘촘히 잘 짜여진 글의 구성을 통해 번역가는 ST와 TT 사이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달성할 수 있다. 글은 두 가지 체계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주제구조의 흐름을 살피는 구조적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적 결속구조를 살피는 비구조적 체계이다(Halliday 2013). 본고는 텍스트 결속성 연구를 위해 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79)의 이론을 토대로 언어적 결속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한다.

많은 학자들이 텍스트에서 언어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결속구조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선행하였다. 신진원과 박기성(2010)은 소설과 비소설의 영한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시 관계 전환에 대한 연구를 통해 TT가 텍스트 결속성을 향상시키고 텍스트 기능에 적합한 방향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곽성희

(2002)는 신문기사의 어휘적·문법적 결속구조를 비교하여 TT의 결속 체계가 ST와 TLT¹⁾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성환(1998)은 한·영 논증문의 어휘적·논리적 결속구조를 비교하여 영어가 주제를 중심으로 거시적 의미 형성으로 정보를 전하는 언어인 반면에 한국어는 미시적 의미 형성으로 정보전달의 정확성을 중시한다고 입증하였다. 김영란(1999)은 기사문, 논설문, 수필 텍스트의 동지시 관계, 의미·추론 관계, 접속관계에 대한 결속구조 연구를 통해 텍스트의 장르별 특성을 밝힌 바 있다. 노은희(1997)는 담화 속 대화에서 반복의 결속구조가 운용되는 양상을 고찰하여 대화 참여자의 언어능력이 뛰어나도록 결속장치를 효율적으로 다룬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결속구조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결속성이 가독성과 직결되는 아동문학 장르에서 주제를 결속구조와 결부시킨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며 특히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문학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화·화용적 측면에서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할리데이(2013)의 체계 기능적 관점을 토대로 하여 초등 5-6학년을 대상 독자로 하는 한국 아동문학서(ST), 영미 아동문학서(TLT) 그리고 한영 번역서(TT)의 결속구조를 비교 분석하고자한다.

텍스트 결속구조에 대한 연구는 주제(theme) 연구와 결부되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제는 문두의 첫 요소로써 발화에 대해 전하고자 하는 심리적 기저 요소이자 저자가 의도하는 출발점이며 주제 선택에 따라 담화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Eggins 2004). 따라서 ST, TT, TLT의 언어적 결속구조가 절의 주제에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매끄러운 주제의 흐름을 통한 텍스트 가독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텍스트 결속구조를 주제와 결부시켜 가독성 향상의 측면에서 한영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번역가가 한영 번역 시 텍스트 결속성을 잘 살리고자 하더라도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유형적 차이로 인해 주제 선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프로탈락 언어인 한국어와 비프로탈락 언어인 영어(신진원 & 박기성 2010) 사이에 결속구조의 선호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한영 번역 시 두 언어의 유형적 차이에 대한 번역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TT와 TLT 사이

1) 본고에서는 영어 원어린이 쓴 영어 원문 텍스트를 'target language text'의 약어인 TLT로 표기한다.

의 차이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속구조의 선택에서 원천 언어(source language: SL)인 한국어와 목표 언어(target language: TL)인 영어 사이에 어떤 유형적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문학 번역 시 TLT의 언어 유형적 차이가 TT의 번역에 잘 반영되었는가?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체계 기능적 관점을 기반으로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ST, TT, TLT의 주제에 나타나는 결속구조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가독성 향상의 측면에서 결속성을 살피고 아동문학 장르의 특성을 고찰한다. 또한 ST와 TLT 사이에 언어 유형적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한 차이가 한영 번역서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하여 한영 아동문학의 번역 전략을 제안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영어와 한국어의 주제구조

체계 기능적 관점에서 주제구조에 대한 연구는 할리데이(2013)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언어의 관념적, 대인적, 텍스트적 메타기능을 반영하여 주제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텍스트적 주제는 언어의 텍스트적 기능과 관계하는 것으로써 메시지를 구성하는 기능을 하는 접속사나 접속 부가사로 이루어진다. 둘째, 대인적 주제는 언어의 대인적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참여자 간의 관계나 태도를 나타내는 호격, 양상 부가어, 정형동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화제적 주제는 언어의 경험적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써 ‘참여자(participant)’, ‘과정(process)’, ‘상황(circumstance)’의 세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는 주로 명사군(nominal group)으로, ‘과정’은 동사군(verbal group)으로, ‘상황’은 주로 부사군(adverbial group)으로 표현된다.

할리데이식 접근법에서 영어의 주제구조는 주제와 설명부로 나누어진다.

〈표 1〉 영어의 주제구조 예시 1

Normally	high pressure areas	move on,
대인적 주제	화제적 주제	
주제		설명부

(Butt, et al. 2012: 359)

〈표 2〉 영어의 주제구조 예시 2

and	they	are replaced by low pressure areas.
텍스트적 주제	화제적 주제	
주제		설명부

(Butt, et al. 2012: 359)

〈표 1〉에서 ‘Normally’는 대인적 주제로써 일반적인 내용이 이어질 것이라는 태도를 전하고, ‘high pressure areas’는 화제적 주제로써 설명부에서 전하고자 하는 담화의 방향이 ‘고기압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표 2〉에서 ‘and’는 선행절의 주제가 후속문에서 연결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텍스트적 주제이고, ‘they’는 선행절의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난 화제적 주제로써 설명부에서 ‘고기압 지역’에 대한 서술이 이어질 것을 보여준다.

할리데이(2013)에 따르면 절은 반드시 하나의 화제적 주제를 필요로 하며 대인적, 텍스트적 주제만으로는 절이 성립되지 않는다. 위계 척도(clause scale)에서 볼 때 절은 복합절(clause complex), 절, 구, 단어, 형태소의 범주로 구분된다. 복합절은 등위절(parataxis)과 종속절(hypotaxis)로 구분되고 종속절은 정형절과 비정형절²⁾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절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절이 아닌 구 범주에 포함되는 내포절³⁾(embedded clause)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할리데이식 위계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절 단위로 주제와 설명부를 나누고 화제적 주제에 나타난 결속 장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종속절에 나타나는 정형절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목적어 기능을 하는 접속사 that(projecting that),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삽입절 등이 있고 비정형절은 분사구문, with 부대상황, 부사 기능을 하는 to 부정사 등이 있다.

3) 내포절에 나타나는 정형절은 한정용법 관계사, 형용사나 부사를 헤드로 가지는 so/that, 전주어로 쓰인 접속사 that, 비교 접속사 as와 than, 관계사 what 등이 있고 비정형절은 동명사, 분사, to 부정사, 전명구 등이 있다.

그런데 종속절이 문두에 나타날 때 종속절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보는 견해가 있다(Downing 1991, Eggins 2004, Butt, et al. 2012).

(1) If you look down into it, the auditorium seems bigger than 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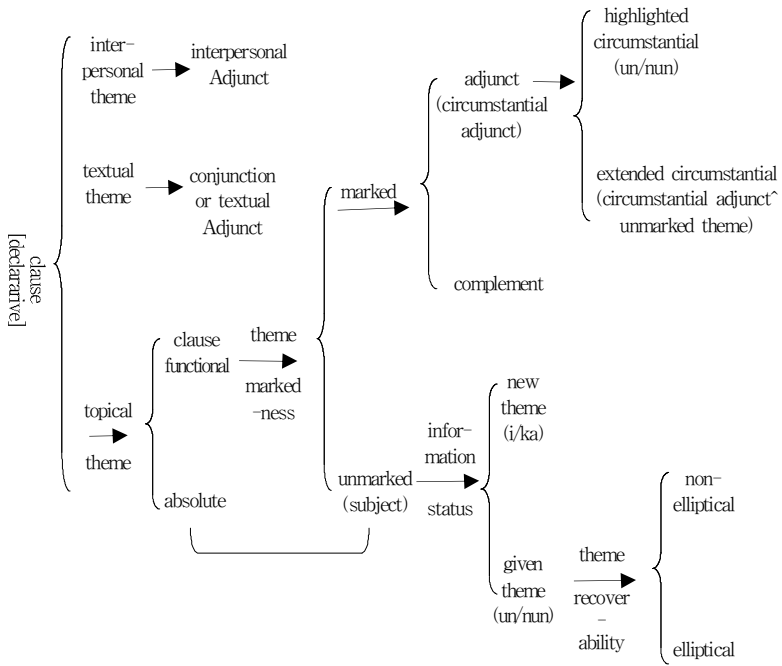
(Halliday 2013: 127)

(1)은 조건의 부사절이 문두에 나타나서 밑줄 친 종속절 전체가 주제이고, 절의 나머지 요소인 ‘the auditorium seems bigger than ever’은 설명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문두에 나타나는 부사 기능의 종속절 전체를 하나의 화제적 주제로 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경우에 부사절을 주절 앞에 위치시키는 언어적 특징이 있으므로 (조인정 2004) 문두에 나오는 부사절 전체를 하나의 화제적 주제로 보는 입장을 따르면, 한국어와 영어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할리데이식 접근에 따라 한국어의 주제구조 체계를 정립한 학자는 김미라 (Kim 2007)이다. 그는 평서문의 절을 기준으로 한국어 주제구조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할리데이(2013)의 정의에 따라, 절의 주제는 대인적, 텍스트적, 화제적 주제로 구성되고 화제적 주제는 무표적 주제와 유표적 주제로 나뉜다. 무표적 주제는 ‘-이/가’의 표지가 붙는 신정보 주제와 ‘-은/는’의 표지가 붙는 구정보 주제를 갖는다. 구정보 주제는 맥락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생략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주제-설명부 분석 시 생략된 주제를 복구시킨다. 유표적 주제는 부가어와 보충어로 구분된다. 부가어는 부사군에 ‘-은/는’의 표지가 붙으면 강조된 부가어로 보고 조사 표지 없이 부사군만 있으면 주어까지를 주제로 보고 확장 부가어로 본다. 이상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한국어의 주제 체계



(김미라 2007: 130)

이상으로 할리데이식 접근을 통한 영어와 한국어의 주제구조를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영어의 주제는 절의 첫 요소로 등장하는 화제적 주제이고 한국어의 주제는 ‘-은/는/이/가’ 등의 주제 표지로 표시되는 절의 첫 요소이다. 본고의 텍스트 분석에 적용할 한·영 주제의 기준은 3.2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2.2. 결속구조

텍스트는 의미적 연결을 이룬 문장들이 통일성 있게 이어지는 “통화성 발화체(communicative occurrences)”(곽성희 2002: 141)이다. 텍스트가 텍스트다움을 유지하려면 텍스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는 텍스트성은 결속성, 결속구조, 의도성, 수용성, 상황성, 정보성,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갖추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 결속

구조는 텍스트 내의 요소를 문법적, 어휘적으로 이어주는 것으로 이는 결속 장치(cohesive ties)를 통해 실현된다(Halliday & Hasan 1979).

학자에 따라 결속구조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지만 할리데이와 하산(1979)의 모델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다. 그들은 결속구조를 문법적 결속과 어휘적 결속의 범주로 나누고 문법적 결속 장치에 지시, 대응, 생략, 접속을 포함시키고 어휘적 결속 장치에 반복과 연어를 포함시켰다. 반복은 동의어, 동의어, 상·하의어, 일반어, 부분어⁴⁾ 반복으로 구성된다. 본고는 절의 첫 요소로 등장하는 주제의 결속구조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법적 결속 장치 중 지시와 생략만을 다루기로 한다.

문법적 결속구조에서 지시는 그 자체로 의미적 해석을 가지지 않고 텍스트 내의 어딘가에 등장한 지시 대상을 찾아서 의미를 파악하는 장치이다(Halliday & Hasan 1979). 지시는 대명사와 한정사 등으로 실현되고, 외부적 상황에서 의미 파악이 이루어지는 외적조용지시(exophoric)와 텍스트 내에 표출된 언어 요소에서 의미 파악이 가능한 내적조용지시(endophoric)로 나누어진다. 내적조용지시에는 선행된 정보를 지시하는 전방조용지시(anaphora)와 후행 정보를 지시하는 후방조용지시(cataphora)가 있다. 본고에서는 텍스트 외부에서 의미적 관계를 찾는 외적조용지시는 제외하고 텍스트 내에서 의미 관계가 이루어지는 내적조용지시를 기준으로 지시를 분석할 것이다. 생략은 선행 정보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더라도 어휘화하여 표현하지 않고 형태상의 비실현으로 불완전한 의미를 만들어 선행절의 의미에 의존하게 되어 절 간의 결속성을 강화시킨다(김일웅 1984).

어휘적 결속구조에서 동의어 반복은 동일 어휘 항목을 단순 반복하는 장치이고 형태상으로 품사 변환이 일어나더라도 동일어로 본다(Halliday 2013). 동의어 반복은 의미적 유사성의 연장선상에서 동일 의미를 가진 어휘 항목을 반복하는 장치이다(김성환 1998). 상·하의어 반복은 ‘trains’와 ‘vehicles’의 관계처럼 어휘 항목들이 계층적 함의관계를 갖는 장치이다(김성환 1998). 일반어 반복은 ‘the+일반어’로 나타나는 장치로 지시와 반복 사이에 존재한다⁵⁾(Halliday & Hasan 1979). 부분어 반복은 어휘 항목들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맺는 장치로써 명사 군과 부사군⁶⁾의 형태를 포괄한다(강명렬 1990). 마지막으로 연어는 의미적 공기

4) 할리데이와 하산(1979)이 제시한 모델에는 부분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할리데이(2013)는 후속 연구를 통해 부분어를 어휘적 결속구조에 포함시켰다.

5) 본 연구에서는 일반어를 반복의 결속구조에 포함시킨다.

(co-occurrence)를 이루는 어휘 항목들 사이에 나타나는 결속 장치로써 반복을 제외한 항목이다(신진원 & 박기성 2010).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리터러시의 발달이 거의 완성된 한국과 미국의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권장 도서에서 ST 2권, TT 2권, TLT 2권을 선정하여 총 6권의 아동문학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ST와 TLT의 선정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동일 학년의 권장 도서를 토대로 한 이유는 아동의 리터러시 발달에 따른 가독성을 기준으로 권장 도서를 학년별로 분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각 텍스트별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텍스트 분석 단위는 각 도서의 본문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에서 약 500개의 절 분석이 이루어졌다. 주제-설명부 분석(T-R 분석)은 문단이나 챕터로 끊어서 구분하는 것 없이 약 500개의 절을 하나의 의미적 단위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소설 장르의 특성상 동일한 주제가 문단이나 챕터의 구분을 초월하여 연결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수일리와 수일이=수일’ , ‘마당을 나온 암탉=암탉’ , ‘Su-il versus Su-il=SI’ ,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TH’ , ‘Charlotte’ s Web=CW ‘, ‘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CCF ’)

3.2. 자료 분석 기준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체계 기능적 관점을 토대로 한 할리데이(2013)와 김미라(2007)의 주제구조를 토대로 영어와 한국어의 텍스트 주제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절은 할리데이(2013)의 정의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의 유형별로 모두 텍스트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상을 바탕으로 영어 주제구조의 기준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

6) 부사군은 to 부정사 구문, 분사구문, 부사류, 부사절의 형태를 모두 지칭한다.

제는 절의 첫 초소이고 ‘참여자’, ‘과정’, ‘상황’이 주제 요소가 된다 둘째, 화제적 주제를 주제로 보고 화제적 주제가 없는 절은 주제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셋째, 내포절은 구 범주에 속하므로 절로 구분하지 않는다. 넷째, 복합절의 절 구분은 독립절과 비독립절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T-R 분석을 하되 부사적 기능의 종속적이 문두에 오면 절 전체를 하나의 화제적 주제로 본다.

한국어 주제구조의 기준은 영어 주제의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주제 표시와 관련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의 첫 요소인 주어나 참여자에 ‘-은/는/이/가’의 표시가 있으면 주제이다. 둘째, 구정보 주제에 ‘-은/는’이 붙는 무표적 주제의 경우 국어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T-R 분석 시 생략된 주제를 복구시킨다. 셋째, 유표적 주제의 경우 부가어나 보충어에 ‘-은/는’의 표시가 나타나면 부가어나 보충어가 주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어나 참여자까지를 주제로 본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내에서 절을 구분하여 각 절에 일련번호를 매긴다. 둘째, 유표적 주제(MT)⁷⁾ 혹은 무표적 주제(T)와 설명부(R)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셋째, 화제적 주제가 선행절의 주제에서 이어지면 ‘T’로, 설명부에서 이어지면 ‘R’로 표기하고 선행절의 일련번호도 함께 기입한다. 넷째, T-R 분석을 토대로 주제의 결속구조를 지시, 생략, 동일어, 동의어, 부분어, 상·하의어, 일반어, 연어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다섯째, 각 도서의 결속구조의 유형별 출현빈도와 백분율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ST, TT, TLT의 백분율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ST, TT, TLT의 결속구조의 유형을 비교 분석한다.

위와 같은 자료 분석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실제 텍스트 분석⁸⁾의 예시는 다음의 도표와 같다. 이는 CW의 실제 텍스트 분석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7) 유표적 주제와 무표적 주제를 구분하여 표기하되 유표적 주제는 본 연구 주제가 아니므로 T-R 분석에서 두 유형의 주제를 구분하여 논하지 않는다.

8) 본 연구에 선정된 6권의 전체 도서에 대한 실제 텍스트 분석표는 권유진(2018)의 학위 논문을 참조.

〈표 4〉 실제 텍스트 분석의 예시

No.	유표적 주제(MT)	무표적 주제(T)	설명부(R)	T-R분석	결속 구조
216	Every morning after breakfast,		<i>Wilbur</i> walked out to the road with Fern		
217		and (<u>Wilbur</u>)	waited with <i>her</i>	R216-T217	생략
218		till <u>the bus</u>	came.	T174-T218	동일어
219		<u>She</u>	would wave good-bye to <i>him</i> ,	R217-T219	지시
220		and <u>he</u>	would stand	R219-T220	지시
221		and (<u>he</u>)	watch <i>the bus</i>	T220-T221	생략
222		until <u>it</u>	vanished around a turn.	R221-T222	지시
223	<u>While Fern</u> <u>was in</u> <u>school,</u>		Wilbur was shut up inside his yard.	T219-T223	부분어

(CW: 10)

〈표 4〉의 첫 번째 열에 나타난 번호는 각 절의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다음 두 열에 유표적 주제와 무표적 주제를 구분하여 기입한 후 네 번째 열에 설명부를 넣는다. T-R 분석과 결속구조는 217번 절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선행하는 216번 절의 설명부에 있는 ‘Wilbur’가 후속문의 주제로 나타나고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므로 생략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T-R 분석에는 ‘R216-T217’로, 결속구조는 ‘생략’으로 표기한다.

4.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아동문학서의 텍스트 결속성을 가독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ST, TT, TLT의 주제구조를 분석하여 선행절에서 후속절로 연결되는 주제의 결속구조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 텍스트의 결속구조 장치별 출현빈도를 백분율 환산 결과와 함께 제시하고, 이에 대해

ST, TT, TLT 별로 다시 백분율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이 평균값을 통해 ST, TT, TLT 사이에 나타나는 결속구조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아동문학의 장르적 특성 및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유형적 차이를 밝히고 TLT에 나타난 결속구조의 특성이 TT의 번역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영 아동문학의 번역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분석 결과

각 텍스트의 결속구조의 유형별 빈도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법적 결속 장치로 지시와 생략을 분석하고 어휘적 결속 장치로 동일어 반복, 동의어 반복, 일반어 반복, 상·하의어 반복, 부분어 반복, 연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유형별 빈도수는 백분율 아래 괄호에 나타내었다.

〈표 5〉 각 텍스트의 결속구조 유형별 분석 결과

결속 구조	결속 장치		ST		TT		TLT	
			수일	암탉	SI	TH	CW	CCF
문법적 결속 구조	지시		11.3% (44)	7.3% (28)	48.6% (174)	44.3% (174)	38.3% (147)	41.5% (151)
	생략		37.9% (148)	40.0% (154)	10.9% (39)	16.5% (65)	19.0% (73)	11.5% (42)
어휘적 결속 구조	반복	동일어	30.7% (120)	31.2% (120)	25.4% (91)	24.4% (96)	27.6% (106)	29.7% (108)
		일반어	2.3% (9)	5.2% (20)	1.7% (6)	1.8% (7)	2.3% (9)	6.6% (24)
		동의어	0% (0)	0% (0)	0% (0)	0% (0)	0.3% (1)	0% (0)
		상· 하의어	1.0% (4)	0.5% (2)	0% (0)	1.0% (4)	2.1% (8)	2.5% (9)
		부분어	15.9% (62)	15.6% (60)	12.8% (46)	10.7% (42)	9.4% (36)	6.9% (25)
	연어		1.0% (4)	0.3% (1)	0.6% (2)	1.3% (5)	1.3% (5)	1.4% (5)

한국 아동문학서, 영미 아동문학서, 한영 번역서의 결속구조 양상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위의 결과를 다시 ST, TT, TLT의 백분율의 평균값을 환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 ST, TT, TLT의 결속구조 장치별 백분율의 평균값

결속구조	결속 장치		ST	TT	TLT
문법적 결속구조	지시		9.3%	46.5%	39.9%
	생략		39.0%	13.7%	15.3%
어휘적 결속구조	반 복	동일어	30.9%	24.9%	28.7%
		일반어	3.8%	1.8%	4.5%
		동의어	0%	0%	0.3%
		상·하의어	0.8%	0.5%	2.3%
		부분어	15.8%	11.8%	8.2%
	연어		0.7%	1.0%	1.4%

〈표 6〉을 살펴보면, ST는 문법적 결속 장치인 생략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어휘적 결속 장치인 동일어의 사용빈도가 높으며 부분어, 지시, 일반어, 상·하의어, 연어의 순이다. TT는 문법적 결속 장치인 지시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고 이어서 어휘적 결속 장치인 동일어의 사용빈도가 높으며 생략, 부분어, 일반어, 연어, 상·하의어의 순이다. TLT는 출현빈도의 수치상 차이가 있더라도 TT와 결속 장치의 순위가 거의 비슷하다. 문법적 장치인 지시의 사용이 가장 높고 어휘적 장치인 동일어가 두 번째로 높으며 생략, 부분어, 일반어, 상·하의어, 연어, 동의어의 순이다. 결속 장치 중에서 동의어는 ST와 TT에는 사용되지 않고 TLT에서 단 한번만 쓰인다.

A. 문법적 결속구조

① 지시

지시는 그 자체로 의미적 해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텍스트 내에 제시된 선행 또는 후행 정보를 통해서 해석이 가능한 문법적 장치로써 주로 대명사로 표현된다(Halliday & Hasan 1979). 지시는 TT에서 46.5%, TLT에서 39.9%로 결속

장치 가운데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는 반면에 ST에서는 9.3%로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다. 또한 TT는 TLT에 비해 지시의 사용빈도가 더 높다.

지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문장의 구분은 || 로, 절 구분은 ||로, 절의 화제적 주제는 밑줄로, 주제에 선행하는 정보 요소는 볼드체에 기울임으로 표기하고 각 절의 시작 부분에 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였다.

- (2) ¹죽은 듯이 자만 자던 앞사람에게도 그 말이 들렸다. || ²“**끼넨다**
교? 닭장에서?” || ³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이었다. ||
(암탉: 20)

- (3) ¹Sprout had never thought || ²she would leave the coop. ||
(TH: 15)

(2)에서 2번 절은 설명부로만 구성되어 있고 3번 절의 주제인 ‘그것은’은 선행절의 설명부를 가리키는 전방조용지시이다. (3)에서 2번 절의 주제인 ‘she’는 선행절의 주제인 ‘Sprout’를 가리키는 전방조용지시이다.

② 생략

생략은 선행되어 알려진 정보를 어휘화하여 표현하지 않고 형태상의 비실현을 통해 선행절의 의미에 의존하면서 절 간의 결속성을 강화시키는 문법적 장치이다(김일웅 1984). 생략은 ST에서 39.0%로 결속 장치 가운데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는 반면 TT와 TLT에서는 각각 13.7%, 15.3%로 낮은 사용빈도를 보인다.

생략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4) ¹어떤 아이가 방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서 || ²[∅: 어떤 아이가] 훌
쩍이고 있었다. ||
(수일: 32)

- (5) ¹Inside, a boy was wailing, || ²[∅: a boy] squatting on one
corner of the mess. ||
(SI: 16)

(4)에서 2번 절의 주제인 ‘[∅: 어떤 아이가]’는 1번 절의 주제가 반복되어 이어지면서 생략되어 표현된다. (5)에서 2번 절의 주제인 ‘[∅: a boy]’는 1번 절의 설명부의 ‘a boy’가 반복되면서 생략으로 나타난다.

B. 어휘적 결속구조

① 동일어

동일어는 동일한 어휘 요소를 단순히 반복하여 주제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어휘적 장치로써 어휘에 품사적 변환이 있더라도 동일어로 본다(Halliday 2013). 동일어는 ST, TT, TLT에서 각각 30.9%, 24.9%, 28.7%의 사용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어휘적 결속구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치로 나타났다.

동일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6) ¹Fern said to her mother ... ||| ²Mrs. Arable replied. ... ||| ³I don't see || ⁴why he needs an ax,“ || ⁵Fern continued, ...
(CW: 1)

(6)의 1번 절의 주제인 ‘Fern’은 5번 절에서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어 동일 주제로 나타난다.

② 일반어

일반어는 영어에서 ‘the+일반어’의 형태로 사용되는 어휘적 장치로써 어휘 항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Halliday & Hasan 1979). 일반어는 ST, TT, TLT에서 각각 3.8%, 1.8%, 4.5%로 가장 사용빈도가 낮은 장치 중 하나이다.

일반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7) ¹I, Willy Wonka, have decided to allow five children to visit my factory this year. ||| ... ^{2a}The man is dotty!” |||
(CCF: 19-20)

(7)에서 1번 절의 주제인 ‘I(=Willy Wonka)’는 2번 절에서 ‘The man’이라는

일반어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③ 동의어

동의어는 의미적 유사성의 연장선에 놓인 동일 의미를 갖는 어휘 요소를 반복하는 어휘적 장치로써 상황에 따른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나타낸다(김성환 1998). 동의어는 ST와 TT에는 나타나지 않고 TLT에서 0.3%로 단 한 번만 나타나서 모든 결속장치 중 가장 사용빈도가 낮다.

동의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8) ¹Where is **Papa** going with that ax? || ... ²So your father has decided to do away with it. |||

(CW: 1)

(8)에서 1번 절의 설명부의 ‘Papa’가 2번 절의 주제인 ‘your father’로 표현되면서 동의어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④ 상·하의어

상·하의어는 어휘 요소들 간에 계층적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적 장치로써 상위 개념에서 파생된 하위 개념이 주제로 이어지면서 의미관계의 다양성을 이룬다(Halliday & Hasan 1979). 상·하의어는 ST, TT, TLT에서 각각 0.8%, 0.5%, 2.3%로 나타나고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결속 장치 중 하나이다.

상·하의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9) ... ¹where **the animals** slept at night. ||| ²The old dog was stretched out on the ground with only his rear in his house. |||

(TH: 21, 25)

(9)에서 1번 절의 설명부의 ‘the animals’는 2번 절의 주제인 ‘The old dog’으로 표현된다. ‘개’는 상위 개념인 ‘동물’에서 파생되는 하위 요소이므로 ‘The old dog’는 ‘the animals’와 상·하의 관계를 형성한다.

⑤ 부분어

부분어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무엇의 일부’에 속하는 어휘 요소를 가리키는 어휘적 장치로써 명사군과 부사군을 포괄한다(강명렬 1990). 부분어는 ST에서 15.8%로 나타나고 TT에서 11.8%, TLT에서 8.2%의 사용빈도를 나타낸다. 부분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0) ¹Mom snapped, || ²her eyes fixed on TV. |||

(SI: 9)

(10)에서 1번 절의 주제인 ‘Mom’은 2번 절에서 ‘her eyes’로 주제가 이어진다. ‘엄마의 두 눈’은 ‘엄마’와 부분-전체의 관계를 이루므로 ‘her eyes’는 ‘Mom’의 부분어이다.

⑥ 연어

연어는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적 공기를 형성하는 어휘 요소를 가리키는 어휘적 장치로써 반복을 제외한 요소이다(신진원 & 박기성 2010). 연어는 ST, TT, TLT에서 각각 0.7%, 1.0%, 1.4%로 나타나고 가장 사용빈도가 낮은 결속 장치 가운데 하나이다.

연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1) ¹The coop was tilted forward... ||| ²The hens clucked impatiently, ...|||

(TH: 6)

(11)에서 1번 절의 주제인 ‘The coop’은 2번 절의 주제인 ‘The hens’로 이어진다. ‘닭장’은 ‘암탉’과 강력한 의미적 공기를 형성하므로 ‘The hens’는 ‘The coop’과 연어 관계이다.

4.2. 결과 논의

지금까지 ST, TT, TLT에 나타난 결속구조의 양상을 문법적, 어휘적 결속으로 살펴보았다. 결속 장치의 사용빈도의 유사성과 차이를 통해 ST, TT, TLT의

공통점과 차이를 알 수 있었고, 이는 아동문학의 장르적 특성,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유형적 차이, 번역서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TT가 TLT의 언어 유형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ST보다는 TLT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법적 결속구조에서 한국어 ST는 생략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지만 영어 TT와 TLT는 지시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는데, 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유형적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담화 맥락적으로 주체가 확인 가능하면 주어 생략할 수 있는 프로탈락 언어인 한국어와 달리 영어는 주어 생략을 써서라도 문법적 주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비프로탈락 언어이다(신진원 & 박기성 2010). 따라서 ST에 생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TT와 TLT에 대명사로 실현되는 지시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TT와 TLT에 나타난 지시의 사용빈도를 보면, TT가 TLT에 비해 높는데 이는 번역서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ST에 생략된 주제 항목이 TT로 환언될 때 번역가가 대명사로 환언하여 지시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번역가가 생략을 환언하는 경우 대명사의 사용을 가장 선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최혜선(2011)이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작문에 나타나는 주제의 양상을 연구한 결과에서 대명사로 실현되는 지시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바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또한 원문 텍스트를 목표 텍스트로 옮기는 번역서의 특성에 의해 번역가가 인위적으로 원문에 생략된 항목을 자유롭게 환언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어휘적 결속구조를 살펴보면, ST, TT, TLT 모두에서 동일어의 사용빈도는 가장 높고, 상·하의어, 연어, 동의어의 사용빈도는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문학의 장르적 특성과 관련된다. 즉 아동문학 텍스트는 동일어 반복을 통해 동일한 주제를 단순 반복하여 연결함으로써 아동 독자가 주제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상·하의어와 연어 등 독자의 사전 지식을 토대로 과생된 주제를 파악해야 하거나 동의어와 같이 기본적으로 어휘 구사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주제를 따라갈 수 있는 결속 장치의 사용은 최소화하여 텍스트가 독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어의 사용에 있어서 TT는 ST와 TLT에 비해 사용빈도가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번역서인 TT가 갖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한영 번역에 있어서 생략된 어휘 항목을 환언 시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번역가가 인위적으로 의미적 개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적 첨가와 무관한 지시의 사용은 높

게 나타나는 반면에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전하는 일반어의 사용은 선호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분어의 경우에 TT와 TLT에 비해 ST에서 사용빈도가 더 높는데, 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유형적 차이에 기인한다. 한국어는 부사절을 주절 앞에 위치시키는 구문 규칙을 가지고 있으므로(조인정 2004), 부분어에 포괄되는 부사절이 주제로 등장하는 빈도가 영어 텍스트에 비해 높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부분어는 상·하의어나 연어와 마찬가지로 상위주제에서 파생된 하위주제로 주제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배경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TL 독자의 가독성을 생각해 볼 때 한영 번역에서 번역가의 세심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3. 한영 번역 전략

이상의 ST, TT, TLT에 나타난 결속구조 양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동문학 텍스트의 결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영 번역 전략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번역가는 아동 독자의 리터러시를 고려하여 동일어의 사용빈도를 높이는 반면에 상·하의어, 연어, 동의어의 사용빈도를 낮추어서 텍스트의 가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번역가는 ST의 생략된 어휘 항목의 환언 시에 번역적 한계로 인해 지시 장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어휘적 결속 장치의 구사를 시도하여 번역서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번역가는 ST와 TLT의 언어 유형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유의하여 TT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할리데이식 체계 기능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담화·화용적 측면에서 초등 5-6학년을 대상 독자로 하는 한국 아동문학서, 한영 번역서 그리고 영미 아동문학서를 각 두 권씩 선정하여 주제에 나타나는 결속구조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가독성의 측면에서 결속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문학의 장르적 특성 및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 유형적 차이를 알아보고 TT에 TLT의 언어적 차이가 잘 반영되어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한영 아동문학의 번

역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였다.

연구의 이론적 틀로써, 주제와 설명부의 구분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의 주제 구조를 할리데이(2013)와 김미라(2007)의 이론을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할리데이와 하산(1979)의 결속구조 모델을 차용하여 문법적, 어휘적 결속구조로 구분하여 지시, 생략, 동일어, 일반어, 동의어, 상·하의어, 부분어, 연어의 여섯 가지 결속 장치로 나누어 텍스트의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ST, TT, TLT의 결속구조 양상별 분석 결과를 문법적 결속과 어휘적 결속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적 결속 장치에서 ST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생략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으나 TT와 TLT는 영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대명사를 통한 지시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다. 게다가 TT는 TLT에 비해 지시의 사용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ST의 생략된 항목을 TT로 환언할 때 일반어나 다른 어휘적 결속 장치를 이용하기보다는 지시로 환언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며 번역서가 갖는 한계로 볼 수 있다. 둘째, 어휘적 결속 장치에서 ST, TT, TLT 모두 공통적으로 동일어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으나 상·하의어, 연어, 동의어의 사용빈도는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문학에서는 사전 지식을 통해 의미적 관계로 파생된 선행 주제를 파악하거나 어휘 구사력을 갖추어야 하는 결속 장치의 사용보다는 아동의 리터러시를 고려하여 텍스트의 가독성을 향상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암시한다. 또한 ST는 TT와 TLT에 비해 부분어의 사용빈도가 높는데 이는 부사절을 주절 앞에 위치시키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텍스트 결속성을 향상하기 위한 한영 아동문학의 번역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독자의 리터러시를 고려하여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동일어의 사용빈도는 높이고 상·하의어, 연어, 동의어의 사용빈도는 낮춘다. 둘째, 번역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어휘적 결속 장치를 구사한다. 셋째, ST와 TLT의 언어 유형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런 차이를 반영하여 TT를 생산한다.

본 연구는 텍스트의 결속구조를 주제와 결부시킨 국내 연구가 아직 이루어진 바 없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문학서를 비교 연구한데 연구 가치가 있다. 다만 텍스트 분석의 범위가 ST, TT, TLT의 각 두 권씩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분석 자료의 수를 확장시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Work Cited

- 강명렬. “FSP와 Thematic Progression.”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90.
- 곽성희. “영한 결속구조 비교 연구.” 텍스트언어학, vol. 12, 2002, pp. 139-156.
- 권유진. “한영 아동문학 번역서와 영미 아동문학서의 결속성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18.
- 김성환. “한·영 논증문에서 논리적 연결어와 어휘결속의 유형과 기능.”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98.
- 김영란. “텍스트의 결속구조 연구: 기사문, 논설문, 수필 텍스트의 대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9.
- 김일웅. “대명사의 생략현상.” 언어연구, vol 7, 1984, pp. 1-20.
- 노은희. “교육적 관점에서의 대화의 결속기제고찰: ‘반복’기제를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연구회, vol. 93, 1997, pp. 209-245.
- 신진원, 박기성. “영한 번역에서의 지시 관계 대응 연구.” 언어과학, vol. 17, 2010, pp. 81-102.
- 조인정. “영한 번역의 문제: 주제 전개.” 이중언어학, vol. 26, 2004, pp. 329-354.
- 최혜선. “대학생 영어 작문의 분석: 주제전개방식과 글의 응집성을 기준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1.
- Beaugrande, Robert de and Wolfgang Dressler.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81.
- Butt, David, et al. Using Functional Grammar: An Explorer's Guide (3rd ed.). Sydney, Palgrave Macmillan, 2012.
- Downing, Angela.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me: A Systemic Functional Perspective.” Word, vol. 42, no. 2, 1991, pp. 119-143.
- Eggins, Suzanne.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2nd ed.). New York and London, Continuum, 2004.
- Halliday, Michael.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4th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3.
- Halliday, Michael and Ruqaiya Hasan.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1979.
- Kim, Mira. “A Discourse Based Study On Theme In Korean And Textual Meaning In Translation.” Dissertation, Macquarie University, 2007.

Lautamatti, Liisa. "Observa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Topic in Simplified Discourse." Text Linguistics, 1987, pp. 71-104.

Abstract

A Comparativ Study on Cohesion for Korean-English Translation Strategies: Focusing on Children's Literature

Kwon, Yujin

Since in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coherence is directly connected to children's readability, translators have to improve it using powerful cohesive ties in TT.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systemic functional perspective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cohesion among Korean children's literature(ST), English ones(TLT) and Korean-English translations(TT) targeted at the 5th and the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en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children's literature as well as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and finally to suggest translation strategies for Korean-English translations by considering how well TT reflects the linguistic traits of TLT

The results of cohesion analysis shows three points. First, the same item is the most frequently used cohesive tie among lexical cohesion in ST, TT and TLT though hyponymy, synonym and collocation present the lowest frequency among all the cohesion in ST, TT and TLT. Second, ellipsis is most frequently used in ST but so is reference in TT and TLT though the frequency of reference is higher in TT than in TLT. Third, the frequency of meronymy is higher in ST than in TT and TLT.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translation strategies for Korean-English translations this study suggests are firstly to increase the frequency of the same item and decrease that of hyponymy, synonym and collocation in TT for better readability, secondly to use diverse lexical cohesive t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T, and finally to apply linguistic differences of ST and TLT to TT.

Key Words

cohesion, cohesive ties, coherence, Korean-English translation, children's literature

주격 인칭 대명사의 자막 번역 양상 연구 - 라퐁젤, 그래비티, 내 인생의 변화구를 중심으로

최 은 영

1. 서론

한국어와 영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해 있으나 세 가지의 인칭대명사 -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및 3인칭 대명사-의 체계를 갖는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인칭대명사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번역에 있어 영어의 인칭대명사가 한글로 번역될 때의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특정한 경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영상번역은 일반 문헌번역과는 달리,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축역으로 나타난다. 축역을 통해 축소된 번역으로 영상 이미지, 배우들의 음성, 배경 음악 등과 결속성이나 응집성으로 어우러지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김재원 2016). 그렇다면 자막에 들어가는 글자 수 및 자막이 화면에 고정되는 시간의 제한성 때문에 나타나는 정보의 생략이 인칭대명사의 생략에도 영향을 미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인칭대명사는 문법적이라기보다, 다양한 어휘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적절한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제에 의존하기도 한다(오명기 2011).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지 않고 번역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향이냐 규칙이 발견되는지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칭대명사 번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채서영(2009)의 영시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2인칭 대명사의 사용양상, 이은숙(2012)의 텍스트 유형에 따른 인칭대명사 번역 전략, 김영신(2006)의 영어연구논문의 인칭대명사 번역 등이 있다. 하지만 영상번역과 관련된 연구보다는 텍스트 번역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또 김

세정, 진실로(2015)의 2인칭 대명사 you와 호칭어 번역에 나타난 변환 형상과 같은 연구는 여러 인칭대명사를 다루어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보다는 특정 인칭대명사만 한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었다.

먼저 김영신(2006)은 의사소통의 참여자를 지칭하는 대명사-I, we, you -의 경우, 영어 텍스트에는 외재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어 텍스트에서는 위의 대명사들이 생략되어 나타났다. 그 이유를 수용 문화권의 규범에 따라 다르게 번역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로 학술 논문을 쓰는 경우 인칭 대명사가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수용어 문화권의 규범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술 이 연구에서는 학술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1인칭대명사와 2인칭대명사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김세정, 진실로(2015)의 연구에서는 영어의 2인칭 대명사 you와 호칭 표현의 번역시 한국어 2인칭 대명사 쓰임의 한계와 호칭 체계의 다양함으로 인한 호칭 체계로의 변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연구 또한 2인칭대명사를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고, 텍스트 분석만이 다루어졌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칭대명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영어의 인칭대명사와 한국어 인칭대명사를 비교 분석한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영상 자막 번역을 토대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영상 번역을 중심으로 ‘주격 인칭대명사’의 영한 자막번역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막번역의 실용적인 번역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막번역을 구성하는 요소 중 영상에 등장하는 ‘주격 인칭대명사’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영한 자막번역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등장인물이 발화하는 주격 인칭대명사가 영한 자막 번역에서 대응관계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되는지, 생략 또는 변환 등의 번역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칭대명사 자막번역에서 일정한 규칙이나 경향이 관찰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2장에서는 영어의 인칭대명사 및 번역 이론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고찰해 본 후 3장에서는 분석 대상, 분석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 4장에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영화별, 인칭대명사별로 분류해 보고, 특정한 사례 또한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연구 결과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며 마무리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영어와 한국어의 주격 인칭대명사

영어에서의 인칭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하는 형태로 정의내릴 수 있다(Katie Wales 1996: 1). 대신한다는 의미가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언급된 명사(Roberston 1959; Katie 1996 재인용) 또는 이전 명사구를 대체하는(Leech and Svartvik 1975; Katie 1996 재인용)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영어에서는 인칭대명사가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다. 여러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대명사가 가장 중요한 까닭은 가장 흔히 쓰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Berry 2012).

위의 설명에 따라 화자인 1인칭, 청자를 2인칭,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3인칭으로 지칭하며 간단하게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영어에서의 인칭대명사는 <표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1> 영어에서의 인칭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I	You	He/She
복수	We		They

영어는 2인칭을 제외하고는 단수와 복수가 구별되어 있으며 3인칭은 단수와 복수의 구별 뿐 아니라 단수에서의 성별 구별도 되어 있다. 이처럼 인칭대명사는 성, 수, 격과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문법 범주로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를 대신하여 쓰인다(김세정, 진실로 2015: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⁹⁾에서 살펴본 한국어 인칭대명사의 종류에는 “인칭대명사 1인칭에 ‘나’, ‘저’, ‘우리’, 제2인칭에 ‘너’, ‘너희’, ‘자네’, 3인칭에 ‘이’, ‘그’, ‘저’, ‘이이들’, ‘저이들’, ‘그이들’, 미지칭에 ‘누구’, ‘누구들’, 부정칭에 ‘아무’, ‘아무들’이 따위가 있다고 게재되어 있다”

영어의 인칭대명사가 표1과 같이 정해진 것과 달리 한국어 인칭대명사는 학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자에 따른 견해가 매우 다양하게 나뉘어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1인칭 대명사와 관련해서는 먼저 김혜령(2016)의 연구를 살펴보면 ‘나’와 ‘저’를 단수형 인칭대명사, ‘우리’와 ‘저희’를 복수형 인칭대명사로 전제하고 있다. 박정운(1997)의 연구에서는 2인칭대명사의 경우 너, 자네, 자기, 당신, 그대를 2인칭 단수 대명사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3인칭대명사와 관련해서 박재희(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3인칭대명사의 경우 화맥적 상황에서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와 의존 명사 또는 명사가 결합된 “지시사 통합형”이 사용되기 쉽고, 문맥적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전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와 ‘그녀’등을 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담화상황에서 문맥적 상황과 화맥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시형 통합형과 ‘그’와 ‘그녀’ 모두를 3인칭대명사로 인정하여 분류하겠다.

〈표2〉 한국어에서의 인칭대명사의 분류

	단수			복수		
	평칭	경칭	겸칭	평칭	경칭	겸칭
1인칭 대명사	나		저	우리		저희
2인칭 대명사	너, 자네, 당신	당신 ¹⁰⁾ , 그대, 자기		너희	당신들, 그대들, 자기들	
3인칭 대명사	이, 이이	이분		이들	이분들	
	그, 그이	그분		그들	그분들	
	저, 저이	저분		저들	저분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 학교문법체계로 제시한 표를 토대로 위 세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한 표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칭대명사 중에서도 특히 인칭대명사의 주격 형태에 국한시키는데 이는 인칭대명사 중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고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도 용이하기 때

10) 당신의 경우에는 평칭과 경칭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신’의 쓰임은 동급 혹은 아랫사람을 존중하거나 윗사람을 높여서 사용하기도 하므로(이성화, 최은영 2017) 평칭과 경칭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이다.

2.2 캣포드의 변환 이론(Catford's Shift Theory)

번역을 할 때에 있어 번역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이타 현상인 변환은 캣포드(1965)에 의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설명된다. 층위변환(level shifts)과 범주 변환(category shifts)이다.

먼저 층위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어휘와 문법은 서로 다른 층위로 설명된다. 층위 변환이란 원문(Source Text: ST)의 요소가 번역문(Target Text: TT)으로 번역될 때에 문법 층위에서 어휘 층위로 또는 어휘 층위에서 문법 층위로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1) a. ST: This may reach you before I arrive. (영어)

b. TT: Il se peut que ce mot vous parvienne avant mon arrivée. (불어)

(캣포드 1965: 75)

(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This라는 대명사에 속해 있는 요소가 번역시 대명사가 아닌 다른 어휘인 ce mot(back translation: this word)로 바뀌었으므로 층위 변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ST인 영어의 인칭대명사가 TT인 한국어의 인칭대명사가 아닌 다른 어휘로 변환 되는 경우를 층위 변환으로 정의하여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범주 변환은 문장, 구, 단어, 형태소 등에서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캣포드의 설명에 따르자면 구조 변환(Structure shifts), 계열 변환(Class shifts), 단위 변환(Unit shifts), 언어내 변환(Intra-system shifts) 등 4가지로 나뉘지만 본 연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주 변환이라는 계열 변환과 언어내 변환만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먼저 계열 변환은 같은 문법 계열을 뛰어넘은 번역된 경우를 말한다. 형용사를 하위 범주로 나누어 본다면 M-adjective와 Q-adjective로 나눌 수 있다. M-adjective는 영어에서처럼 modifier로써 주로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를 뜻한다. 반면 Q-adjective는 불어에서처럼 qualifier로써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를 뜻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A white house (=une maison blanche)에서 “white”는 M-adjective이고 불어인 “blanche”는 Q-adjective이므로 Class shift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에서는 ST에서 주격 인칭대명사로 쓰

인 단어가 TT에서 목적격 인칭대명사로 바뀌거나, ST에서 목적격 인칭대명사가 TT에서 주격 인칭대명사로 바뀌어 번역되는 경우를 계열 변환으로 분류하기로 하겠다. 예를 들어, I want you to be happy와 같은 문장 내에서 ‘you’는 목적격 인칭대명사이다. 하지만 이를 ‘난 네가 행복해지길 위해’처럼 번역했다면 ‘내가’는 주격 인칭대명사이므로 서로 다른 문법적 형태를 띤다면 계열 변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언어내 변환은 언어 내적인 변환이라고 볼 수 있다. Munday가 다시 인용한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불어와 영어는 관사와 단복수라는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똑같이 쓰이지는 않은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단수의 형태인 ‘advice’가 불어로는 ‘des conseils’라는 복수로 쓰이거나 ‘Il a la jambe casee.’에서처럼 정관사 ‘la’ 대신 영어에서는 부정관사인 ‘a’를 사용하여 ‘He has a broken leg.’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영어와 한국어 모두 인칭 대명사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쓰임에 있어서 다르게 쓰이는 경우는 언어내 변환이라고 분류하겠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Nice to meet you’라고 말했을 때 대답으로 ‘You, too’라고 하지만 이를 번역할 때에는 ‘저도요’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격 인칭 대명사 I, we, you, she/he, they가 한국어 자막에서 그대로 대응되는 인칭대명사로 번역되고 있는지, 그리고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막번역의 특성 상 인칭 대명사에서도 생략현상이 관찰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인칭 대명사가 어떤 경우에 생략되는 경향이 있는지, 또는 인칭 대명사가 아닌 다른 기제를 활용하여 번역 되는지와 같은 연구 질문에 따라 자막번역의 양상을 고찰해 볼 것이다.

3.1. 분석 대상

분석 텍스트로는 장르별로 최근 6년 이내에 개봉한 영화 3편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애니메이션, 드라마(로맨스), SF 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장르로 정하였고, 최근 6년 이내의 영화로 선정할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언어 사용 양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퐼젤(2011),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2012), 그레비티(2015) 세 편의 영화를

선정하였다. 이 중 내 인생 마지막 변화구와 그레비티라는 영화 2편은 부산대학교 코퍼스 시스템인 ‘효원 영상번역 말뭉치 용례 검색기’¹¹⁾에 구축되어 있는 영화이며, 라퐁젤은 본 연구자가 아트 서비스에서 배급한 DVD판의 원어 대사 및 한글자막을 추출하여 코퍼스로 구축하였다. ST에 주격 인칭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절이나 구) 및 ST에는 생략되더라도 TT에서 인칭 대명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다. ‘효원영상 번역 말뭉치 용례 검색기’에서 개별 영상을 불러들여 검색기능을 사용하여 주격 인칭대명사를 검색하였다. 검색된 결과는 영어와 한국어 병렬인 문장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ST의 종류에 따라 엑셀로 정리하였다.

영화에 나타난 인칭대명사를 인칭별로 분석해본 결과 총 1351개의 주격인칭대명사가 등장하였으며 각각의 등장횟수는 다음과 같다.

〈표3〉 인칭대명사 등장횟수

	I	we	you	she/he	they	합계
라퐁젤	99	12	74	13	6	204
내 인생 마지막 변화구	314	20	293	109	42	778
그레비티	158	60	123	22	6	369
합계	571	92	490	144	54	1,351

전체적으로 1인칭대명사가 571번으로 가장 많았고, you가 490회, 3인칭 단수 형태가 144회 차례였다. 각 영화에서도 단수 1인칭대명사, 2인칭대명사 순서로 발화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분류법

영화 ‘라퐁젤’와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와 ‘그레비티’ 영상에서 등장인물이 발화하는 ST 대사 중 인칭대명사(1인칭, 2인칭, 3인칭 주격 인칭대명사)를 추출하고 해당 인칭대명사의 번역, 그리고 인칭대명사가 포함된 구절이나 문장의 번역에서 각각의 자막번역 양상에 일정한 규칙이나 경향이 관찰되는 지를

11) <http://stcor.pusan.ac.kr/>

분석한다. 예를 들어 영어의 I 가 ‘나’, ‘저’ 등으로 일대일 ‘대응’을 이루며 번역되고 있는 지 아니면 다른 어휘 즉 호칭어 등을 사용하여 번역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번역 양상은 대응, 층위 변환, 범주 변환, 생략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 중 변환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기에 3.2.4에서 상세히 논의해 보도록 한다.

먼저 생략에 대해 살펴보면, 생략은 문자 그대로 ST에서는 발화되었지만 TT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2) a. ST: You came all this way to ask me that?
- b. TT: ∅ 그거 물어보러 여기까지 왔어요?
- c. ST: Why can't I go outside?
- d. TT: ∅ 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2a)에서는 ‘you’가 발화되었지만 (2b)에서는 생략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c)에서는 ‘I’가 발화되었지만 (2d)에서는 생략되었다.

대응은 번역에 있어서 일대일 대응 즉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그대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는 경우이다. 앞 장에서 보았던 표1의 영어 인칭대명사가 표2의 한국어 인칭대명사와 일치하게 번역된 경우를 대응이라고 하겠다.

- (3) a. ST: Are you all right?
- b. TT: 너 괜찮아?
- c. ST: I love you the most.
- d. TT: 난 최고로 널 사랑해.

(3a)의 영어의 2인칭대명사 ‘you’가 (3b)에서는 ‘너’라는 2인칭 대명사로 (3c)에서 ‘I’는 (3d)에서 ‘난’인 1인칭 대명사로 대응되어 번역되었다.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하여 변환은 크게 층위 변환과 범주 변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먼저 인칭대명사라는 문법 범주에 속한 요소가 어휘 범주에 속하는 어휘로 번역되는 경우의 층위 변환을 살펴보겠다.

- (4) a. ST: He won't be there for you.
- b. TT: 녀석은 가고 없어.
- c. ST: You, stop!
- d. TT: 안돼, 인마!

(4a)에서 3인칭대명사 단수인 'He'를 영한 번역시 (4b)에서 '녀석'으로 (4c)에서 'you'는 (4d)에서 '인마'로 인칭대명사가 아닌 다른 어휘를 썼다. 이런 경우를 층위 변환이라고 하며 이런 어휘를 선택한 까닭에 지칭하는 인물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범주 변환은 크게 계열 변환과 언어내 변환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계열 변환은 제시된 인칭대명사의 격이 다른 격으로 바뀌어 번역된 경우이다.

- (5) a. ST: It wasn't us. It was the old lady.
- b. TT: 우린 몰랐는데 웬 부인이 알려줬어.

실제 ST에서는 주격이 아닌 목적격으로 등장하였지만 TT에서는 2인칭 대명사 주격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에서 주격 인칭 대명사로 계열이 변환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계열 변환이라고 한다.

언어내 변환이란 두 언어간의 동일한 체계를 지니고 있어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지만 번역되는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 내 체계에 맞는 것으로 변환되는 경우를 말한다.

- (6) a. ST: Nice to meet you, too. You, too.
- b. TT: 저도요.

영어와 한국어에서 같은 인칭대명사가 있지만 그 쓰임이 달라진 경우이다. (6a)를 살펴보면, 똑같은 체계라고 생각하고 번역한다면 '당신도요'정도에 준하는 번역을 해야겠지만 한국어의 특성상 나도 반갑다의 의미인 (6b)와 같이 '저도요'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언어내 변환이라고 하여 분석한다.

4.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사례 연구

표3에서 1인칭대명사는 663회, 2인칭대명사는 490회, 3인칭대명사의 경우에는 198회 등장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서 제기한 연구 질문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본 분석의 목적은 분석대상으로 삼은 영화의 대사에서 인칭대명사가 그대로 번역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막 번역에서 인칭대명사의 생략 또는 대응 및 변환 번역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먼저 생략현상에 대해 고찰해보면, 세 영화를 통틀어 인칭대명사의 생략이 가장 많이 쓰였고 이는 무려 1099건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체 인칭대명사의 약 80%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약 4분의 5 이상의 인칭대명사가 실제 자막번역에서 생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4〉 인칭대명사 번역된 양상

영어의 인칭대명사	I	we	you		she/he	they
			단수	복수		
	571	92	486	4	144	54
한국어로 번역된 경우	나, 저	우리 (들), 저희 (들)	너, 당신, 자네	당신들, 너희들	그, 그녀	그들
	110	6	53	2	16	3
비율	19%	6%	10%	50%	11%	3%

표4를 보면 영어의 인칭대명사가 한국어의 인칭대명사로 대응하여 번역이 된 경우는 ‘you 복수형’이 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1인칭 단수형인 ‘I’가 19%로 다음으로 번역이 많이 되었다. 그러나 ‘you 복수형’의 사례 수가 적었으므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1 영화별(장르별) 분석 결과

먼저 장르별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칭 대명사를 번역하는 데에 나타난 전략이 장르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장르와 관계없이 생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대응, 변환 순서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자

세한 결과는 아래의 표를 통해 살펴보겠다.

〈표5〉 라퐁젤(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인칭 대명사의 번역 양상

	생략	대응	변환
I	60%	36%	3%
we	83%	8%	8%
you(단수형)	62%	33%	4%
you(복수형)	0	100%	0
she/he	71%	14%	14%
They	83%	16%	6%
합계	63%	31%	4%

〈표6〉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로맨스)에서 나타난 인칭 대명사의 번역 양상

	생략	대응	변환
I	80%	15%	3%
we	65%	15%	20%
you(단수형)	83%	10%	6%
you(복수형)	50%	50%	0
she/he	96%	4%	0
They	90%	0	9%
합계	83%	11%	4%

〈표7〉 그레비티(SF)에서 나타난 인칭 대명사의 번역 양상

	생략	대응	변환
I	82%	12.5%	1%
we	95%	3%	1%
you(단수형)	92%	2%	5%
you(복수형)	100%	0	0
she/he	95%	4%	0
They	100%	0	0
합계	89%	8%	2%

영화별로 분석한 결과, 영화 장르에 따라 번역양상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장르는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라폰젤에서는 생략 63%, 대응 31%, 변환 9%,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에서는 생략 83%, 대응 11%, 변환 4%로, 그레이티에서는 생략 89%, 대응 8%, 변환 2%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 영화 모두에서 생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대응, 변환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인칭별로 나누어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2 인칭별 분석 결과

세 영화에서 나타난 1인칭대명사 및 2인칭대명사의 번역 양상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8〉 인칭대명사의 번역 양상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	총계
생략	78% (443)	88% (80)	82% (400)	50% (2)	89% (126)	90% (48)	82% (1099)
대응	19% (110)	7%(5)	11%(57)	50% (2)	10%(7)	2%(2)	13% (183)
변환	3%(18)	5%(5)	6%(30)	0	1%(2)	7%(4)	4%(59)

세 영화에서 추출한 1인칭대명사의 영한 자막 번역 현상을 살펴보면 약 80% 이르는 항목이 생략되었다. 생략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전략은 대응인데 이는 13% 정도를 차지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환이 4% 정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2인칭 대명사 ‘you’의 번역 현상을 살펴봐도 1인칭 대명사 ‘I’의 결과와 유사하다. 생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대응, 그리고 변환 순서로 살펴볼 수 있다. 3인칭 복수형 ‘they’에서는 대응보다 변환이 더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인칭 복수형에 해당하는 그들, 그녀들은 문어체적인 특성이 강해, 구어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자막의 경우에는 어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보다 변환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4.3 양상별 사례 연구

4.3.1 생략

박청희(2013)는 주어는 다른 성분에 비해서 생략이 많이 일어나는 성분인데, 모든 언어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의 주어는 회복가능성 조건만 충족이 되어도 쉽게 생략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자막번역에서도 장르별, 인칭별 가장 많은 번역 양상으로 생략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칭별 생략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인칭 대명사의 생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7) a. ST: I have a big surprise.
b. TT: ∅ 깜짝 선물이 있단다.
- (8) a. ST: We're fine.
b. TT: ∅ 문제 없어요.

예시 (7)과 (8)를 살펴보면 1인칭대명사 단수, 복수 모두에서 생략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2인칭 대명사의 생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9) a. ST: You haven't finished your dinner yet.
b. TT: ∅ 저녁 다 안 먹었잖니.

예시 (9)를 살펴보면 2인칭 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으며 의미 전달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3인칭 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살펴보자.

- (10) a. ST: She's growing it out.
b. TT: ∅ 기르는 중이요.
- (11) a. ST: I know he's somewhere.
b. TT: ∅ 이 안에 있다. 찾아내.
- (12) a. ST: They are ready for you.
b. TT: ∅ 기다리고 계세요.

예시 (10), (11), (12) 를 살펴보면 3인칭 대명사 단수, 복수, 주어의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생략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인칭대명사는 많은 경우에 생략되고 있으며 생략된다고 하더라도 화자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생략되지 않고 대응이나 변환의 방법을 통해 번역되는지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4.3.2 대응

대응은 생략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번역 전략이다. 인칭 대명사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주격 1인칭 대명사 단수 형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 (13) a. ST: I have a big surprise. So do I.
 b. TT: 깜짝 선물이 있단다. 저도요.
 (14) a. ST: I had you. I had you. I had you.
 b. TT: 내가 잡고 있었는데. 잡고 있었어요.

주격 1인칭 대명사 단수 형태인 ‘I’가 대응으로 번역이 된 경우는 저, 나(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예시 (13)은 So do I 와 같은 구문으로 동사를 받는 “do”와 같은 형태의 구문이 있는 상황에서 주로 대응하여 인칭대명사를 그대로 드러내 번역된다. 예문 (14)와 같이 같은 문장이 여러 번 발화가 되었을 경우 인칭대명사를 살려서 번역한다.

다음으로는 주격 1인칭 대명사 복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5) a. ST: I feel maybe this whole time we’ve just been misunderstanding one another.
 b. TT: 우린 서로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
 (16) a. ST: We are perfect together.
 b. TT: 우린 완벽한 커플이야.

주격 1인칭 대명사 복수 형태인 ‘we’가 대응으로 번역이 된 경우는 ‘우리’라는 한 형태로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주격 2인칭대명사이다.

- (17) a. ST: It doesn't feel like you can ever give me an answer.
b. TT: 자기는 영원히 못 할 것 같거든.
- (18) a. ST: You were wrong about the world and you were wrong about me.
b. TT: 당신은 세상을 잘못 알고 있어. 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 (19) a. ST: I know you're a vegan and everything, but some of this meat would be...
b. TT: 넌 채식만 하지만 고기를 먹어줘야...

주격 2인칭대명사 'you'는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인칭 대명사로 번역이 되었고, 자기, 당신, 너 등으로 번역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예문 (17)와 같이 부사 'ever'가 포함된 경우에 인칭 대명사로 번역된 사례가 있었다. 예문 (18)에서는 같은 구문이 반복해서 쓰여 질 때에 인칭 대명사를 번역한 경우가 많았다. 예문 (19)와 같은 경우는 부사 'every'가 포함된 문장에서도 인칭 대명사가 번역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4.4에서 추후 더 논의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주격 3인칭 대명사 단수와 복수 형태이다.

- (20) a. ST: She's in trouble.
b. TT: 그녀가 위험에 처했어.
- (21) a. ST: They don't like me. They don't like me, either.
b. TT: 날 싫어하는 애들. 저들도 날 싫어해.

(20)에서는 주격 인칭대명사 'she'는 그녀로 대응하여 번역되었다. (21)의 주격 3인칭 대명사 복수 형태인 '저들'로 번역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4.3.3. 층위 변환

층위 변환이란 ST의 인칭 대명사를 TT에서 이름이나 가족 호칭어 등을 이용하여 어휘 층위로 바꾸어 번역한 전략이다.

- (22) a. ST: As Houston recalls, she, uh, took off in your '74 GTO.

- b. TT: 자네 74년형 폰티악을 아내가 가져갔잖아.
- (23) a. ST: Where are you from?
b. TT: 플린, 고향이 어디야?
- (24) a. ST: Well... he's wrong.
b. TT: 그 자식...
- (25) a. ST: Finally, he passed out.
b. TT: 놈이 기절했어.
- (26) a. ST: Is he alright?
b. TT: 아빠는 괜찮아요?

(22)와 (23)을 보면 인칭 대명사 대신 이름 호칭어를 써서 번역한 전략이다. 특히 (24), (25), (26)번의 사례에서는 같은 3인칭 대명사 단수형인 'he'를 지칭하는 이에 대한 화자의 감정 및 태도 또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어휘로 변환하여 적절하게 번역하였다.

4.3.4. 범주 변환

범주 변환에서는 계열 변환과 언어내 변환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계열 변환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7) a. ST: (Ø) Too weak to handle myself out there, mother?
b. TT: 내가 나약하다고요, 엄마?

(27)의 경우에는 myself 라는 재귀용법적인 인칭대명사에서 (27b) '내가'라는 주격 인칭대명사로 번역된 경우이다.

계열 변환은 때로는 층위 변환과도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

- (28) a. ST: Will this break her heart and crush your soul?
b. TT: 엄마가 슬퍼하실까?
- (29) a. ST: Find your humanity.
b. TT: 덕들은 인정도 없어요?

(27)의 경우에는 재귀대명사인 'myself'의 도움을 받아 '내가'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로 변환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적절한 번역을 할 수 있었다. 계열 변환은 때로는 층위 변환과도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 (28a)는 소유격 인칭대명사이지만 (28b)는 주격이면서 동시에 호칭어를 활용한 층위 변환이 생겼다. 마찬가지로 (29a)에서 소유격 인칭대명사가 (29b)에서는 주격으로 바뀌며 ‘댁들’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층위 변환이 일어났다. 이렇듯 복합적으로 변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언어내 변환이다.

(30) a. ST: Nice to meet you. -You, too.

b. TT: 반가워요. -저도요.

(31) a. ST: Let me get this straight...

b. TT: 당신 요점은...

(30)과 (31)에서 ST와 TT에서 모두 인칭대명사의 각 형태가 있지만 영어의 인칭대명사 형태를 그대로 쓰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언어 내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이다.

4.4. 대응이나 변환으로 번역된 경우

위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격 인칭대명사를 번역하는 데 있어 생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대응이라는 전략이 사용되었고, 변환은 극히 일부분 사용된 전략으로 볼 수 있겠다. 대응이나 변환으로 번역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표8〉 대응 및 변환에서 나타나는 경향 분석표

	I	we	you	She/he	they
특정한 부사	13	-	9	-	-
문장의 반복	28	1	3	-	1
"do"의 사용	4	-	1	-	-
소계	45	1	13	-	1
대응 및 변환 번역	110	6	58	16	2

특정한 부사, 즉, ever, just, all, more, always 가 등장할 때에 대응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32) a. ST: When I promise something I never ever break that promise.
 b. TT: 난 한 번 약속하면 절대로 어기지 않아. 절대로.
- (33) a. ST: I'm just a broken-down old man.
 b. TT: 난 그저 늙고 지친 노인네야.
- (34) a. ST: You're always good at this.
 b. TT: 당신이 잘하잖아.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부사일 경우에 대응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서 4.2 데이터 분석에서도 살펴본 예시이지만 문장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 또는 의미가 상반되는 경우의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나올 경우 인칭대명사를 생략하지 않고 대응하여 번역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35) a. ST: I had you. I had you. I had you.
 b. TT: 내가 잡고 있었는데. 잡고 있었어요.
- (36) a. ST: They don't like me. They don't like me, either.
 b. TT: 날 싫어하는 애들. 저들도 날 싫어해.
- (37) a. ST: You were wrong about the world and you were wrong about me.
 b. TT: 당신은 세상을 잘못 알고. 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 (38) a. ST: I'm not a scout. I'm a lawyer.
 b. TT: 난 변호사거든.

(35)과 (36), (37)에서는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었을 때 인칭대명사가 번역되는 경우를 보았고, (38)의 경우에는 의미가 대조되는 경우에 인칭대명사가 번역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또한 'do'가 등장하여 대동사의 뜻을 지니거나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도 대응으로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9) a. ST: I have a big surprise. -So do I.

b. TT: 깜짝 선물이 있단다. -저도요.

(40) a. ST: I do like ducklings.

b. TT: 나 오리새끼 좋아하거든?

(39)는 대동사 ‘do’의 기능을 하고 있는 문장에서 인칭대명사가 번역이 되었고, (40)에서는 강조하는 의미로 ‘do’가 등장하였을 때 직접 번역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격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가 영한 자막 번역에서 대응관계에 따라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의 체계를 이용하여 그대로 번역되고 있는지, 생략 또는 변환과 같이 다른 어휘로 번역되는 지에 관한 번역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자막에 번역된 인칭대명사의 번역양상을 분류하여 동일한 형태로 번역된 비율 등을 살펴보고, 자막번역에서 관찰되는 생략현상에는 어떠한 경향이 있는지, 다른 어휘로 번역되었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영상번역이 자막에 들어가는 글자 수 및 화면에 고정되는 시간의 제한성 때문에 정보의 생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도 인칭대명사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경우 생략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생략되지 않은 경우, 대응이나 변환의 전략으로 번역이 될 때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정한 부사구와 결합했을 때, 같은 문장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또는 상반된 의미를 지닌 문장이 발화될 때, 대동사 및 강조의 역할을 하는 ‘do’가 문장에 포함되어 나타날 때 인칭 대명사로 번역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영어의 인칭대명사는 생략되어 번역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생략’을 제외한 경우에는 대응, 그 다음에는 변환의 순서로 전략이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에서는 대응이 변환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지만, 3인칭 대명사의 경우에는 변환이 대응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3인칭 대명사의 데이터가 1인칭대명사와 2인칭대명

사보다 더 적기 때문에 선불리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영화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후속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라퐁젤’, ‘그래비티’,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에서 등장인물이 발화하는 주격 인칭대명사가 자막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3편의 분석 대상 영화에서 추출한 인칭대명사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3인칭 대명사 수가 적었으며 분석대상 또한 다양한 장르를 기준으로 선택했지만 장르별 하나씩 선정한 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의 방법과 목적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후의 연구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소수의 특정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가 모든 자막번역의 인칭대명사를 포괄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인칭대명사 자막번역의 사례 연구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Work Cited

- 김경석. 1998. 「국어, 불어, 영어의 통사적 특징의 차이」, 『프랑스 어문교육』 6, 75-99.
- 김경석. 2010. 「국어 3인칭 대명사 ‘그’ : 프랑스어-영어와 비교연구」, 『프랑스 어문교육』, 34, 101-121.
- 김세정·진실로. 2015. 「2인칭 대명사 you와 호칭어 번역에 나타난 변환 현상」, 『통번역교육연구』 13.1, 29-58.
- 김영신. 2006. 「영어연구논문의 인칭대명사 번역: 텍스트 언어학적 관점」, 『번역학연구』 7.2, 53-67.
- 김재원. 2016. 「영상번역의 원칙과 전략들」, 『영어영문학』 21.1, 189-212.
- 김혜령. 2016. 「1인칭 대명사의 의미 분석 -의미 실현 조건 분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267-294.
- 박여성. 2000. 「번역학의 인식론적·언어학적 정초」, 『번역학 연구』 1.1, 59-91.
- 박정운. 1997.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 연구학』 5.2, 507-527.
- 박재희. 2015. 「3인칭대명사 ‘그’에 관한 소고」, 『한민족어문학』 71, 103-128.
- 박정희. 2013. 「주어와 서술어의 생략현상 연구」, 『우리말연구』 32, 39-61.
- 윤후남. 2009. 「번역교육에서 이론의 의미 고찰: 기능주의에 의거한 번역실습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7.1, 51-71.

- 이소훈. 2016. 「인칭대명사를 통해 본 ‘이, 그, 저’의 의미 영역」, 『어문논총』 29, 5-41.
- 이은숙. 2012. 「텍스트 유형에 따른 인칭대명사 번역 전략」, 『한국중원언어학 회 2012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4, 131-136
- 이향. 2014. 「번역학의 영어화에 관한 고찰-스넬 혼비(Snell-Hornby)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3, 233-252.
- 채서영. 2009. 「영시번역에 나타난 한국어 2인칭 대명사의 사용양상」, 『언어와 언어학』 44, 235-260.
- Catford, J.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unday, Jeremy. 2000.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 Berry, Roger. 2012 *English Grammar*, Routledge.
- Arshad Abd Samad. 2017. 'The sequence of Acquisition of Personal Pronoun case and person reference among 6 year old children in two selected malaysian kindergarten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and English Literature" 6(3): 273-282
- Katie Wales. 1995. 'Personal Pronouns in present-day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Investigation of Subjective Personal Pronouns Translated into Korean Subtitles

Choi, Eunyoung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some cases of translation in subjective personal pronouns based on Catford's Shift Theory. The data for this analysis are Korean subtitles from three movies: 'Rapunzel', 'Trouble with the curve', and 'Gravity'. It is observed that the translation patterns occur in three different forms: omission, correspondence, and shift (in order of frequency). There were, however, some other variations according to the types of personal pronouns.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strategies for those who translate personal pronouns from English into Korean and the effects produced when using them. It is, however, limited to only subjective personal pronouns further research will shed light on other aspects of personal pronouns and their translation.

Key Words

personal pronouns, omission, correspondence, shift

영어이중모음화 동인에 대한 고찰

주 혜 정

1. 서론

언어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언어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무엇보다도 음성 및 음운론 분야라 할 수 있으며, 영어의 이중모음(diphthong)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초기 영어 역사는 무성마찰음(f, θ, s, ʃ)이나 유음(r, l)을 포함한 특정 음운환경 앞에서 이중모음과 관련된 소리변화들이 넘쳐나고 있다. 즉, 고대영어 분화현상(OE Breaking), 앵글어 평지화 현상(Anglian Smoothing), 중세영어 분화현상(ME Breaking)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들 이중모음의 그 형성동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고 보다 개연성 있는 동인에 대해 재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고대영어와 중세영어의 이중모음

이중모음이란 연음관계에 의한 발달의 산물로 해석된다. 고대영어의 이중모음들은 약 11세기 고대영어 후기부터 중세영어 초기에 다시 단순모음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중세영어기에 또 다시 새로운 이중모음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이중모음들의 발달은 중세영어기의 특별한 음운 발달현상의 하나로 이는 대개 정상적 혹은 규칙적인 음성적 발달을 통해 결합된 새로운 모음과 자음의 병렬관계에서 대거 나타난 것이다.

2.1. 고대영어 이중모음

고대영어기에 장, 단 전설모음들, 즉 /i(:), e(:), æ(:)/는 강세 음절에서 후설(back) 자질을 가진 자음 h, r, l 앞에 올 때 처음에는 각각 /i(:)u/, /e(:)u/, /æ(:)u/로 되었다가 이중모음 동일고도제약(DHH: Diphthong Height Harmony)에 의해 이중모음의 두 번째 요소인 u가 첫 번째 요소와 같은 고도에 맞추어져

서 결국에는 /i(:)e/, /i(:)o/, /e(:)o/ /æ(:)a/가 되었다. 그러나 /i(:)e/는 i 혹은 y로 단순화되고 /i(:)o/는 /e(:)o/와 병합함으로 고대 말기에는 이중모음으로 /e(:)o/, /æ(:)a/만 남게 되었다. 이 현상은 약 9C 경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한 예로 /æ/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æa/가 문자 ea로 표기된 것은 세 개의 문자가 연속적으로 쓰일 수 없는 규칙에 의해 aea가 ea로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 (1) /-rC/: bearn ‘child’ (Go, OHG barn), earm ‘arm’(Go, OIc armr)
 /-IC/: eald ‘old’(Go, alpeis, OHG), eall ‘all’(Go alls, OIc allr)
 /-x/: seah ‘he saw’(OHG sah), eahta ‘eight’(Go ahtau, OHG auto)
 (Lass 1994 48-)

2.2. 중세영어 이중모음

Lass (1994) 등은 이러한 이중모음화 현상을 전이모음 삽입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중세영어 이중모음화 현상(분화현상)은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이 중세영어 무성 마찰음 ‘gh(t)’ 앞에서 각각 /Vi/와 /Vu/로 이중모음화되는 것을 말한다. 즉 /-VC/(단 C는 /h, ht/) 환경 내에서 [i] 혹은 [u]가 삽입되어 /ViC/ 혹은 /VuC/ 연속체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세영어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중모음화 현상(분화현상)은 수많은 새로운 이중모음들을 탄생시켰다.

- (2) OE [ox] > ME [ɔux]: OE dohter ‘daughter’ > ME dougter
 OE [eç] > ME [eiç]: OE fehtan ‘fight’ > feizten

3.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SPE)

이래의 표준이론 비판

SPE 이래의 표준이론은 Zwicky(1970; 1974), Jaeger(1984; 1986), McMahon(1990) 등에 의하여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즉, 무임승차(free ride)의 원리와 영어의 기저 모음 체계에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그것이다. 소위 무임승차의 원리에 의하면, 예컨대 모든 형태소들의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이 변

이형의 유무와 관계없이 표면형과 다른 추상적인 기저형을 가지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여 도출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원리는 음운 규칙들, 특히 모음 추이 규칙의 일반성을 확장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든 장모음과 이중모음을 일률적으로 한 단계 낮은 높이의 기저형에서 도출하게 한다. 이는 타당한 이유 없이 규칙을 남용하고, 표면형과 다른 기저형을 설정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영어의 기저 모음 체계에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도 역시 표면의 이중모음이 기저에서 이중모음으로 기록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표면 모음과 다른 기저형을 설정하여 규칙을 통하여 도출하도록 강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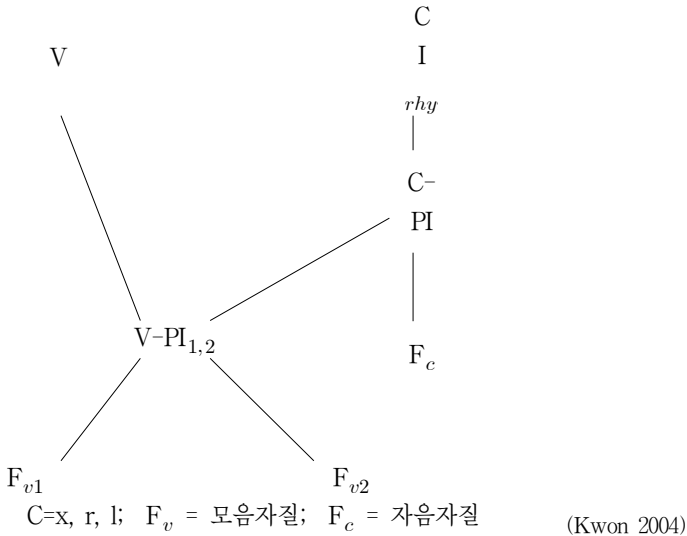
Zwicky 등의 이러한 비판은 모음교체를 보이지 않는 항목들에 대하여 표면형과 높이가 같은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을 어휘 목록에 그대로 기재한다는 것을 함축하며, 또한 영어의 기저 모음으로 장모음뿐 아니라 이중모음까지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rowman and Goldstein(1990)은 이를 결코 삽입은 일어나지 않으며 오직 원래의 성분만이 완전히 남아 있을 뿐이라는 전제 아래, 조음 제스처(articulatory gesture)의 시간적 재구성으로 분석한다 즉, 이에 Kwon(2004)에서 제시하는 그의 이중모음화의 분석모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나 많은 다른 게르만어들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중모음화나 단순모음화와 같은 변화들이나, 혹은 다른 모음변화들이 일어날 때면 항상 결정적으로 /x/, /h/, /r/, /l/이 포함된 어떤 특정 자음들이 관계된다. 즉 영어사 전반에 걸쳐 모음이 이들 자음들을 수반할 때는 이중모음화, 혹은 단순모음화, 혹은 다른 모음변화들이 순환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이에 최근의 음성 음운론적 연구들은 이러한 경향에 대한 원인을 이들이 모두 그들의 정확한 조음점들과는 무관하게 모음적 제스처와 자음적 제스처로 이루어진 복합적 분절음들이라는 것에 두고 있다(Clement(1991)의 복합 분절음에 대한 다층자질 구조).

다음은 그 한 예로 /l/을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Sproat and Fujimora(1993: 29)에 의하면 모든 /l/은 “자음의 설첨음적(apical) 제스처”(혀 끝이 앞을 향하는 움직임)와 “모음의 후설적(Dorsal) 제스처”를 다 갖고 있다. 따라서 ‘V+/x/, V+/r/, V+/l/’ 연속체는 각운(rhyme)안에서 두 개의 연속적인 모음적 제스처 즉 V의 모음적 제스처와 복합분절음 /x/, /r/, /l/의 자음적 제스처에 수반되는 또 하나의 모음적 제스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스처의 친화력 경향 때문에 종종 문제의 자음 내에서 시간적 재순서화(temporal reordering)가 일어나 자음 내에서 모음적 제스처가 자음적 제스처에 선행하게 된다. 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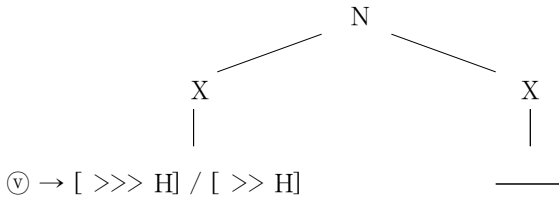
이들 두 개의 모음적 제스처는 서로 결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중모음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즉 핵모음과 각음 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도식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Kwon 2004).

(3) 이중모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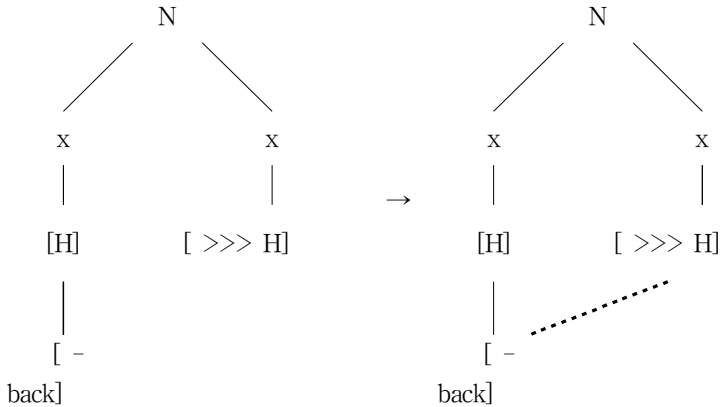


박천배(1994)는 이러한 표준이론 비판에 동의하여 u-삽입 규칙과 y-삽입 규칙들도 없애고, 그 규칙들이 설명하던 현상을 잠재 모라의 개념을 확장시킨 잠재 분절음과, 어휘 음운론의 틀 내에서 엄밀순환조건에 의하여 제어되는, 잠재 분절음 활성화 규칙에 의하여 설명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의 이중모음화는 새로운 모라나 분절음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모라에 높이 자질의 값을[>>> H]로 명시하고 이미 전반부에 존재하는 [- back] 자질을 후반부의 모라에 연결시키는데 그친다고 가정한다. 미명세이론에 따르기 때문에 무표 자질인 [+ back]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이자질의 값만 삽입한다. [+ back]은 잉여규칙에 의하여 도입될 때까지 연결이나 삽입규칙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중모음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개의 하위 규칙으로 나눌 수 있다.

(4) 높이 자질 삽입



(5) [- back] 자질의 전파 (Spreading)



(박천배(1994))

(단, 여기서 x의 위 부분은 음절 핵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이는 부분으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6)에서 보듯이 영어의 이중모음화 현상은 고대영어의 장모음 뿐만 아니라 단모음에서도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 볼 때, 원래의 모라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경우일 것이다.

(6) 무성마찰음 앞에서의 중세영어의 분화

a. 장모음의 분화

OE(9th c.)		Early ME(11th c.)		ME(12th c.)		gloss
hēah	[æ:a]	hēh	[æ: > e: > e:]	heigh	[ei]	‘high’
þēoh	[e:o]	þeh		[e:] beigh	[ei]	‘thigh’
dāh	[a:]	dōh	[ɔ: > o:]	dough	[ou]	‘dough’
lāh	[a:]	lōh		[o:] lough	[ou]	‘low’
plōh	[ɔ:]	plōh		[o:] plough	[ou]	‘plough’

b. 단모음의 분화

OE(9th c.)		Early ME(11th c.)		ME(12th c.)		gloss
feahrt	[æa]	fahrt	[æ > a]	faught	[au]	‘he fought’
feohta(n)	[eo]	fehta		[e] faught	[ei]	‘to fight’
tahte	[a]	tahte		[a] taughte	[au]	‘he taught’
dohtor	[ɔ]	dohtor		[ɔ] doughter	[ou]	‘daughter’
troh	[ɔ]	troh		[ɔ] trough	[ou]	‘trough’

(Kwon 2004)

즉, 예를들어 feahrt - fahrt - faught 에서와 같이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저구조가 2개의 모라로 되어있으므로 그것이 단모음화 되었다가 다시 이중모음화할 때 잠재된 모라가 활성화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tahte - tahte - taughte와 같은 단모음의 경우, 이것은 기저구조가 처음부터 1개의 모라로 되어있으므로 그것이 이중모음화할 때 잠재된 모라가 없으므로, 활성화규칙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모음으로 나타나는 단순어에도 장모음의 기저를 설명할 것을 제안한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logic의 첫 음절에서 기저형이 장모음이라고 가정하면 logician에서 첫 음절의 표면형이 이중모음인 것을 쉽사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파생어에서뿐만 아니라 단순어에서도 장모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다. 즉, logic의 첫 음절에서 기저형이 장모음으로 어휘 목록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이 표면에서 단모음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저에 장모음과 동일한 기

저형을 가정해서는 안되고 원래의 장모음 어휘들과는 별도로 첫 순환계에서 이들을 단모음처럼 취급하지만 파생 환경에서는 장모음처럼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저의 첫 순환계에서는 읽을 수 없는 잠재적인 모라를 <파이>로 가정해 보자. 잠재 모라는 어형성과정에 도입되는 첫 순환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다가 다음 순환계에 이르러 특정한 접미사가 첨가되면 x로 활성화한다고 가정한다. 이 잠재적인 모라가 특정한 파생 환경에서 활성화하도록 바꿔 주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엄밀 순환 조건의 제한을 받는 순환 규칙이라고 가정하자. 잠재 모라가 일단 활성화된 후에는 보통의 다른 장모음과 동일하게 행동할 것이다. 즉, 적당한 때가 되면 모음 추이와 이중모음화의 규칙을 적용 받게 되고 올바른 표면형으로 유도될 것이다. 다음은 잠재 모라 활성화 규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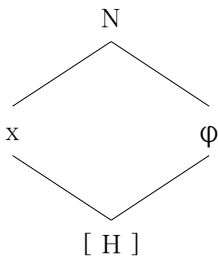
(7) 잠재 모라 활성화 규칙

$\phi \rightarrow x / \text{____} [\text{iou}], [\text{ian}], [\text{ity}], [\text{ule}], [\text{ic}], \text{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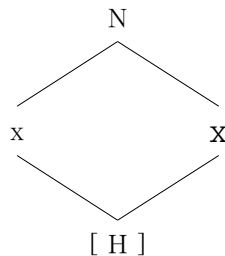
이 $\phi \rightarrow x$ 로의 규칙은, logician에서는 첫 음절의 잠재 모라가 활성화되어 장모음의 표현형을 가지지만 logic에서는 단모음의 표현형을 보이는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엄밀 순환 조건의 적용을 받아 단순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algebra, vary, cherub, sulphur 등에서도 마지막 음절의 잠재 모라들이 활성화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 잠재 모라의 활성화

(a) 기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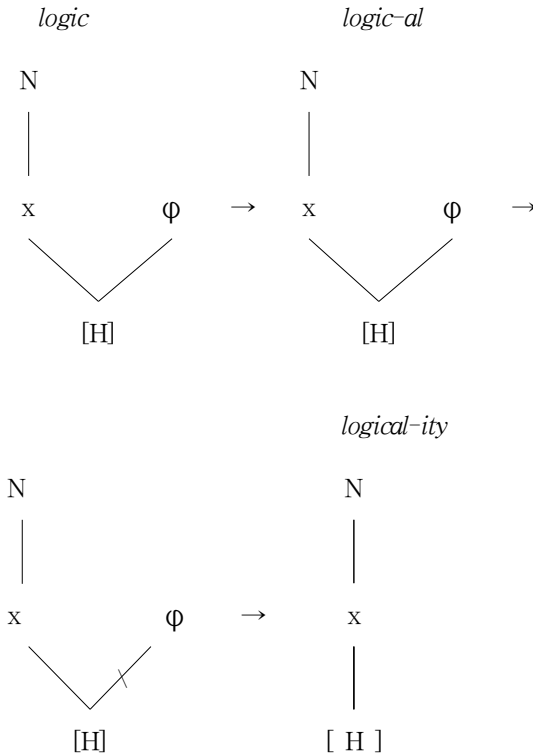
(b) ϕ - 활성화의 결과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는 비활성 잠재 모라 삭제 규칙으로서 활성화되지 않은 잠재 모라는 다음 순환계로 넘어가기 전에 삭제됨으로써 그 다음에 활성화 접미사가 첨가되어도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logical* - *logicality*를 들 수 있는데, *logician*과는 달리 *logicality*에서 활성화하지 못한 잠재 모라는 *-ity*라는 활성화 접미사가 첨가되어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단모음으로 남아 있게 된다.

(9) 비활성 잠재 모라 삭제 규칙

(a) 첫 순환계 (b) 다음 순환계 (c) 비활성 모라 삭제 (d) 그 다음 순환계



잠재 모라를 이용하여 단모음과 장모음의 교체 쌍을 실제의 예를 들어서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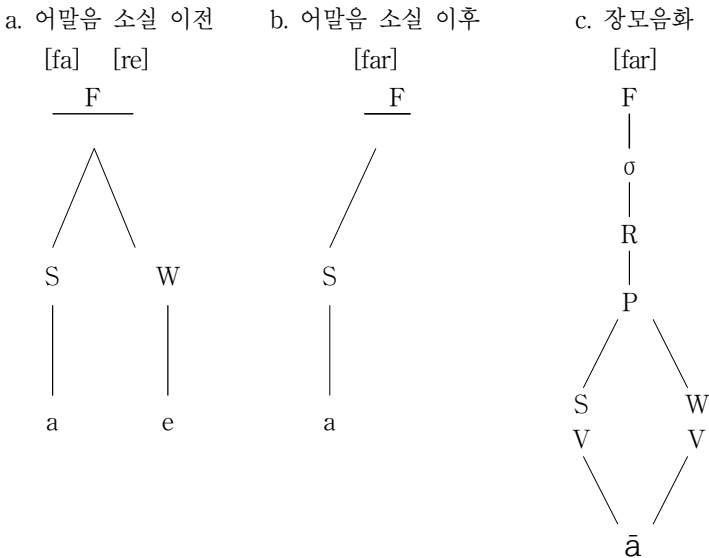
명하여보자. logic ~ logician, algebra ~ algebraic, vary ~ variety, cherub ~ cherubic, sulphur ~ sulphuric 등의 모음 교체 쌍은 잠재 모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단모음과 장모음의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운율음운론적(Prosody) 접근

중세영어의 열린음절장모음화 현상(Middle English Open Syllable Lengthening : MEOSL)은 2음절어의 강세를 지닌 단모음이 개방음절에서 장음화된다는 것이 MEOSL에 대한 전통적 설명이다(Brunner 1970, Jordan 1974, Mossé 1952).

다음 (10)에서는 초기영어의 음율단위로서 2모라 강약격(bimoraic trochee)을 제시하면서 MEOSL은 비강세 모음이 약화되고 그로 인한 모라의 소실로 그 형태가 훼손된 음보를 복구하기 위해 일어난 현상임을 보여준다.

(10) MEOSL (Minkova 1985)



Yoo-Kang Kim (2000)

(10a)에서와 같이 음보(foot)의 오른쪽의 약강세를 갖는 분지는 애매모음(schwa)의 소실과 함께 그 구조가 사라진다. 결과적으로 (10b)의 유표적인 단일 음절의 음보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10c)에서처럼 꼭대기마디가 어떤 조정의 영향을 받음으로 그 마디가 갖고 있는 모음이 길어짐으로 그것을 분지로 만든다. 즉 Minkova(1985: 173)는 열린음절에서의 장음화를 보다 바람직한 음보구조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운율적으로(prosodically) 동기화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운율음운론과 모라음운론 간의 결정적 차이점은 전자는 내재적으로 최소한 이원적이라는 것으로, 후자는 그러한 제약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모라음운론은 운율음운론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영어의 기본 음보(foot)는 강약격 음보이다. Hammond(1997)에 따르면, 어중음탈락은 모든 음절이 음보화(footing)되어야 한다는 제약과 관련이 있으며 음보화하지 않은 음절에서만 일어난다. 모든 음절은 음보화해야 한다는 제약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pa[ráde] \rightarrow [práde]$.)

모라가 좌초되면 그것은 규칙에 의해 직접 선행하는 모음이 확산되어 채워진다. 다음의 라틴어 예에 대한 모라이론적 해석은 궁극적으로 X-bar이론과 같을 것이다. 즉 (11)에서 /s/는 분절음층에서만 탈락되고, 만약 모라가 좌초되면 그것은 즉시 바로 앞에 선행하는 모음으로부터 채워진다.

(11) 보상적 장음화

$\mu \mu^1$ 여기서 μ^1 는 분절음적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σ 음절

σ		σ		σ	
σ		σ		σ	
μ	μ	μ	μ	μ	μ
	$\rightarrow$		$\rightarrow$		
μ	μ	μ	μ	μ	μ
k	a	s	k	a	n
n	u	s	u	s	n

[
kanus
]

본 논문에서는 장음화에 대한 운율 음운론적 해석은 매우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간주한다. 운율적 현상들은 단순한 언어수행(performance)의 문제가 아닌 언어능력(competence)의 문제다. 그 일례로 여러가지 운율적 요소(모라-음절-음보-음운론적 낱말-접어군-음운론적 구-억양구-음운론적 문장) 중 억양의 예를 보자.

(12) This is [NP the cat that caught[NP the rat that stole [NP the cheese]]]

(John(1993))

이에 SPE는 말한다:

명백히 말의 억양구조는 표면구조에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요 절점(major break)은 cat과 rat 뒤이다; 즉, 문장은 세 부분의 구조 즉, this is the cat-that caught the rat- that stole the cheese로 말해진다(SPE, 372).

운율의 문제는 평면적인 표면구조와는 다르다. 문법 즉 언어능력의 문제로 모호한 수행적 요소가 아니다. 이는 바로 운율은 기저(underlying)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중모음화의 동인을 보다 바람직한 운율을 위한 것으로 보고 박천배(1994) 등의 모라적 접근법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잠재모라라는 임의적 설정이 아닌 언어능력(competence)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운율상의 동인을 주장한다. 또한, 운율적 동인에 대입되는 값은 즉, 본 논문에서는 Zwicky 등의 표준이론 비판에 동의하고, Browman and Goldstein(1990)의 결코 삽입은 일어나지 않으며 오직 원래의 성분만이 완전히 남아 있을 뿐이라는 전제 아래, 조음 제스처(articulatory gesture)의 시간적 재구성으로의 분석을 수용한다.

5. 결론

영어의 역사상 이중모음의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 단순모음화 및, 병합과 분화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의 동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표준문법에 의거하여, Lass (1994) 등은 이러한 이중모음화 현상을 전이모음 삽입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중세영어 이중모음화 현상(분화현상)은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이 중세영어 무성 마찰음 ‘gh(t)’ 앞에서 각

각 /Vi/와 /Vu/로 이중모음화되는 것을 말한다.

SPE 이래의 표준이론은 Zwicky(1970; 1974), Jaeger(1984; 1986), McMahon(1990) 등에 의하여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무임승차(free ride)의 원리와 영어의 기저 모음 체계에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그것이다.

Browman and Goldstein(1990)의 결코 삽입은 일어나지 않으며 오직 원래의 성분만이 완전히 남아 있을 뿐이라는 전제 아래, 조음 제스처(articulatory gesture)의 시간적 재구성으로 분석한다.

박천배(1994)는 표준이론 비판에 동의하여 잠재 모라의 개념을 확장시킨 잠재 분절음과, 어휘 음운론의 틀 내에서 엄밀순환조건에 의하여 제어되는, 잠재 분절음 활성화 규칙에 의하여 설명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inkova 1985), Yoo-Kang Kim (2000), (김경아 (1997)), (John(1993)) 등의 열린음절장모음화의 동인을 운율을 위한 것임을 주장한 것에 유추하여, 이중모음화의 동인을 운율을 위한 것으로 보고, 박천배(1994) 등의 모라적 접근법에 부분적으로 동의였다. 그러나 잠재모라라는 임의적 설정이 아닌 언어능력(competence)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운율상의 동인을 주장하고, 그 동인에 대한 대입값은 Browman and Goldstein(1990)의 조음 제스처(articulatory gesture)의 시간적 재구성으로의 분석을 접목하였다.

Work Cited

- 김경아 1997. 중세영어 열린음절에서의 모음 장문화 현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숙 1993. 중세영어 열린음절에서의 모음 장음화. 영어영문학, Vol, 39 No.1.
- 김명숙 2001 영어의 음 변화. 도서출판 하우.
- 박천배 1994 영어모음 추이와 영어 모음체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만수 2002. 영어모음 변화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연구, 제 25호.
- Bruner, K. 1970. An Outline of Middle English Grammar. Translated by G. K. W. Johnston. Oxford: Basic Blackwell.
- Clement, N. 1991. Place of Articulation in Consonants and Vowels. A Unified Theory. In Working Papers of the Cornell Phonetics

- Laboratory, Vol. 5. Ithaca: Cornell University.
- Kim, Yoo-Kang 2000, The History of English 10, 253-278.
- Jaeger, Jeri J. 1984. Assessing the Psychological Status of the Vowel Shift Rule.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13, 13-36.
- Jaeger, Jeri J. 1986. On the Acquisition of Abstract Representations for English Vowels. *Phonology* 3, 71-97.
- John T. Jensen 1993. *English Phon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Jones, C. 1989. *A History of English Phonology*. London and New York.
- Jordan, Richard. 1974. *Handbook of Middle English Grammar: Phonology*. Translated and revised by Eugene Joseph Crook. The Hague: Mouton. London and New York.
- Kwon, Young-Kook 2004. *Vowel Phonology of Old and Middle English: An Optimality-Theoretic Account*.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McMahon, April M. S. 1990. Vowel Shift, Free Rides and Strict Cyclicity. *Lingua* 80, 197-225.
- Minkova, D. 1982. The Environment for Middle English Open Syllable Lengthening. *Florida Linguistica Historica* 3. 29-58.
- Mossé, F. 1952. *A Handbook of Middle English*. Baltimore,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proat R. and O. Fujimora. 1993. Allophonic Variation in English /1/ and its Implications for Phonetic Implementatio. *Journal of Phonetics* 21. pp.291-311.

Abstract

The Study on the Motivation of English Diphthongization

Ju, Hyejung

Historically English diphthongs have experienced so many changes. The motivation of English diphthongization is always of our concern.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more desirable motivation of English diphthongization.

Lass (1994) explains the breaking in the viewpoint of inserting transitional vowel via diphthong height harmony. Browman and Goldstein(1990) analyzes it temporal reconstruction of articulatory gesture of segments. They say that there can be no insertion and there can be only and completely the original one.

Park(1994) suggests potential mora with the concepts of activation and non-activation.

This paper accepts prosodic phonology and Browman and Goldstein(1990)'s temporal reconstruction of articulatory gesture to gain more desirable explanation for the motivation of English diphthongization. (Pusan National Univrsity)

Key Words

English diphthongization, desirable motivation, inserting, transitional vowel, temporal reconstruction, articulatory gesture, potential mora, prosodic

텍스트 속에서의 라캉: 제임스 조이스의 「애리비」를 중심으로

고 현 주

I. 들어가며

Freud (프로이트)가 그의 역저 『꿈의 해석 Die Traumdeutung』을 출판하여 새 시대의 사상적 혁명을 예고했던 1900년보다 한 해 후에 라캉J. Lacan이 태어났다. 이렇게 라캉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81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프로이트가 개척한 정신분석학을 정통으로 계승·발전 시켰고, 20세기 지성사의 한복판에 정신분석학을 정박시킨 정신분석학의 제2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캉은 구조주의 및 후기 구조주의 관점에서 프로이트를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는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와 야콥슨 (Roman Jakobson)등의 구조주의적 언어의 관점에서 프로이트를 읽었다. 그 결과 그는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The unconscious is structured like a language)(Ecrits, 234)고 선언하며 무의식의 주체가 결국 언어적 구조의 산물임을 밝히게 된다. 라캉뿐만 아니라 많은 정신분석 비평가들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들 가운데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문학 텍스트와 연관 지으며 텍스트성 무의식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홀란드(Norman N. Holland)이다. 홀란드는 매슈 아널드(Matthew Arnold)의 『도우버 해변』을 읽고 표층적 언어의 구조 속에 드러나 있으면서 동시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의미의 엇갈림에 주목한다. 이것은 의식의 너머에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정신분석비평가들의 기본적 태도이고, 정신분석학이 ‘의식의 해석학’이라는 명제에 따라 해석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의미를 일단 의심해 보는 분석가들의 임상적 태도와 일치한다. 홀란드는 이 시를 분석하면서 시인 아널드는 개인의 무의식은 문제 삼지 않았다. 그가 관심한 것은 뉴 크리티시즘의 텍스트 이론과 같이 텍스트 속에 구현된 텍스트의 무의식이었고, 원초적 장면과

관련된 무의식적 판타지가 어떤 텍스트 작업을 거쳐 지적·의식적 의미로 변형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억압된 것은 되돌아온다’(return of the repressed)는 정신 기제에 따라 억압된 것이 되돌아 온 정신계의 보편적 법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텍스트의 무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 분석되어질 텍스트는 조이스의 『더블린사람들』(Dubliners)에 편집되어 있는 단편 「애러비」(“Araby”)의 주인공 ‘소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텍스트를 통해 본론 IV에서 프로이트와 라캉이 말하고 있는 텍스트의 구조에 드러난 텍스트성 무의식을 논할 것이다.

또한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무의식은 탈문자현상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집중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의식의 틈새로 끼어드는 다른 생각 즉, ‘떠오르는’ 또는 ‘끼어드는’ 생각이나 관념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오르는 생각으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이며 라캉이 말하는 대타자담론이다. 이는 조이스(James Joyce)의 『애러비』(Araby)를 분석할 때 중심이 되는 것으로 위내용을 바탕으로 엮혀지는 텍스트는 독자나 비평가에게 텍스트성 무의식 그리고 언어의 양가성으로 인해 화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읽힐 수 있는 대타자 담론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며 또한 표층구조와 심층구조로 이뤄진 텍스트의 이원론적 구조를 밝혀줄 것이다.

II. 자아담론과 대타자 담론

프로이트가 말하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은 라캉에 이르러 자아담론(Ego discourse)과 대타자 담론(Other discourse)으로 불린다.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과 함께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The unconscious is discourse of the Other)(Ecrits, 312)이다”라는 정의도 내렸다. 라캉은 에크리를 통해 “프로이트에 의해서 ‘제 1과정’ - 그 속에서 무의식의 법칙성을 띠게 되는데 -리라고 명명된 메커니즘은 이 학파(소쉬르와 야콥슨의 구조주의 언어 학파)가 언어의 효과 중 가장 근본적인 측면들 즉 은유와 환유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 기능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Ecrits, 298)고 말하며 프로이트에 의해 ‘압축’과 ‘전치’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설명된 제 1과정이 은유(metaphor)와 환유 (metonymy)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라캉은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증상(symptom), 꿈(dream), 언어의 실착(slip

of tongue) 그리고 농담(joke)에는 동질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르메르(Anika Lemaire)는 “압축(condensation)과 전치(displacement)라는 동일한 구조적 법칙이 이 네 현상에 작동한다. 그것이 무의식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언어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법칙과 동일하다”(191-92)라고 말하면서 압축과 전치가 언어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무의식의 언어성에 대해 라캉은 “생략법과 용어법, 도치법이나 회귀법, 반복법, 병치법-이런 것들은 통사적 전치의 예들이다; 은유, 비유(알레고리), 환유 그리고 제유- 이런 것들은 의미론적 압축의 예들로서 프로이트는 그 속에서 꿈의 담론을 지배하는 -과시적이거나 시위적인, 은폐적이거나, 설득적인, 보복적이거나 유혹적인 -주체의 의도를 읽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Ecrits, 58)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의 무의식의 언어성을 핑크(Bruce Fink, 1995)는 자아담론과 대타자 담론을 통해 설명한다. 그 예로 핑크는 대타자 담론의 부정성을 영어의 준부정어 ‘but’(그러나, 단지, ~일 뿐)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 피 분석가가 “I cannot deny but that it is a difficult thing”(나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면 분석가는 이 문장을 해석할 때 ‘but’이란 준 부정어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cannot’과 ‘but’이 어울려 이중부정이 되고 곧 그것은 긍정적 의미를 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하여 문장 전체를 감도는 부정의 의미를 완전히 배제시킬 순 없는데 바로 ‘but’이라는 단어가 하나 끼어들으로써 이 문장을 홀으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완전히 긍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부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도 아닌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but’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장에 파고 들어가 하나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 버리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식의 틈새를 타 의식의 바깥으로 고개를 내민 대타자 담론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무의식은 종종 완전히 동음이의어를 통해 나타난다.”(Ecrits, 16)고 밝히며 무의식이 언어의 주된 기제들 즉, 압축과 전치 그리고 은유와 환유에 의해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방인』(*The Stranger*)에서 주인공 뫼르소의 (무)의식을 자극하던 바다 la mer/어머니는 la mère의 대극적 구도와 마찬가지로 음성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 연상 작용을 둔 결과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동일성까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가 헤밍웨이(Ernest Miller Hemingway)의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동일한 기표/arms/는 의식적 기의 ‘무기’와 무의식적 기의 ‘사랑의 팔’로 나뉘어 이것이 대타자 담론을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라캉이 말하는 단어의 양가적 의미

를 통해 드러나는 무의식 담론이며 대타자 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Rat man(쥐 인간)의 강박적 조깅에서도 마찬가지로 ‘Richard 죽이기’와 ‘살빼기’ 사이에 존재하는 이원론적 의미의 구도를 읽을 수 있다. 무언가 위태롭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론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둘이 만난 것이다. 이런 표층 구조 밑에 심층 구조가 존재하며 그것은 자유 연상과 같은 정신 분석적 장치와 해석 과정을 통해 의미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프로이트에게서 출발한 정신분석학의 기본 전제이며 믿음이다. 핑크는 “대략 평행선을 이루는 두 담론이 존재하며 그 중 하나가 다른 담론을 방해하거나 그것에 끼어든다.”(Bruce Fink, 1995)고 말하며 의식과 무의식을 대변하는 자아담론과 대타자담론을 설명한다.

핑크가 말하고 있는 자아 담론이란 분석현장에서 피분석가가 하는 이야기에 해당하면 문학작품을 분석할 때 눈에 보여 지는 표층구조에 드러난 텍스트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타자 담론이란 피분석가가 하는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변형이나 위장을 하고 숨어있는 무의식이며 또한 문학작품에서 표층구조 아래 자신을 숨기고 있는 심층구조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말하기=문학의 표층구조를 이루는 text =피분석가의 이야기= 언어학에서 말하는 발화내용(enonce)= 의식담론= 자아담론> 이란 등식이 성립되는 반면, <무의식적 사고 = 문학의 심층구조를 이루는 sub - text =분석가의 분석결과 밝혀낸 피분석가의 말 속에 존재하는 무의식적 판타지 = 언어학에서 말하는 발화행위(enonciation)= 무의식담론=대타자 담론> 이란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자아 담론과 대타자 담론은 시간적으로 따져 볼 때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결코 그 둘은 동인한 것이 아닌 상호성을 지닌 독립된 개체인 것이다. 라캉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언명과 더불어 “기표는 다른 기표를 ‘위해서’ 주체를 재현 한다”는 중요한 언명을 남겨놓고 있다. 기표는 기의로부터 자유롭기에 새로운 의미를 끝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의미로 고정시키려는 노력은 곧 답이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라캉의 “시니피에가 시니피앙 밑으로 미끄러진다” (sliding of the signified under the signifier)라는 말은 위 내용을 한 마디로 정의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예로 라캉이 포의 텍스트를 분석한 「도난당한 편지에 관한 세미나」에서 그가 의미하는 시니피앙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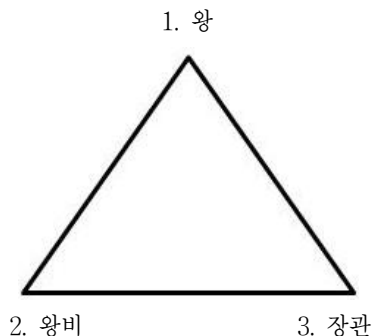
어떤 내용을 가진 편지인지는 모르나 뭔가 그 내용을 안 순간 큰 일이 벌어

질 것 같은 그런 은밀한 편지를 왕비가 읽으려 하는 순간 왕이 들어와 왕비는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탁자 위에 올려놓는 장면으로 「도난당한 편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은 왕의 시선은 끝지 못하나 D장관이 들어오고 그의 재빠른 눈은 발신인의 필체와 여왕의 당황한 모습까지 간파한다. D장관은 몇 가지 사무적인 보고를 한 뒤 문제의 편지와 유사한 한 장의 편지를 따로 써서 읽어보는 척 하다가 원래의 편지 옆에 나란히 놓아둔다. 그리고는 그 방을 떠나기 직전 두 편지를 슬쩍 바꿔치기 한다. 왕비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녀는 왕과 함께 있어 장관을 제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지를 도둑맞게 된다. 왕비는 경찰에게 잃어버린 편지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지만 경찰은 장관의 집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발견하지 못하자 경찰국장은 뛰어난 분석력의 소유자인 탐정가 뒤펽에게 엄청난 보상금과 함께 편지의 수색을 부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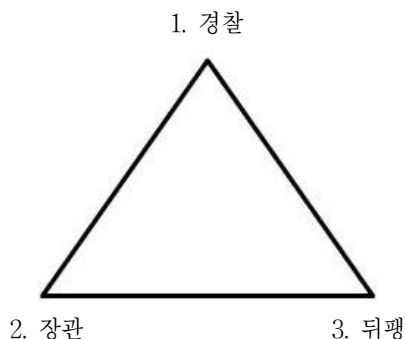
두 번째 장면은 뒤펽이 장관의 처소에서 다시 그 편지를 훔쳐내는 것으로 원장면의 반복이다. 뒤펽은 장관의 집을 방문해 편지가 있을 만한 곳을 살피고 추측대로 의미없는 편지마냥 벽난로 위 편지꽂이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장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뒤펽은 장관의 시선이 자신을 주시하지 않는 순간 편지를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모조 편지에는 장관이 뒤펽의 필적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몇 마디의 글을 남긴다.

이 이야기에서 라캉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도난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일어나는 반복은 단순히 유사한 도난의 재발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난 모든 구조적 상황을 바꿔 놓는다. 이는 편지의 이동에 따라 각각의 인물들이 차지하는 구조 내에서의 위치가 서로간의 관계에 의해 바뀌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위 내용을 라캉은 두 장면으로 축약시켜 그들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장면은 왕비가 편지가 잃어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왕과 왕비 그리고 장 관계이다.



두 번째 장면은 장관의 집에 있던 경찰과 장관 그리고 뒤펅의 모습으로 첫 번째 장면을 반복하고 있는 듯하다.



위의 도형은 펠먼(Shoshana Felman)의 삼각형 도식화를 참고한 것이며 라캉이 지정한 반복의 구조는 왕, 왕비, 장관의 삼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른바 〈원초적 장면〉과 경찰국장, 장관, 뒤펅 등 역시 삼각관계를 이루는 〈반복적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first is a glance that sees nothing: the King and the Police.
The second, a glance which sees that the first sees nothing and eludes itself as to the secrecy of what it hides : the Queen, then the Minister. The third sees that the first two glances leave what should

be hidden exposed to whomever would seize it ; the Minister, and finally Dupin.

여기에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유형의 시선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가 왕과 경찰국장의 경우로서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둘째는, 왕과 경찰국장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있으나, 자신이 감추고 있는 것의 비밀성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 1장면의 왕비와 제 2장면의 장관이 속한다. 그리고 셋째는, 앞의 두 부류가 감춰져야 할 것을 누구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볼 수 있도록 노출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눈길이다. 여기에는 제 1장면의 장관, 제 2장면의 뒤펅이 속한다(Lacan,1972).

이처럼 기표 역할을 하고 있는 편지는 누구의 손에 있건 간에 현존하면서도 부재하는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 장관의 집을 수색해 찾아낼 수 없었던 편지가 뒤펅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 편지가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마치 무의식적 욕망의 기표처럼 그것의 숨겨진 내용은 결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체의 위치와 역할을 그 위치에 따라 세 부류로 결정하는 편지의 정체는 무엇일까? 라캉은 편지가 내용을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시니피앙에 애한 은유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이 짧은 단편은 주체가 시니피앙의 세계, 즉 상징질서 속에서 구성되며 그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받는다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편지’는 기표일 뿐 그 기표가 자리를 바꿔감에 따라 주어지는 기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의를 하나에 고정시킬 수 없으며 기표 내에 숨겨진 기의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Ⅲ. 무의식과 언어

프로이트는 “억압 된 모든 것은 무의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억압의 본질은 본능을 표상하는 관념이 의식으로 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메타심리학적 논문인 The Unconscious를 시작한다(Ricoeur ,1970). 프로이트는「무의식」에세이에서 지형학적 이론, 역동적 이론 그리고 경제학적 이론은 내세우며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존재하나 다른 곳에 위치하며 그것들은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들 각자가 고유의 특성과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서로 독립된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과 연결되는데, 지형학 이론의 이와 같은 관점은 의식과는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무의식을 설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지형학적 이론은 무의식의 이질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이론이기에 먼저 논하도록 하겠다.

지형학적(topographical)이론은 정신계라는 하나의 공간적 메타포를 세 개의 장소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그것의 바로 각자 정신계의 서로 다른 장소를 점하고 각기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지닌 의식,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이다. 지형학적 관점에서 무의식이란 정신계의 한 조직(system)을 형성하고 있는 정신 현상으로 그것은 의식계로부터 억압된 것들로 그 속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 전의식이란 현재로선 의식의 내용이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특별한 저항 없이”(Freud, 1953-74) 의식의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정신 현상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의식의 내용에 편입될 수 있는 전의식은 의식 쪽에 가까운 것으로 편을 나누자면 의식과 전의식이 같이 서게 되며 이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무의식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프로이트는 지형학적 이론을 통해 무의식은 의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과 의식의 ‘타자’로서 무의식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대해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정신 현상을 본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역동(dynamic)이론으로 이는 정신현상 자체를 어떤 대치하는 힘들의 갈등 및 결합의 결과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무의식이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으로 대치하는 두 개의 정신 집단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벌인 후 남게 되는 결과”(Freud, Sigmund., 1953-74)라고 프로이트는 말한다. 즉, 꿈이나 언어의 실착과 같은 정신 현상들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대치하는 두 정신 집단이 투쟁을 벌이다 서로가 타협한 후 생긴 일종의 타협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 생각이나 욕망이 의식적 검열 작용에 걸려 그 원래의 모습이 적당히 변형되어 의식계로 떠오른 것인데 이것은 올라오려는 힘과 누르려는 힘의 타협물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뒷받침해 줄 이론으로 경제적 이론이 있다. 경제(economic)이론은 위에서 설명한 바 있는 지형 이론 그리고 이 역동 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유분방한 에너지가 존재하며 전의식에는 묶인 에너지가 그리고 의식에서 고도로 충전된 에너지가 있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지형이론과 더불어 대치

하는 힘들이 본능의 문제와 관계해 본능적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역동이론은 모든 정신 과정을 본능적 에너지의 순환과 분포, 증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 본 경제 이론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지형학 이론, 역동 이론 그리고 경제 이론은 프로이트가 무의식에 접근 하고자 내놓은 이론으로 무의식이란 것이 의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의식과 무의식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예가 꿈이다. 꿈은 깨어 있는 낮 시간에 이뤄진 정신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는 잠자는 동안 어렸을 적부터 존재했지만 억압되어져 있던 어떤 무의식적 부분과 연결되게 된다. 낮에 경험한 사건과 어린 시절 억눌려졌던 그 기억이 만나면서 전자는 무의식의 도움을 얻게 되고 이어 낮에 경험한 사건과 어린 시절 억눌려졌던 그 기억이 만나면서 전자는 무의식의 도움을 얻게 되고 이어 낮에 한 정신활동이 다시 꿈속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결과 그 생각들은 전치와 압축을 통해 변형되고 자신의 모습을 위장 시킨 뒤 함께 활동하며 그 과정에 있던 무의식은 의식의 검열 작용을 통과하고 의식계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 기억하는 것으로 바로, 보고된 꿈이며 현실적 꿈에 해당한다.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보고된 꿈의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틈새를 발견하고 그 곳에 파고들어가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꿈이란 어린 시절의 장면이 최근의 경험이 이전되어 변형된 한 대치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어린 시절의 장면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고 꿈으로서 돌아오는 데 만족해야 한다”(Freud, 1953-74)고 프로이트는 정의 내린다. 즉, 무의식적 사고는 자의적으로 자기표현을 하지 못해 꿈이라는 이미지를 빌리고 그 자신을 표상화 시키는데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자신의 무의식을 재현시킨다.

프로이트의 “취 인간” 분석이 타협을 통해 어떻게 무의식이 기호적으로 표현되는지 아래의 예를 한 번 살펴해보도록 하자.

One day when he was away on his summer holidays the idea occurred suddenly to him that he was too fat (German ‘dick’) and that he must make himself slimmer. So he began getting up from table before pudding came round and tearing along the road without a hat in the blazing heat of an August sun. Then he would dash up a mountain at the double, till, dripping with perspiration, he was forced to come to a stop.... our patient could think of no explanation

of this senseless, obsessional, behavior until it suddenly occurred to him that at that time his lady also been stopping at the same resort ;but she had been in the company of an English cousin, who was very attentive to her and of whom the patient had been very jealous. This cousin's name was Richard, and, according to the usual practice in England, he was known as Dick. our patient, then, had wanted to kill this Dick

과정은 무의식적 꿈의 사고가 꿈의 작업을 거쳐 ‘현시적 꿈’으로 변형되는 과정과 다를 바 없고, ‘꺾 인간’의 무의식적 살해의지가 검열과정을 겪으면서 강박적인 살빼기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나, 억압된 ‘Signorelli’가 표층구조에 나타날 때는 ‘Botticelli’나 ‘Boittraffio’로 변형되는 과정이 같다. 이렇게 살펴 본 Freud의 예에서 무의식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언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포착하여 Freud 이론의 재평가를 꾀한 사람이 Jacques Lacan이다.

IV. 제임스 조이스 『애러비』의 텍스트성 무의식

영국의 식민지인 아일랜드는 1922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의 아일랜드의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가 두드러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라캉의 이론을 통해 『더블린 사람들』을 분석해 볼 때 이들이 어떻게 자아를 잃어버리고 “타자의 욕망”에 얽매어 “동물처럼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타자의 욕망에 묶여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 상상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라캉의 유명한 언명 중에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는 라캉의 언명은 타자로부터 주체의 분리 과정에 접근 될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신에 대한 타자의 욕망을 욕망 한다’로 번역될 수 있어 타자로부터 주체에게 부하되는 욕망이 무게에 중심이 실리고 있으며 분리 과정의 주체가 타자의 욕망에서 벗어나기를 뜻한다면 분리 과정 후에 이 타자의 욕망이 변형된 형태로 실재계와의 관련 속에 다시 태어나는 다른 이름이 ‘오브제’ a이다. 그러므로 분리 과정은 무엇보다도 타자의 욕망을 오브제 a로서 드러내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이 이론을 조이스의 『Araby』(애러비)에 드러난 소년의 욕망을 자아담론과 대타자 담론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애러비』에 그려진 마비되어 있는 더블린 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

NORTH RICHMOND STREET, being blind, was a quiet street except at the hour when the Christian Brothers's School set the boys free. An uninhabited house of two stories stood at the blind end, detached from its neighbours in a square ground. The other house of the street, conscious of decent lives within them gazed at one another with brown imperturbable faces.

“막힌 노스 리치먼드 스트리트는 크리스천 브라더스 스쿨이 수업을 파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주 조용한 거리다. 아무도 살지 않는 이층집은 사각으로 된 지역에 이웃과는 떨어진 막다른 길 끝에 있었다. 집안에 상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리의 다른 집들은 갈색의 동요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 응시하고 있다. 조용한 거리,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집, 갈색의 동요하지 않는 모습 등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조이스는 첫 장을 시작“NORTH RICHMOND STREET”(막다른 골목)이라고 시작하고 있다. 조이스가 첫 부분부터 이렇게 두드러지게 적고 있는 것은 더블린에서의 어떠한 탐색도 막다른 길에 이를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마지막 소년의 태도에서도 어떠한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텍스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소년의 집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The former tenant of our house, a priest, had died inn the back drawing- room. Air, musty from having been log enclosed, hung in all the rooms, and waste room behind the kitchen was littered with old useless papers.

우리들 집의 전번 소유자인 사제는 뒤의 객실에서 죽었다. 오래 동안 폐쇄되어 있어서 이끼 냄새가 온 방안에 차 있고, 부엌 뒤에 있는 쓰레기 방은 오래된 쓸모없는 종이들이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었다

이렇게『Araby』(애러비)에 나오는 소년은 타락과 마비의 중심으로 보이는 “막

다른 골목”에 위치한 “곰팡이 냄새와 누렇게 퇴색한 책들”이 흩어져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 후에 이야기는 시작되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주인공 소년, 그리고 망간 누나가 등장한다.

Or if Mangan's sister came out on the doorstep to call her brother into his tea, we watched her from our shadow peer up and down the street. We waited to see whether she would remain or go in and, if she remained, we left our shadow and walked up to Mangan's steps resignedly. She was waiting for us, her figure defined by the light from the half-opened door. Her brother always teased her before he obeyed, and I stood by the railings looking at her. Her dress swung as she moved her body, and the soft rope of her hair tossed from side to side.

혹은 망간의 누나가 남동생에게 다과를 먹으라고 부르러 문간으로 나온다면 그녀가 거리 아랫니를 기웃거리며 동생을 찾는 것을 우리는 숨은 자리에서 지켜보았다. 우리는 가만히 기대고 서서 그녀가 그대로 있나 혹은 안으로 들어가고 없나를 보고 있다가 만일 그대로 있다면 숨은 곳에서 나와 할 수 없이 망간네 층계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의 윤곽이 반쯤 열린 문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등지고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이후 소년의 마음에는 망간 누나의 영상이 늘 따라 다닌다. 토요일 저녁에는 숙모를 따라 시장을 가곤 했는데, 벽적거리는 시장의 온갖 소란과 부딪치는 사람들 틈에서도 망간 누나의 영상은 그의 머리를 떠난 적이 없다. 기도를 드릴 때도 반드시 그녀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며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멋진 어구들을 그녀의 이름에 붙이는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말에 더블린 외곽에서 동양의 이국적 풍물을 파는 자선 바자가 열리는데, 그 바자의 이름이 애리비다. 망간의 누나가 애리비에 언제 가느냐고 먼저 말을 걸어온다. 그녀는 그 바자에 꼭 가고 싶지만 그 주에 열리는 학교의 피정행사로 바자에 갈 수 없다고 한다. 소년은 그녀가 처음 말을 걸어온 데에 당황하여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하튼 자신이 가게 되면 뭔가를 사다주겠다고 겨우 말하였다. 그날 이후 소년은 주말을 기다리며 학교 수업 때나 밤에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머리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벗어나질 않는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라캉의 이론에 따르면, 타자의 욕망과 같은 환상적 대상을 쫓는 것은 타자의 욕망을 채우려는 노력이다. 육체적 욕망으로 촉발된 소년의 불안감은 바자에서 점원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극대화 되며 바자회에 갈 때는 자신을 “성배”를 지키는 기사로 생각하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며 이상적인 여인을 보호하는 성스러운 기사가 되고자 했으나 그녀에 대한 육체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애러비에 도착한 소년은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소년이 쫓아온 욕망 즉 오브제 a(결핍=욕망으로 보며 그 사이에 생기는 즉 욕망의 대상)는 허상이며 자신의 욕망이 아닌 타자의 욕망임을 깨닫는다. 소년이 느낀 분노는 자신의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애러비에 왔지만 자신의 의지한 것이 아닌 망간의 누나에 의해 오게 된 자신에게 분노를 느낀 것이다. 애러비는 소년이 욕망한 것이 아닌 망간의 누나가 욕망한 것이었고 소년은 망간의 누나에 대한 욕망에 포위되어 있었으며, 타자의 포로가 되어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박탈당한 것 때문에 분노를 느낀 것이다. 하지만 소년이 분노를 느끼기 이전은 분노를 표출할 수 없는 마비의 상태로 타자에 의해 소년(주체)을 이끌고 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조이스는 망간의 누나라는 자아담론아래 제국주의라는 하나의 큰 이데올로기 대타자 담론이 잠재해 있으며 소년이 허탈해야하며 분노를 느낀 그 자아담론 아래 대타자 담론은 아일랜드 전체의 상실감, 분노가 담겨져 있다. 즉 소년이 추구 하는 욕망은 자신이 추구 하는 욕망이 아닌 타자의 의지에 이끌려 온 욕망으로 가치 절하된 자신을 느낀다. 조이스는 소년을 아일랜드의 사람들과 같다고 보며 또는 작가 자신과 동일시해서 소년이 쫓은 망간누나(마비시키는 원인)의 욕망이 소년(아일랜드의 남자)을 스스로의 포로가 된 것으로 일깨워 줌으로써 타자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아일랜드의 남자들=소년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작품에서 소년의 삼촌은 소년이 애러비에 가야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늦게 나타나 소년을 초조해하게 만들었다.

더블린의 사람들은 즉, 아일랜드의 국민들은 자신의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망각된 시간 속에서 마비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모습은 조이스의 또 다른 작품인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주인공인 스티븐의 아버지에서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무능력한 가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현존의 삶에 안주한 채 망각 된 시간 속

에 살아가고 있는 염세주의 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이스는 타자의 욕망(망간의 누나)속에 벗어나 타자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시간에 머물 수 있게 하려 했으며 자신의 시간에서야 비로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조이스는 망간의 누나(제국주의)가 심어놓은 시간에 머물게 아니라 자신의 시간에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년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애러비를 향하기 이전의 표층적 텍스트에서는 소년과 망간의 누나에 대해 어린아이와 어머니간의 공생애적 관계로 볼 수 있으며 결핍과 갈등이 없는 오이디푸스 이전의 시기 즉 절대 행복의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말을 빌리면『남자들의 특수한 유형에 관하여』에서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천사’와 같은 이상적 어머니가 아니라 ‘타락한’ ‘부정한’어머니라는 환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소년은 망간의 누나에 대해서 ‘타락한’어머니로 인식하며 자신을 망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 타락한 어머니(망간의 누나= 사회를 마비시키는 원인)가 소년의 의지가 아닌 타자의 욕망으로 애러비에 오게 했으며 작계라면 소년의 의식을 마비시켰으며 크게는 아일랜드의 무능한 남성들을 사회전체를 마비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의 남성들을 꼭 소년의 눈을 통해 바라봐야만 했을까? 상상계 단계의 성숙하지 못한 아일랜드의 남성들을 소년과 동일시켰으며 상상계 단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지 못한 단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상상계에 속한 나르시시즘적 단계에서 자아의 죽음인 상징계로의 진입은 주체의 탄생으로 볼 수 있으며, 즉 소년의 알 수 없는 분노는 주체의 탄생(=주체분열)으로 볼 수 있으며 상징계의 진입으로 볼 수 있다. 상징계로의 진입은 작가가 소년(=아일랜드 남성)에게서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껴야 한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애러비에 가기 이전의 소년은 자연 상태(어머니와의 합일=누나와의 합일)이지만, 애러비에 도착한 소년은 문화의 상태(자신을 마비시키는 원인)로 운명적 교차로로 볼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즉 부정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극복하려는 역동적 메커니즘이 발생할 있는 공간이다. 본 논문에서는 애러비 라는 기표는 소년의 의식적 분노를 유발시키는 대타자의 목소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소년의 사랑 이야기, 그것을 쫓아온 소년의 분노 정도로 볼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조이스는 마비되어 버린 시간, 마비되어버린 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비판하면 작품을 통해 그들의 의식을 일깨우려 하고 있다.『애러비』에 가고자 한 것은 소년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

자의 욕망인 것으로 소녀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는 소녀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변용한 것이다. 그는 “애러비”라는 바자에 가서 그녀에게 선물을 사 주려고 한다. 그러나 이국적이고 환상적일 것이라고 꿈꾸었던 그곳은 실망스러운 보통의 바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의미 없는 농담이나 주고받은 “천박한” 가게 주인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 의미 없는 대화들을 들은 소년의 예민한 감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Gazing up into the darkness I saw myself as a creature driven and derided by vanity ; and my eyes burned with anguish and anger.

그 어둠 속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자니까 나 자신이 마치 허영에 몰리고 또 허영의 조롱을 받은 짐승만 같았다. 그리고 내 두 눈은 고뇌와 분노에 활활 타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 대해 품었던 모든 사랑과 낭만을 투사시켰던 “애러비”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그를 그 자신이 망간의 누나의 의해 움직이고 있는 허영의 조롱을 받은 짐승으로 인식하게 된다. 더블린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삶의 실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에게 “기꺼이 지배당하는” 상황을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를 지녔다. 조이스는 특히 아일랜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더블린 청년들 역시 마비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암담한 아일랜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작가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대영제국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식민지 아일랜드의 젊은 청년들이 지닌 또다른 제국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더블린 사람들이 중심의 현존을 믿은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마비된 삶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삶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조이스는 구조주의적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표현하고자 한다. 즉 조이스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대영 제국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식민지 아일랜드의 젊은 청년들이 지닌 또 다른 제국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애러비의 소년은 더블린의 소년들이 성모의 이미지를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망간의 누나를 숭배하고 있다. 역시나 숭배해야 할 의무감에 구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쾌락의 원칙에 Fort da game을 통해 바자회에서 영국말투를 쓰는 점원들이 하는 말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O, I never said such a thing!’

‘O, but you did!’

‘O, but I didn’t

‘Did’t she say that?’

‘Yes, I heard her.’

‘O, there’s a ...fib!’

“아이, 언제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아니, 그랬어!”

“아니, 안 그랬어요!”

“자네도 들었지?”

“그래, 나도 들었어”.

“아이....거짓말!”

위 논문에서 점원들이 반복적으로 ‘O’ 라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통해 프로이트의 『쾌락원칙을 넘어서』에 나오는 한 살 반 된 프로이트의 손자가 벌이는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상징적 지배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아이는 침대에서 실패가 부착된 끈을 던지면서 ‘오 - o-o-o-o’소리를 연발 했다.프로이트는 이 놀이에서 ‘o-o-o-o’를 독일어의 ‘포르트’(fort, 간, 사라진)로 해석함으로써 어머니의 사라짐과 나타남, 혹은 그녀의 부재를 존재화 하려는 상징적 의미를 읽었다.

프로이트의 ‘포르타 /다 fort /da’ 게임은 문제의 아이가 ‘본능적 만족을 포기하고’위대한 문화적 업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놀이의 상징성과 이분법적 음소 ‘o/a’의 차이다. 이렇게 상징적 언어를 통해 문화의 세계에 진입한 그 아이는 계속해서 본능의 세계는 점점 멀리하고 언어와 기호가 역어내는 의미 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조건 지워진다. 다시 말해서 그는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 문화인인 것이다. 헤겔의 표현을 빌리면, 문화는 자연의 ‘타살’위에 서 있다. 타살된 자연, 타살된 사물, 타살된 육체는 타살의 주역인 상징 질서와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을 형성한다. 이것이 주체의 분열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라캉의 경

우, 주체의 분열은 언어에 의해서, 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라캉의 주체는 언어에 의해서 분열되고 따라서 그 분열은 말하는 존재를 전제로 한다. 라캉의 주체는 말하는 주체이다. 이 말하는 주체가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주체의 분열적 구조는 바로 무의식과 생성과 맞물려 있다. “언어가 무의식의 조건이다. 무의식은 언어의 논리적 함축성이다. 사실상 언어 없이 무의식이 있을 수 없다”(Lemaire, 1997) 따라서 언어에 의한 주체의 분열은 무엇보다도 의식적 담론과 무의식적 담론, 자아 ego 담론과 대타자 the Other 담론으로의 분열이다.

그렇다면 그 놀이의 해석은 ‘사라짐과 돌아옴’이라는 완벽한 놀이였다. 그것은 그 아이의 위대한 문화적 업적, 즉 아무 저항 없이 그의 어머니를 가도록 허용하는데서 그가 이룩한 본능의 포기 다시 말해서, 본능적 만족의 포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처음에 아이는 ‘수동적인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즐거운 것은 아니었지만 놀이로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아이는 ‘능동적인’ 역할을 취하게 되었다. 그 물건이 ‘가버린’ 상태가 되도록 그것을 던져 버리는 것은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어머니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충동일 것이다. 또한 어린아이는 침대 가장자리로 집어 던지고 실패가 나타났을 때 오-오-오-소리를 냈으며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실을 잡아당겨 그 실패를 침대 밖으로 끌어냈고 그것이 다시 나타나자 즐거운 듯 da(거기에)라고 소리쳤다. 아이는 그 물건들이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사라졌다 되돌아오는 것을 스스로 연출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것은 소년이 바자회에서 두 영국인 말투의 두 점원의 o-o-o-o’소리의 말을 통해 독일어의 ‘포르트’(fort, 간, 사라진)로 해석함으로써 영국의 제국주의 아래 있던 아일랜드를 ‘포르트’(fort, 간, 사라진)의 형태로 두는 소년(=아일랜드의 국민)을 빈정거림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년이 애러비 바자회에서 타자의 욕망에 이끌려 온 자신에게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이전의 자연인의 상태 ‘포르트’(fort, 간, 사라진)로 두며 문화의 상태로 자신을 마비시키는 원인을 깨닫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년이 망간의 누나에 대해 가버린 상태가 되도록 하는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했듯이 누나에 대한 복수(망간의 누나를 저항 없이 보낸 것)로 볼 수 있으며 결국은 소년은 아일랜드 인의 영국의 지배하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지배받고 있는 본능의 포기를 조이스는 텍스트의 심층에서 다시 한 번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소년이 느낀 분노 또한 스스로 인식한 것이 아닌 점원들의 빈

정거리는 말투를 통하여 소년이 분노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될 수 있는 것 또한 소년 스스로가 아닌 수동적 위치에서

또한 아이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사라졌다 되돌아오는 것을 스스로 연출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동적 위치에 있지만 애러비에 나오는 소년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분노만 느낄 뿐 어떠한 것도 스스로 연출할 수 없는 소년의 무능력함으로 볼 수 있다. 작가가 소년에게서 바라는 것은 잃어버린 대상을 발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 재현의 공간을 넘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 또한 조이스는 소년과 동일시되어 자신을 그리고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없는 무능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Araby』(애러비)에서 유년기인 소년의 눈을 통해 더블린 사람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더블린 청년들 역시 마비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암담한 아일랜드의 현재와 미래를 투시하며 “기꺼이 지배당하는” 상황을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를 지녔다.

V. 결론

라캉은 프로이트의 이론이 본래 가지고 있던 과학성에 구조주의 언어학과 인류학이라는 현대적 개념을 첨가하여 정신분석학을 더욱 새로이 과학으로 탄생시킨다. 그는 무의식의 변형의 산물인 압축과 전치의 작업이 인간에 선행하여 있는 체계로서의 언어가 지닌 일반적인 법칙(속성)은유와 환유를 통한 시니피앙의 끝없는 대치과정과 대단히 유사함을 입증한다. 라캉은 무의식의 내용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의식생활에서 활동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무의식이 구성되는 시기는 인간이 어머니와의 근친 상관적 욕구를 억누르고 가족과 사회 네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주체로 탄생하는 때와 일치한다, 이를 위한 관문이 외디푸스 콤플렉스이다.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아버지라는 상징적 법률에 언어에 의한 억압이 하나 더 첨가된 것이 라캉의 외디푸스 콤플렉스이다. 인간은 이제 시니피앙이 지배하는 상징질서로 들어서고, 무의식도 이 시니피앙 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시니피앙의 의미는 이 시니피앙에서 저 시니피앙으로 은유적, 환유적 대치를 통해서 생성될 뿐으로 하나의 시니피앙에 고정된 하나의 시니피앙이 존재한다는 것은 라캉에게는 일종의 환상이 된다. 따라서 상징질서 속에서 인간의 생애는 스스로부터의 소외, 결핍, 욕망으로 점철된다. 이러

한 주장은 인간이 언어 속에서 주체로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언어로 분리되는 복잡한 상황으로 유도한다. 그는 구조주의의 심각한 이분법과 탈구조주의적 해체 사이에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주체를 구성하는 시니피앙에 세계에 대한 강조는 정신분석학에서 차지하는 언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분석 현장은 대화의 장이다 무의식은 대화 속에서 그것을 지배하는 담론으로 구성된다. 분석가는 무의식의 표출 구조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분석적 실천을 감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석가는 환자에게 무의식이 원인이 되는 중요한 대상의 위치에 있게 된다. 그 때 분석가는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에서 침묵을 지키는 자이어야 함을 라캉은 재차 강조한다.

이처럼 무의식의 언어성을 말한다는 것은 정신분석학과 문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펠먼(Felman, 1987)은 “정신분석학 이론과 문학텍스트는 상호 교류하고 서로 자리바꿈한다, 해석자 혹은 분석가가 텍스트의 ‘밖’이 아니라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문학과 정신분석학 사이에는 어떤 뚜렷한 대극현상이나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학이 정신분석학 내적 존재인 만큼 정신분석학도 문학 내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방법론적인 문제는 문학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적용’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속에 포함되는 ‘상호포함’의 문제이다.”(Felman, 1987)라고 말한다. 이는 정신분석학 이론과 문학 텍스트를 상호 텍스트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본 논문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인간 정신계에 존재하는 의식과 무의식을 프로이트와 라캉의 이론을 통해 논했으며 또한 나은 이해를 위해 그들의 분석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는 정신분석학과 텍스트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었고 본 논문은 인간 정신계에 존재하는 의식과 무의식을 프로이트와 라캉의 이론을 통해 논했으며 또한 나은 이해를 위해 그들의 분석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는 정신분석학과 텍스트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었고 본 논문 IV장에서 문학 텍스트 분석을 가능케 했다. 그 분석을 통해 텍스트에 존재하는 화자의 무의식적 욕망을 읽었으며 또한 표층구조와 심층구조로 이뤄진 텍스트의 이원론적 구조가 밝혀진 것이다.

Work Cited

- 르메르, 이니카. 『자크 라캉』, 이미션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4.
- 박찬부. 『현대 정신 분석 비평』. 서울: 민음사, 1996.
- _____. 『라캉: 재현과 그 불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6.
- _____. 『기호, 주체, 욕망: 정신 분석과 텍스트의 문제』.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7.
- 이미션. 『라캉의 욕망이론과 셰익스피어 텍스트 읽기』. 경기도: 한국학술 정보(주), 2006.
- 조이스, 제임스. 『애러비』. 김병철 역. 서울 문예 출판사, 2004.
- 지젝, 슬라보이에. 『빠딱하게 보기』. 김소연, 유재희 역. 서울: 시각과 언어, 1995.
- 프로이트, 지그문트.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역: 서울: 열린 책들, 2007.
- Aubert, Jacques. *Joyce Avec Lacan*. Paris :Navarian Editeur,1987.
- Felman, Shoshana. *Jacques Lacan and the Adventure of Insight: Psychoanalysis in Contemporary Culture*. Cambridge : Harvard UP,1987.
- _____. "To Open the question ." *Literature and Psychoanalysis*.1980.
- _____. *Literature and Psychoanalysis: The Question of Reading Otherwise*. Baltimore :Johns Hopkins UP,1982.
- Freud, Sigmun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Trans. and Ed. James Strachey. London: Hogarth P, 1953-74.
- Fink, Bruce. *The Lacanian Subject: Between Language and Jouissance*. Princeton: Princeton UP,1995.
- _____. " Reading Hamlet with Lacan" in Willy Apollon and Richard Feldstein eds., *Lacan, Politics, Aesthetics*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P,1996.
- _____. *A Clinical Introduction to Lacanian Psychoanalysis: Theory and Technique* , Cambridge : Harvard UP , 1997.

- Holland, Norman. *Psychoanalysis and Shakespeare*. New York :W.W. Norton,1996.
- _____. “Shakespearean Tragedy and the Three ways of Psychoanalytic Criticism.” *Psychoanalysis and Literature*. Ed. Hendrik M. Ruitenbeek. New York : E. P. Dutton,1964.
- _____. “ Re-covering *The purloined Letter* : Reading as a personal Transaction.” *Contemporary Literary Criticism : Modernism through Post - Structuralism*, New York Longman, 1986.
- _____. “ Why This is Transference, Nor Am I out of it.” *Psychoanalysis and Contemporary Thought*. 5 , 1982.
- _____. *Poems in Persons*. New York: W.W. Norton,1973.
- Jakobson Roman. *Language in Literature*. Krystyna Pomorska and Stephen Rudy. Cambridge : Harvard UP,1987.
-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New York: Penguin Books, 1916.
- _____. *Dubliners*. New York: Penguin Books,1975.
- Lacan, Jacques. “The Seminar on the *Purloined Letter*.” Tr. Jeffrey Mehlman. *French Freud :Structural Studies in Psychoanalysis*. New Haven : Yale UP,1972.
- _____.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W.W. Norton , 1977.
- _____. “ Intervention on Transference”. In *Dora’s Case: Freud - Hysteria - Feminism*. Charles Bernheimer and Claire Kahane. New York: Columbia UP, 1985.
- Laplanche, Jean and Leclair, Serge. “ *The Unconscious :A Psychoanalytic Study*”, *Yale French Studies* 48. (1972)
- Lemaire, Anika. *Jacques Lacan*. Trans . David Macey. London. Henley and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 Ricoeur, Paul. *Freud and Philosophy: An Essay on nterpretation*, Tr. Denis Savage, New Haven: Yale UP, 1970.
- Rabate, Jean -Micheal. *Jacques Lacan : Psychoanalysis and the Subject of Literature*. New York: Palgrave, 2001.

Trilling, Lionel. “ Freud and Literature”, *Freud :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Perry Meisel. Englewood Cliffs: prentice - Hall, 1981.

———.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Ego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Žižek, Slavoj. *Looking Awry : An Introduction to Jacques Lacan Through Popular Culture*. Cambridge and London: MIT P, 1991.

Abstract

Lacan's Psychoanalysis in the Text: Focusing on "Araby of James Joyce

Ko, HyunJo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quire into the dualistic structure of the text that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psychoanalytic theory and the literary text. It is drawn to Freud's dualistic conception of the two mental worlds,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And also it is drawn to Lacan's dualistic conception, the ego discourse and the other discourse. In finding the linguistic unconscious from the literary text, we will recognize the textual dualistic structure. The unconscious is the text is generally found by the slip of the tongue and that means the idea and thought which float or penetrate into a gap of the conscious when some people are thinking of something. The idea and thought are the unconscious and the other discourse called by Freud and Lacan. With the above contents, I analyze Araby by James Joyce and this thesis will discuss the textual unconscious and the other discourse in terms of the dualistic structure in the text. Then two kinds of structure that consist of the text and the subtext will be found. The subtext can be read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The best example for explaining the desire of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is a dream. The dream is revealed of through the way that his desire or ideal is directly expressed he is shown through the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like a displacement and a condensation after going through the censorship of the conscious.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in Freudian terms amount to the ego discourse and the other discourse in Lacanian terms. Lacan insists there are corresponding structures in symptoms, dreams, slip of tongue and jokes.

The unconscious that is structured like a language appears through the other discourse and it is connected with the textual unconscious. The dualistic structure of *Araby* by James Joyce is related with Freud's dualistic conception of the two mental worlds, which shows the similarity with Lacan's dualistic conception, the ego discourse and the other discourse.

Key Words

dualistic conception, ego discourse, other discours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subtext

Thornton Wilder의 『Our Town』에 드러난 일상적 삶의 가치

이 희 영

I. 서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제보다 진보한 오늘의 기술을 목격한다. 그 예로써 통신기기라는 거대한 기술의 산물은 뽀뽀의 등장에 만족하지 않고, 원거리통화와 더 나아가 화상통화가 가능한 신문물로 탈바꿈하였다. 괄목할만한 기술의 발전을 감싸 안은 자본사회는 대중들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일반 대중들은 기 드보르Guy Debord가 제시한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소외감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사회는 진보를 거듭하면서 이전의 단계보다 발전만을 소망하였고, 그에 맞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찬란한 내일을 전망하면서 현재의 문제들은 언제나 미래에 소멸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였다. 모두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내일의 도래를 주창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 새로운 역사에 대한 갈망은 도처에 흘러넘치고 있었다.

역사는 미래로 향해 뻗어있는 ‘직선적인’ 시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직선적 관점은 19세기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여 세계 대전을 고비로 힘을 잃기 시작한다. 두 차례에 참혹한 전쟁과 절망적인 세계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역사의 진보를 낙관하던 가치관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에 새롭게 등장한 이론가들은 역사의 ‘직선적인 시간’ 구조 대신에 일상 속 ‘주기적이고 반복-순환적인 시간’의 구조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와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순환적 시간 구조를 일상에서 찾았고 나아가 일상의 실천성에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그전까지의 대부분 이론가들은 일상적 영역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일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일상’의 사전적 정의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다. 이처럼 일상은 “제2의 천성”이라는 이유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루한 것이라 여겨졌다. 즉, 일상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시간과는 대조되는 단조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굳이 일상이라는 단어를 정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안다. 즉, 매일 되풀이 되는 삶, 그것이 일상이다. 따라서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들은 일상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바로 이 명백한 점 때문에 일상은 중요하다. 어떠한 ‘사건’들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일상이 갖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일상은 우리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며, 결코 이론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적나라한 ‘삶’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들의 일상적 삶에 대한 조명이야말로 유의미한 연구인 것이다. 그것은 반복적이고 진부하며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보다 심오한 것도 없다.

본 연구에서 다룰 Thornton Wilder의 희곡 『Our Town』에서는 1900년대 초기의 전형적인 미국 시골 사회의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다. 다른 극에 비해 이 극은 이렇다 할 플롯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한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결혼하며, 그리고 죽는 지에 대한 여정일 뿐이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세 사건을 재현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는 ‘일상’을 소홀히 한 주인공의 반성을 듣게 된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와일더의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인 일상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일상의 발생하는 공간적 의미를 비롯하여 그 공간 속 실천성을 바슐라르의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일상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일상의 개념 - 미셸 드 세르토의 이론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은 매일 체험되는 보통의 것이었기에 그동안의 학문적 궤적에는 다소 벗어나 있는 주제였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림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인 주체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발맞춰 개인의 일상에 대한 인식 또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일상이란 무엇인가. 누구도 ‘일상’의 뜻을 깊게 파고든 적은 드물 것이다. 사람이라면 모두 일상을 행하고

향유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 후 잠이 들 때까지 늘 하는 일과, 이것이 바로 일상이다. 일상이라는 것은 개인의 매일 반복되는 삶을 의미하지만, 변화와 창조를 내포하는 ‘가능성’ 역시 일상 안에 잠재되어 있다. 일상의 과정이 미미하게 달라지지만 하여도 개인 주체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순기능으로 ‘창조성’이 발생하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일상적 삶은, 사건이 일어나는 토대로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이미 언급한 역사의 ‘직선적’ 시간 인식은 19세기 말부터의 일련의 사건들(전쟁을 비롯한 정치, 경제적 변화 등)을 통하여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개인들의 일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초석의 역할을 하였다.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철학에 대한 한계를 인식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연구에서 ‘현재’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의 가치를 조명한 학자들은 일반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모든 중요한 사상적, 가치관적 기준이 무너진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것은 개인의 ‘일상’에 대한 새로운 주제의로의 전환이었다.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로 저명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일상생활을 “모든 전문화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라고 규정하면서 일상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언어학적으로 해석한다. 그가 말한 ‘일상’은 평범한 개념이 아닌, 현대인의 삶에 유무형적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를 재조직하는데서 일상의 가능성을 보았다. 르페브르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와는 다른 사상을 전개한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는 그의 저서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1984)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절묘하고 미시적인 방법들인 ‘전술’(tactics)을 통해 권력의 통제에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르페브르가 일상의 재조직에서 변화 가능성을 찾았다면, 세르토는 일상 속 실천에서 찾았다. 이 두 학자는 다른 듯하지만, 결국 ‘일상’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배 담론을 전복시키는 매개체로 본 점에서는 동일하다. 본고에서는 르페브르의 입장보다는 세르토의 ‘일상 실천’에 중점을 두고 논하고자 한다.

세르토의 주요 관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일상생활의 창조적 실천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인간의 가능성을 바로 이 실천에서 찾고 있다. 지배 이데올로기, 체제에 혼용되고 종속되는 삶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차원’에서 재전유,

왜곡, 변형, 재가공하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큰 담론에서 배제되었던 일상생활의 차원을 부각시켰다는 점, 그리고 그것의 저항성만이 아니라 적극적 창조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는 도시와 공간적 실천의 문제를 주요 연구과제로 삼았다. 16세기 이후 서구도시는 전통과 삶의 다양성을 배제시키고 기능주의적인 개념 아래 대중을 전체화시켜 버렸다. 도시 계획이나 지도에서 나타나는 개념 도시는 일종의 파놉티콘이다. 맨하탄의 고층빌딩들은 보행자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을 감시하는 간수의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자들은 이 파놉티콘적 빌딩의 감시를 피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저항하고 피를 쓰며 공간을 창출하는 실천들을 하고 있다. 이들을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공간 이론을 만들려는 것이 세르토의 의도이다. 바로 ‘걷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걷기에 관련된 이론적 시도를 위해 세르토는 우선 ‘걷기’를 발화의 시작으로 본다. 도시의 일상 생활자들이 살아가는 곳은 가시성이 멈추기 시작하는 반대편의 ‘저 아래’이다. 그들은 걷는다. 걷는다는 것은 도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험 형태이다. 그들은 걷는 자들이며 방랑하는 자들이다. 공간적으로 보자면, 보행자들은 이미 정해진 인도로 걷지만 자신만의 길-지름길-을 만든다거나, 가다가 멈추고 뒤돌아가는 등 자신만의 ‘스타일’로 걷는다. 이는 지도 위에서 고정되었던 길을 재배열시킬 뿐 아니라 재창조하는 행위이다. 결국 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 걷기 실천이라는 것이다. 이 걷기적 실천에서 세르토는 일상의 가치는 물론 도시의 지배성에 대한 저항성을 발견한다. 이는 미시적이지만 구조를 전복시키는 파괴적인 힘을 발휘한다.

세르토가 주창한 바와 같이 ‘일상’의 실천성은 개인의 창조성 뿐 아니라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정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와일더의 『Our Town』에서 이 일상 속 실천성이 작품 속 어떻게 드러나는지 바슐라르의 공간이론과 연계시켜 알아보고자 한다.

2.2. 『Our Town』 속 일상과 그 실천 공간으로서의 ‘집’

일상은 공기처럼 알아차리기는 힘들지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우 필수적인 개념이다. 일상은 인생 내내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공간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자신의 방 안에서, 식사를 할 때도 부엌이란 공간에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눌 때는 거실이 없어서는 안 된다.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일상의 반복적 행위를 자의적으로,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우리의 ‘일상’은 항상 공간 속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누리는 가장 기초적인 공

간은 어디인가. 바로 ‘집’이다. 일상이 실천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집’을 연구한 학자가 바로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이다.

일상을 알아보기 위해 집을 연구하는 것은 바슐라르가 설명한 바와 같이 “특권적으로” 알맞은 것이다. 집이란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이다. 집은 자신의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꿈꾸게 해주는 안전지대이다. 인간은 ‘세계에 내던져’지기 전에 집이라는 요람에 놓인다는 바슐라르의 말은 매우 일리가 있다. 일상은 집의 품속에 포근하게 숨겨지고 보호되어 시작되는 것이다. 바슐라르는 특히 집의 구석, 내밀한 공간인 다락방과 지하실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지붕 밑 다락방은 은신처 역할을 하며 우리를 몽상하게 한다고 하였다. 『Our Town』 속에서도 이런 ‘다락방’이 여러 번 언급된다. 사다리 두 개가 각기 깃스와 웹의 집 2층을 나타낸다(45)는 지문을 비롯하여, 조지와 에밀리가 사다리에 올라가 숙제를 한다거나, 다락방의 존재 깃스가 자신의 아들 조지에게 잘 시간이 되지 않았냐며 묻자 조지는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49) 장면은 두 집이 다락방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극 중 에밀리와 웹이 지내는 다락방은 자신들의 생각을 홀로 하는 공간-에밀리가 잠이 오지 않는다며 달빛을 보는 장면(57)-임에 동시에 웹이 에밀리가 숙제하는 모습은 보는 등,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집은 인간이 공간에 소속되어있다는 안정감을 창출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식이자 공간이다. 집은 가정적인 작은 규모에서 집의 확장공간인 ‘우리 동네’, 나아가 ‘고향’이라는 대규모 공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간적 차원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 집은 각양각색의 정서적 영역을 결합하며 교환 가능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포함한다. 집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여러 실천들-일상-이 벌어지는 장소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바슐라르는 특히 침실, 다락방, 응접실 같은 집 안의 행복하고, 아늑한 공간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어린 시절의 상상력을 통해서 집 안의 표면과 미세한 분위기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 녹아 있는 더 작은 공간, 작은 서재들도 포함된다. 바슐라르는 이렇게 기억이 공간화되고 우리가 이런 공간적 영역을 기억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 같은 “우리 세계의 구석들”은 “집”의 근원적 기초이며 사라지지 않는 장소적 소속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바슐라르의 개념은 집

내밀한 일상적 공간을 ‘집’에서 ‘우리 읍내’로 확장시킨다.

극이 전개되는 장소인 ‘Grover’s Corners’의 위치는 확실히 명시되고 있다. ‘메사추세츠 주 경계 바로 너머 뉴햄프셔 주’, ‘위도 42도 40분, 경도 70도 37분’(16)라는 아주 정확한 위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장소를 사실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러나 이 장소의 실재성에 집중하기보다는 ‘Grover’s Corners’를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대명사로 보는 것이 와일더의 의도에 적합하다. 바솔라르의 ‘집’에서 한 마을로 확장시킨 와일더는 이 공간에서 일상의 논리를 아주 유연하게 전개하고 있다. 무대공간은 ‘막도 장치도 없는 텅 빈 무대’이며, 출연자에 대한 설명 또한 ‘아무개’라 언급하며 익명성을 내보인다. 처음부터 와일더는 그리 특별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평범함은 계속해서 변주된다. 특출한 인물이 나온 적이 없다(18)고 설명하며 주민들의 일상인 식사와 정원일, 아이들의 하교(38)장면을 묘사하는 등, 이렇다 할 만한 사건, 등장인물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와일더는 무대감독의 입을 통해 시시하게 보이는 ‘일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무대감독: 그래, 저도 이 연극의 대본 한 권을 정초석에 넣을까 합니다. 천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알도록 말입니다. 전 그게 베르사이유 조약이나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비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천 년 후의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 우리들이나, 자라서, 결혼하고 살다가, 죽는 거, 그거야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44-45)

STAGE MANAGER: So I’m going to have a copy of this play put in the cornerstone and the people a thousand years from now’ll know a few simple facts about us—more than the Treaty of Versailles and the Lingbergh fight. See what I mean? So—people thousand years from now—this is the way we were in the provinces north of New York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This is the way we were: in our growing up and in our marrying and in our dying and in our dying.

와일더의 ‘일상’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 간 조약이나 역사적 사건보다는 평범한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일상의 가치를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은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서서히 변하는 추세이

다. 문을 열고 서로의 소식을 다 알았던 주민들은 이제 밤바다 앞문을 잠그며 자신들의 재산을 지킨다. 이에 깁스는 “되도 않게 도시 흉내”를 낸다며 넘기지만(54), 그 후 9년이 지난 1913년에는 마차가 사라지고 자동차가 보급되었으며 밤이면 집집마다 문을 잠그는 풍경이 묘사된다.(94) 변화하는 사회 풍토를 목격한 와일더는 더욱더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다. 일상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써 그는 ‘죽음’을 사용한다.

첫째 막이 일상생활이고, 2막은 사랑과 결혼을 이야기 했고, “마지막 한 막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 할 수 있지 않냐”며 묻는 무대감독의 말은(59) 매우 의미심장하다. 3막에서 해산하다가 죽은 에밀리의 대사는 일상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와일더의 목소리의 반영물이다. 에밀리는 자신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다시 삶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일상으로 갈 수 있는 하루를 얻게 된다.

에밀리: 직접 확인해보겠어요. 행복했던 날 하루를 골라서요.

깁스 부인 : 안 된다. 정 그럼 평범한 날을 골라라. 그래도 충분하다.
(108)

Emily: But, it's a thing I must know for myself. I'll choose a happy day, anyway.

MRS.GIBBS: No!-At least, choose an unimportant day. Choose the least important day in your life. It will be important enough.

그녀는 자신의 12번째 생일을 선택하는데 이는 평범한 날이지만 결국 행복했던 날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일상과 행복이 맞닿아 있다는 와일더의 의도가 엿보인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모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서로 쳐다보고 있자며 다급히 말한다. (116) 그러나 자신이 더 이상 생애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몰랐던 ‘일상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심지어 일상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장님이라 말하며(118) 무지한 자신을 반성한다.

에밀리 : 도저히. 더는 도저히. 너무 빨라요.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몰랐어요. 모든 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안녕 이승이여, 안녕. 우리 읍내도 잘 있어.

아, 너무나 아름다워 그 진가를 몰랐던 이승이여, 안녕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매 순간마다요?
 (117)

Emily : I can't. I can't go on. It goes so fast. We don't have time to
 look sat one another. I didn't realize. So all that was going on and
 we never noticed. Good-by, Good-by, world.

Oh, earth, you're too wonderful for anybody to realize you. Do any
 human beings ever realize life while they live it?-every, every
 minute?

에밀리리 이러한 이승으로의 순간적 회귀는 일상의 가치를 더욱 더 명료하게
 보여주는 시퀀스이다. 에밀리는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보지만 그녀
 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죽었으며, 다시 삶을 살 수 없다. 그
 녀 자신의 무지에 대한 반성이 바로 와일더가 극을 통해 계속해서 주창해온 주
 제이다.

와일더는 누구나가 잊고 지낸 일상의 가치를 ‘죽음’이라는 메타포를 이용하여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일상이 순환적인 과정임을 알린다. 일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두막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일요일
 오후에 산책을 나가고, 신경통에 걸리고, 손주들이 생기고, 두 번째 신경통, 임
 종, 유서 낭독(92)”하는 과정이며, 이는 ‘수백만의 우리 조상님들’(86)이 반복적
 으로 겪어 온 것이다. 일상은 지금 현재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지만, 이를 확
 장시켜보면 부모세대를 거슬러 올라 간 아득한 조상들도 경험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까맣게 그것을 잊고 살았던(96)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일
 상적 경험의 경과(탄생, 성장, 연애, 결혼, 죽음)의 반복은 바로 공동사회이자 조
 상, 역사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된다.

즉, 이러한 ‘그로버즈 코너즈’의 일상의 반복은, 단순히 그 읍내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게 된
 다. (이신영 542) 이러한 보편성은 나아가 일상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고자 한
 와일더의 의도와 일치하게 된다.

Ⅲ. 결 론

우리는 평상시에 물과 공기 등 인간 삶의 필수적인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사소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조차 잊고 지낸다. 손튼 와일더는 바로 우리의 일상에 대한 무지를 일깨워주는 한편, 일상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극을 쓰고자 했다. 와일더는 1차 대전과 세계 대공황을 겪고 난 이후에 이 작품을 썼다. 앞서 말한 여러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와일더 또한 이런 문제의 대안을 ‘일상’에서 찾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¹⁾에서 자신의 관심은 “수백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반복하여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다고 말하며, 그는 이 작품을 “언덕 아래 작은 마을에 대한 깊은 찬미와 연극에 대한 강한 애착에서 만든 작품이다.”²⁾ 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와일더의 극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선언이다. 바로 여기에서는 우리 읍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작가적인 목적이 극단적으로 언급된 것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시볼드Thomas Siebold 또한 우리 읍내를 이렇게 표현했다.

탄생, 결혼, 죽음이라는 매일의 일과와 개인적 삶은 우주의 영원한 리듬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읍내는 매우 평범한 사람들에서 가장 빛나는 무리의 사람들로, 가장 작은 마을의 사람들에서 전 인류로, 일지에서 영원으로의 과정을 잘 그려내고 있다.(42-43)

이들과 달리 혹자³⁾는 와일더의 극은 “처음부터 막연하게 시공의 제약을 초월한 인생이 보편적 진리 추구라는 관념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며, 그것이 “사랑의 철학을 설교하기에 급급하다”(289)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와일더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의견이다. 시공의 제약을 초월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앞서 간 조상들의 삶과 이어져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일상의 의미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장시키며 그 순환성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와일더에

1) G, Malcom. *The Art of Thornton Wilder*.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5.

2) Bloom, Harold. *Bloom's Major Dramatists - Thornton Wilder*, Chelsea: Chelsea House Publishers, 2003.

3) 박희관. 「일상적 삶과 역사의식: 손튼 와일더의 「우리 동네」연구」. *새한영어영문학회*, 23, 255-90. 1989.

계 일상상은 에밀리 가죽 웹 가족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이-탄생으로 시작되어 죽음으로 끝나는-순환운동이 계속되는 과정이다. 즉, 앞서 말했던 직선적 역사가 아닌 순환적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의 중요함을 이 작품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철학’을 전파했다는 말은 와일더가 ‘일상의 철학’을 전파하고자 했다는 말로 재비판할 수 있다. 와일더는 ‘일상의 철학’을 일상을 보여줌과 함께 ‘죽음’을 통해 반성적 태도를 관객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상의 정확한 위상을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이 일어나는 공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바슐라르는 이 일상의 공간을 ‘집’이라 하며, 이 공간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높게 평가했다. 와일더는 바슐라르의 ‘집’을 자신이 창조한 ‘읍내’로 확장시켜 일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메타포로 사용하였다.

일상은 그동안 주요한 삶의 영역에서 제외되어 왔다. 매일같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제자리로 회귀해오는 것이며 진부한 것이 된다. 또한 특별한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사소하고 하찮은 영역으로 간주되기 쉽다. 즉, 반복적 행위만 이루어지는 변화 없는 시간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순환성에서 그 고유한 특성이 탄생된다. 일상은 새로운 삶의 토대의 출발점이며, 다양한 생활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이를 통해 창조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용광로이다. 일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며,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지속적인 일관성을 포함하고 있다. "Everyday Life", 일상생활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세르토의 말처럼 “삶은 각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순간들 모두에 삶 전체의 힘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며, 우리들의 삶과 관련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순수한 무의 세계로 사라질 뿐”이다. 일상은 너무나도 사소하지만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이자, 변화하지 않는 지속적인 과정이지만 사회 변화에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모순적이게도 ‘삶의 모든 것’과 ‘모든 삶’은 일상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변혁을 맞이하려면 개인의 일상의 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사소한 일과가 아닌, 만약 개인들이 사회를 재생산하고자 한다면, 주체로서 그들 자신을 재생산해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즉 지배담론을 전복시키는 주체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 일상의 의미화되고 재창조되는 과정 일상은 우리가 날

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보통의 삶이다. 일상은 반복되고 지루하지만 동시에 새로움과 창조의 순간이 함께 하기에 역설적이고 모순적이다. 우리의 일상은 사소하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한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바탕이 되는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손턴 와일더의 『Our Town』은 우리에게 일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일상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작품이다. 이처럼 와일더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일상의 본질과 일깨워주고 나아가 그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있다. 인간은 일상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인간일 수 있다. 일상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와일더의 작품 속 대사 한 대목은 이러한 점에서 아주 유의미하다. "살기 위해 삶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기 위해 살라."(60)

Works Cited

- 김민지. 「도시공간과 실천적 일상전술의 예술적 실행」. 현대미술학회, 16:2 37-84. 2012.
- 노튼, 앤. 오문석 옮김. 『정치, 문화, 인간을 움직이는 95개 테제』. 엘피:서울 2010.
- 드보르, 기. 드보르, 유재홍 옮김. 『스펙타클의 사회』. 울력:서울, 2014.
- 마페줄리, 미셸 외. 일상생활연구회역음.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파주, 2016.
- 르페브르, 앙리.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 기파랑:서울 2005.
- 박명진 외. 『문화, 일상, 대중 :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한나래:서울 1996.
- 박희관. 「일상적 삶과 역사의식: 손턴 와일더의 「우리 동네」연구」. 새한영어영문학회, 23. 255-90. 1989.
- 에텐서, 팀. 박성일 옮김.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이후:서울, 2008.
- 와일더, 손턴. 오세곤 옮김. 우리 읍내 예니:서울, 1999..
- 코직, 카렐. 박정호 옮김. 『구체성의 변증법』. 거름:서울, 1985.
- 하비, 데이비드. 최병두 옮김.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 창비:파주, 2017.
- Bloom, Harold. *Bloom's Major Dramatists - Thornton Wilder*, Chelsea: Chelsea House Publishers, 2003.

De Certeau, M. *L'invention du quotidien*, Paris: 10/18, 1979.

De Queiroz, M. Jean. *Sociology of Everyday Life: a New Perspective*,
Current Sociology 37,1. 1989.

G, Malcom. *The Art of Thornton Wilder*.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5.

Guy Debord. *The Society of Spectacle*. Tr. Donald Nicholson-Smith. New
York: Zone Books, 1995.

Heller. Agnes.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4.

Siebold, Thomas. *Readings on Our Town*. Michigan: Greenhaven Press, Inc.
2000.

Wilder, Thornton. *『Our Town』 and Other Plays* Penguin Books:
Harmondsworth. 1962.

Abstract

The Value of Daily Life in Thornton Wilder's Our Town

Lee, He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the value of daily life in Thornton Wilder's *Our Town*. The subject matter of this drama is superior value of common daily life which was always around us but we didn't know and care about.

The background in this drama is a typical daily life in rural America in the early 1900s. Compared to other dramas, this has no special plots. It's just a journey of how people are born, married, and died in a village. In the process of repeating the three most basic events of mankind's life, we hear the reflection of the main character who neglected 'daily life.' Wilder is about showing "the value of daily life" to the audience and the "death" is the most important metaphor for giving an introspective attitude.

To establish the exact status of our daily lives, we must recognize the space in which it occurs, The french Philosopher, Gaston Bachelard called the everyday life happened in the space - "house," and highly praised the imagination and creativity of the space. Wilder expanded Bachelard's "House" to his "town" and used it as a metaphor to express the value of everyday life.

"Everyday life" is the starting point of a new life, the path to a variety of lifestyles, and the furnace from which creativity can be created. Everyday life is much more dynamic than we think, and includes lasting consistency on which identity is base. Moreover "Everyday life" is a method that can be summarized in one word as an alternative.

Thornton Wilder's " *Our Town* " is bound to awake the value of daily

life to us. Human beings can only be human beings if they can correctly perform their daily live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life collapses when daily lives fall.

희미한 희망에 관하여: 코맥 매카시의 『로드』 읽기

정 희 연

I. 서 론

코맥 매카시(Cormac McCarthy, 1933~)가 그의 아들 존(John Francis McCarthy)에게 헌정한 10번째 소설 『로드』(The Road, 2006)¹⁾는 명명되지 않은 재앙이 닥친 후 생존을 위해 힘겨운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름이 없는 남자(The man)와 소년(The boy)은 재앙 이후의 잿빛 세상을 걷고 있다. 재앙 역시 그 이름도, 그 발생 이유도 제시되지 않는다. 매카시는 우리에게 오직 “시계들이 1:17에 멈추었다. 크고 긴 가위 같은 빛에 이어 낮은 진동”(The clocks stopped at 1:17. A long shear of light and then a series of low concussions, 62)이 있었다는 사실만 제공해준다. “깊이나 차원이 없는 암흑”(79)과 같은 세상 속에서 걷고 있는 남자와 소년은 죽음과도 같은 겨울을 이겨내려 바다가 있는 남쪽을 향해 막연한 발걸음을 옮긴다. 길 위에서 그들은 존재 자체로 위협이 되고 있는 식인을 일삼는 인간들과 끊임없이 추위를 선사하는 자연을 만난다.

2007년 풀리처상(Pulitzer Prize for Fiction)을 수상한 『로드』는 2006년 출간 당시 특히 문체적 특질들에 있어서 평단의 합의된 호평을 받았다. 건조하고 간결한 매카시의 문체는 “세상의 고립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매카시의 “시간”을 의미하는 동사보다 명사를 사용하는 문장 서술은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상을 창조”(Palmowski 358)하고 있다. 매카시의 문체적 특질이 자아낸 죽은 세상으로서의 이미지가 희망이 없는 길 위의 부자의 여행과 겹쳐지며 암울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로드』에서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 세계에서도 무엇인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읽어내려고 한다. 물론 재앙 이전의 삶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

1) 작품에 대한 인용은 *The Road*(Vintage, 2007)를 따르고, 이하 괄호 속 쪽수만 표기한다. 번역은 『로드』(정영목 역, 문학동네, 2008)를 따르나 부분 수정하였다.

은 남자가 꾸는 꿈처럼 환상이고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다. 대신 잿빛 세계에 대한 꿈을 꾸는 소년에게 희망이 있다. “한때 우월했지만 그 자신의 끝을 가져온 인간들의 세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Hage 52) 소년, 즉 재앙 이후에 태어난 소년이 스스로 믿듯이 희망의 “불”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본 론 1

『로드』는 꿈에서 깨어나는 남자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매카시의 소설들은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그리는, 되돌릴 수 없이 가버렸고 사라진 과거를 갈망하는 남부 소설의 전통”(Edenfield 584)에 근거하고 있는데, 『로드』에서는 남자의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재앙 이전의 삶에 대한 묘사들에 있다. 그와 그의 아들에게 펼쳐진 세상이 잿빛이라면 꿈속의 색깔은 따뜻하거나 다채롭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과거이자 꿈에서의 자연이 아름답다면, 남자의 지금이자 현실에서의 자연은 위협 그 자체이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남자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삼촌의 농장에서의 그의 경험이다. 그곳에서 어렸던 남자는 지금의 자신과 그의 아들처럼 삼촌과 둘이 있고, 그가 훗날 수없이 보게 될 피폐해진 나무들처럼 허리케인 때문에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는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들”을 보고, 그가 훗날 필사적으로 살아 남기위해 찾아 헤멜 통조림통처럼 닻 대신 사용되고 있는 “깡통”을 보고, 그가 훗날 아들과 보게 될 잿빛 호수마냥 “호수”를 건넜다(12-13).

남자의 어린 시절에 묘사된 것들은 그가 훗날 아들과 함께 걷는 길에서도 마주하게 되는 것들과 닮아있지만, 동시에 아주 판이하다. 그것들은 “유년의 어느 완벽한 날”에 있었던 것들이고, “그 뒤에 올 날들의 본이 될 그런 날”에서 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13). 남자는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쯤 아들에게 “있지도 않았던 세게나 오지도 않을 세계의 꿈을 꺾어서 네가 다시 행복해진다면 그건 네가 포기했다는 뜻이야”(215)고 다그칠 수 있지만, 여정 동안 그는 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재앙 이전 세상의 부족한 세속적인 물건들로 가득 찬 쇼핑 카트를 끌면서 느릿느릿 걷는 남자의 길은 과거 삶의 백일몽들로 괴롭혀진다(Hage 52). 남자는 “길에서 꾸는 백일몽에서는 깨어날 수 없었”(24)는데, 아내와 이전 세상에 대한 기억은 그의 꿈속으로 끈덕지게 소환되기 때문이다.

재앙 이후에 쓸모가 없어져버린 이전 시대의 유물과 다름없는 가족지갑을 남자는 계속해서 들고 다녔다. 남자는 지갑의 모서리가 바지에 구멍을 뚫을 때서

야 (나중에 잠깐이나마 후회를 하긴 하지만) 아내의 사진을 담고 있던 그 유품을 정리할 수 있었다. 지금의 세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지갑 안에 있던 “돈 약간, 신용카드 몇 장. 운전면허증. 아내 사진”(61). 경제적 능력을 비롯해 그의 존재를 증명해줄 수 있던 물건들과 재앙 이전의 세계에서의 사랑과 기억까지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빛이 바랬다.

당신 의사야?

난 아무것도 아냐.

Are you a doctor?

I'm not anything. (76)

『로드』에서 첫 번째로 위협적으로 다가온 낯선 사내와의 대화 속에서 남자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냐”라고 말하듯이, 한때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의 그 모든 정체성들은 이제 소년을 보호해야하는 단 하나의 의무로만 남아있다.

남자의 정체성과 아직도 살아있는 소수의 정체성은 목시록 후의 망각에 녹아들었다(Hage 103). 우리는 온통 잿빛으로 물든 작품 속 세상 속의 남자와 소년에게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뿐더러,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어느 누구도 정체성을 표시해줄 수 있는 요소들로 설명되지 않은 것 또한 떠올릴 수 있다. 인간의 흔적은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보다 “미라가 된 시체 천지”(30)로 존재한다. 그나마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은 “엘리”(Ely, 195)인데, 눈과 귀가 거의 멀어버린 그 늙은 노인의 엘리라는 이름조차도 진짜 이름인 것 같진 않다. 노인은 말한다. “아무도 그게 나였다고 말할 수 없겠지. 나는 누구일 수도 있으니까”(195). 파국의 세계에 자신이 누구인가는 소용이 없다. 살아있는 모두가 역명의 재앙 속에서 생존과의 사투만을 벌이는 익명적인 단일체적 군상들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재앙 이후의 세계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비단 인간들뿐이 아니다. 이전 시대의 모든 ‘것’들은 과거에 명명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금속 간판”이나 “지붕을 덮는 양철 조각”(43)은 쌓인 눈들 앞에서 “썰매”외에는 그 용도가 없다. “그 광야에서 교차로를 넘자 오래전에 길에 버려진 여행자들의

소지품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상자와 가방. 모든 것이 시커멓게 녹아버렸다. 낡은 플라스틱 옷가방들은 열 때문에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었다”(216). 재앙 이후에 태어난 소년에게 이전 시대의 것들은 남자의 설명에 의해서만 그 역할이 밝혀진다. 소년은 남자가 주 도로(The state roads)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댐의 용도에 대해 묻는다. 하지만 주 도로와 같이 인간이 구획했던 개념들은 인간의 법보다 시시각각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의 법이 우선적으로 되어버린 이 세계에서 더 이상 그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자연을 이용한 인간의 발전을 상징했던 댐의 용도로써 물을 통한 전기 생산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철로에서 기차를 본 소년에게 “남자는 기차 소리와 디젤 나팔 소리를 냈지만 그것이 소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205).

하지만 남자와 소년에게 있어 이전 시대 기술의 흔적들이 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다. 그들이 여정 중에 절대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총과 라이터이다. 라이터는 추위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음식을 해먹기 위해 불을 계속 피워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총은 길 위에서 위협적인 인간을 죽이는 용도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남자와 소년에게 이토록 비인간적인 악들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인간적인 인간으로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이다.²⁾ 남자는 소년이 강간을 당하거나 잡아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급박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소년에게 총을 쥐어주며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말한다. 남자와 소년이 “사라진 세계의 풍요로움”(159)을 경험하는 지하 병커는 그들이 찾아 해냈던 거의 모든 것들—음식, 옷, 라이터, 따뜻함 등—을 제공하지만, “총은 없었다”(163). 지하 병커에 총이 없다는 사실은 이곳이 “안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Greenwood 79). 그래서 그들은 지하 병커에 며칠이고 머무를 수 없다.

특히 “등장인물들이 여행하고 있는 『로드』의 황폐한 풍경에는 21세기 소비문화의 누적된 파편들로 가득 차 있다”(Kollin 160). 자동차들은 검게 타버리거나 녹이 슬어 고속도로에 줄지어져 있고(308), 방치된 트럭과 쭈글쭈글해진 타이어가 주 도로에 세워져있다(53). 즉, 우리 시대에 만연하던 것들은 그 의미가 역전

2) 인간적인 최후를 맞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총은 아내의 자살이 흑요석 조각으로 이뤄졌다는 점과도 연관이 된다. 아내의 자살은 그녀가 단지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후에 남을 가족에 대한 “사랑”(Greenwood 78)으로 보아야하는데, 이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자신이 앞으로의 고된 여정에 짐이 될 것이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녀는 총알 또한 남자와 소년의 뒤통이 되어야할 ‘2발’ 밖에 남지 않은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흑요석 조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되거나 변화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코카콜라(Coca Cola)와 쇼핑 카트이다. 도시 외곽의 슈퍼마켓 앞에서 음료수 자판기를 뒤진 후 남자는 소년에게 “특별한 선물”(29)이라며 콜라를 건네준다. 소년의 입에도 콜라는 맛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것을 마실 때 오랫동안 다시 못 마실 것을 알고 있다. 과거의 세계에서 만연하던 것은 지금의 세계에서 희소한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또한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쇼핑카트는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생존을 위한 전리품들을 싣고 가는 불가항력적인 약탈의 증거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잃어버린 세상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탐욕을 상징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된다. 카트에 생필품을 싣고 겨우 목숨을 연명해가는 주인공들을 바라볼 때 현대인이 철저히 신봉하는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허망함과 그 몰락이 가져오게 될 아이러니한 삶의 방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이선주 132).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것들의 의미가 전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로드』는 우리 시대에 대한 재고를 일깨우고 있다. 독자들은 작품 속의 명명되지 않은 재앙이 핵폭발 때문일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걷는 것을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소년은 눈이 밀려온 들판에서 쓰러져 떨고 있을 때 남자는 소년을 안고서 “미안하다. 미안해”(114)라고 말한다. 여기서 남자의 미안하다는 말은 이 재앙적인 세계에 태어나게 했고 걷게 ‘한’ 아버지의 ‘자기’ 아들에 대한 애처로운 감정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이 절망적인 세계를 물려준 남자와 남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아버지들 세대’의 자조 섞인 후회와 미안함으로 확대해 읽을 필요가 있다. 한때 우월한 줄 알았고, 융성하다고 믿었던 인간의 비약적인 기술·과학의 발전은 그 확장적인 욕심(핵폭발)에 의해 스스로를 파괴했다. 남자는 남자가 스스로 의도하지 않으면서 파괴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세계를 소년에게 남겨주고 걷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남자의 돌아갈 수 없고, 돌려줄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절망적인 탄식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이 소년을 보며 느끼는 슬픔, 아픔,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함과 동시에 공명할 수 있다.

『로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매카시의 비유적인 세계”(Cant 186)를 목도하게 한다. 이 세계는 “매카시의 모든 전작들에 스며들어있는 목가적인 것에 대한 열망”(Greenwood 85)이 담긴 곳이다. 남자에게 목가적인 것이란 삼촌의 농장에서 겪었던 따뜻한 색깔의 유년시절이다. 작품이 시작될 때 꿈에서 깨어난 남자를 기억해보자. 이후 매카시는 곧장 “어둠 이상으로 어두운” “밤”과 “하루가 다르게 잿빛이 짙어”지는 “낮”에 대해 말한다(3). 시작에서부터 밤과 낮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로드』의 세계는 “영원한 중간”(an eternal middle)에 위치하면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현세적인 표시” 속으로 독자들도 보낸다(Rambo 101). 영원한 중간 속에서 남자의 목가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세상으로서 그를 괴롭힌다.

그는 회색 빛 속으로 걸어 나가 우뚝 서서 순간적으로 세상의 절대적 진실을 보았다. 유언 없는 지구의 차갑고 무자비한 회전. 사정없는 어둠. 눈먼 개들처럼 달려가는 태양. 모든 것을 빨아들여 소멸시키는 시커먼 우주. 그리고 쫓겨 다니며 몸을 숨긴 여우들처럼 어딘가에서 떨고 있는 두 짐승. 빌려온 시간과 빌려온 세계 그리고 그것을 애달파하는 빌려온 눈.

He walked out in the gray light and stood and he saw for a brief moment the absolute truth of the world. The cold relentless circling of the intestate earth. Darkness implacable. The blind dogs of the sun in their running. The crushing black vacuum of the universe. And somewhere two hunted animals trembling like ground-foxes in their cover. Borrowed time and borrowed world and borrowed eyes with which to sorrow it. (149)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다시 꿈이 찾아올까 두려”(149)운 남자는 “세상의 절대적 진실”을 본다. 잔인할 정도로 인간에게 무관심한 자연 속에서 “떨고 있는 두 짐승”인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는 남자는 자신의 과거이자 꿈의 기억보다 훨씬 큰 자연의 광범위한 무시간의 범위를 깨닫는다. “이렇게 소설의 힘은 인간중심적인 인간 존재의 삶과 죽음을 보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영역으로 놓음으로서 ‘황야의 아름다움’과 공명한다”(Greenwood 85). 이는 작품의 가장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다시는 바로잡을 수 없는” “송어”(287)의 이미지와도 겹친다. 그렇다면 이 거칠고 척박한 황야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광활함을 깨닫는 데만 있는 것인가? 되돌릴 수 없는 남자의 꿈과 과거와 다시는 바로잡을 수 없는 송어는 재앙 이후의 암울함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작품은 되돌리거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 대신 아버지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은, 즉 이 황야에서 태어나 이 황야를 걷고 있는 소년을 제시한다.

Ⅲ. 본 론 2

죽음에 남자가 꾸는 꿈과 소년이 꾸는 꿈은 다르다. 소년의 꿈은 남자의 꿈과는 달리 그 내용이 자주 제시되진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 새의 노래, 태양으로 이루어진 부드럽게 채색된 세계”(308)를 그리는 남자의 꿈과 대조되게 소년의 꿈은 이 광야에서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죽음에 가까워진 남자가 소년에게 꿈이나 말하지 않은 생각에 대해 물을 때 소년은 그것들이 “우리가 사는 거와 비슷”(303)하다고 대답한다.

남자는 소년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사는 게 아주 안 좋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나는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우린 아직 여기 있잖아.
그래요.
넌 그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괜찮죠, 뭐.

The man watched him. Real life is pretty bad?
What do you think?
Well, I think we're still here. A lot of bad things have happened but we're still here.
Yeah.
You dont think that's so great.
It's okay. (303).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소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남자(아버지)의 세계와 소년(아들)의 세계가 양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재앙 이전의 세계와 삶이라면, 후자는 재앙 이후의 세계와 삶이다. 남자와 아들이 체감하는 이 여정과 세계는 신체적·물리적으로는 어린 아들에게 더욱 혹독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나이트 아버지에게 더욱 혹독할 수도 있다. 재앙 이전에 태어났고 안온하던 유년 시절을 기억하는 남자는 이 절망적인 시대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기적이면서 동시에 고통일 수 있지만, 재앙 이후에 태어났고 태어나서부터 경험한 것이라고는 이렇게 아버지와 갯빛

세계를 걷는 것이 전부인 아들에게 어제와 다르지 않은 매일은 기적도 고통도 아니다. 아들에게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건 그냥 ‘여기’ ‘있는’ 사실이자 일상이다.

소년은 두렵다(scared) 말을 자주한다. 특히 소년은 남자가 낯선 집을 살펴 보거나, 주변 환경이나 도로를 정찰하러 갈 때 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극도로 두려워한다. 아네트 매기드(Annette M. Magid)는 멸망 후를 그린 미국 소설과 영화들에서 주인공들이 종말적인 비전만 제시되는 같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지라도 “공포”는 “더욱 긍정적인 행동적 변화를 가져올 도구”라고 지적한다(235). 그녀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들이 취하는 행동의 양상에서 인간성 회복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로드』에서 길은 분명 남은 세대의 인류에게 미래에 대한 좋은 징조를 선사하진 않지만,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의 개념에 신뢰성을 빌려주는 행동”(Magid 235)을 선사한다. 그것은 사람을 먹는 사람들,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들로 가득 야만적인 길과 인간이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어버린 공포 속에서도 소년이 타인에게 가지는 동정심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번개를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본 소년은 “우리가 도와줄 수 없나요, 아빠?”(60)라고 묻는다. 이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개, 또 다른 어린 소년, 엘리까지 소년은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걷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한다.

매카시의 작품들에서 “신이 없는 우주에서 인간의 무의미함에 대한 감각”은 지속적으로 다뤄진 주제였고, 이는 『로드』에서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작가의 특징적인 대답으로 제공된다(Cant 185). 남자는 재앙 이후의 세계에서 신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긍정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는 “열렬하게 신을 말하던 사람들이 이 길에는 이제 없다”(39)며 신이 사라진 세계를 말하면서도, “저 아이가 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신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야”(9)며 신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재앙 이후의 세계에서 남자에게 신의 존재는 소년을 ‘통해서만’ 확인된다. 더 이상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서 남자의 존재로서의 의미는 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서로가 세상의 전부”(10)인 것처럼, 남자의 세상의 전부는 소년이다. 이 때문에 남자는 길에서 만난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 자신이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소년이 개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즉, 남자는 소년 때문에 살아간다.

반면 소년에게 신은 있다. 소년은 지하 벙커에서 머물 때 원래 지하 벙커에

있었어야 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한다. “하늘에서 하느님과 함께 안전하게 계시기를 바라요”(166). 소년에게 신은 남자의 과거와 이야기 속에서 살아왔던 신일 것이다. 남자는 소년에게 “용기와 정의를 가르치는 옛 이야기들”(50)을 비롯해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주었다. 위협적으로 등장한 사내를 죽인 후에 남자는 신이 있다고 믿는 소년에게 “내 일은 널 지키는 거야. 하느님이 나한테 시킨 일이야”(90)라고 말한다.³⁾ 소년에게 남자도 자신의 세계의 전부에 가깝겠지만, 남자만이 유일한 존재의 이유인 것 같진 않다. 소년의 타인에 대한 동정심은 남자에게 ‘아들’로만 국한되어있는 인간애(humanity)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소년은 남자가 어느 누구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는 개와 어린 소년, 그 외에 길에서 만났거나 머무르다 갔을 사람들의 안위에 대해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한다. “그 작은 아이 기억나요. 아빠? . . . 그 아이 괜찮을까요?”(316).

남자(의 세계)와 소년(의 세계)처럼, 『로드』에서는 양분되는 요소가 극명하게 배치된다. 작품 전체의 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다. 남자와 소년은 자신들이 “불을 운반”(96)하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로드』에서 드러나는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간의 분류는 미국 대중문화 속 재앙의 서사들이 받아들여 온 성경의 종말적 전통과 함께 가는데, 이는 심판의 날(Judgement Day)에 이루어지는 선(Good)과 악(Evil)에 대한 선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Estes 193). 소년에게 좋은 사람은 불을 옮기는 사람이고 여전히 인간다운 사람이며, 나쁜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의 이미지는 갓난아이를 꼬챙이에 끼운 채 불 태워 먹는 데서 극도에 달한다. 소년은 사내를 죽인 남자에게 그들이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고 묻는다. 특히 소년은 남자에게 이 세계에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 수도”(119)인지 않냐는 희망어린 물음을 반복하고, 카트를 훔친 도둑에게 매섭게 대하는 남자를 두고 소년은 도와주라고 간청하기도 한다.

소년의 세계에 희망은 소년에게 있다.

네가 모든 일을 걱정해야 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굴지 마.

3) 남자는 자신이 죽인 사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 사내는 남자가 일 년여 동안 소년 외에 처음으로 말을 해 본 사람이었다. 마침내 만난 나의 형제. 그 차갑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눈 속의 파충류 같은 계산. 회색으로 썩어가는 이”(88). 남자는 그 사내를 “나의 형제”라고는 하지만, “파충류”나 “회색”으로 비유하면서 인간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소년이 뭐라고 말을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더러운 얼굴. 그렇다고요, 소년이 말
했다. 제가 그런 존재라고요.

You're not the one who has to worry about everything.

The boy said something but he couldnt understand him. What? he
said.

He looked up, his wet and grimy face. Yes I am, he said. I am the
one. (293)

소년은 “모든 일을 걱정해야하는” “그런 존재”이다. 극악무도한 살인과 식인
이 펼쳐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어쩌면 지금보다 나
았을지 모르는 아버지의 세계가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것을 알지라도⁴⁾ 좋은 사
람과 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소년은 잿빛 세계에 대한 불씨이자 곧 희
망이다. 그 희망은 소년 안에 있다.

그게 진짜인가요. 불이?

그럼 진짜지.

어디 있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몰라. 네 안에 있어. 늘 거기 있었어. 내 눈에는 보이는데.

Is it real? The fire?

Yes it is.

Where is it? I dont know where it is.

Yes you do. It's inside you. It was always there. I can see it. (314)

작은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을까봐 걱정하는 소년에게 남자가 “선이 꼬마를
찾을 거야. 언제나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317)라고 위로하는 장면은 죽어
가는 남자가 소년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소년은 좋은 사람과 선이 있을 거
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이 소년을 찾았다. 남자가 죽은 후에 사흘을 그곳에 울

4) 작품 말미에 이르러 이야기를 들려줄까라고 묻는 남자에게 소년은 “그런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라고 대답한다. 이어 “그런 이야기에선 우리가 늘 사람들을 돕는데 실체론 안
그려잖아요”라고 말하는 소년은 “아버지가 새겨준 신념 체계에 의문을 제기”(Hage 103)하
고 있는 것이다.

며 머물던 소년은 사람의 기척이 들리자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냥 길에 서서 기다렸다”(317). 그리고 소년의 앞에 처음으로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 소년이 불을 운반하냐고 묻자 “그래. 운반하지”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자,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사람. 언젠가 소년이 남자에게 이야기했듯이 따뜻한 남쪽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다른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좋은 사람이 소년을 찾은 것이다.

IV. 결 론

“질문: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Query: How does the never to be differ from what never was?, 40). 남자가 갯빛 세상 속에서 되뇌는 이 질문은 매카시가 현대의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로드』의 세계와 영영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매카시는 “등장인물들과 독자들에게 당황스러운 탈-자연적이고 탈-자본주의적 세계 안에서 자신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체계 등을 재구성”하게 요청한다(Kollin 158). 그리고 매카시의 전작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던 “선과 악, 희망의 지속됨”(Greenwood 80)의 주제를 희망 없는 세계에 대한 아주 작은 불씨를 지펴놓는다. 그 불씨는 “광야에서”도 “장막처럼 빛을 발하는” 소년에게 있다(309). 선은 파국의 세계에서도 미약하고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찾아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드』가 작품의 가장 마지막 문단에서 보다 큰 차원의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한때 산의 냇물에 송어가 있었다. 송어가 호박빛 물속에 서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지느러미의 하얀 가장자리가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잔물결을 일으켰다. 손에 잡으면 이끼 냄새가 났다. 근육질에 윤기가 흘렀고 비트는 힘이 엄청났다. 등에는 벌레 먹은 자국 같은 문양이 있었다. 생성되어가는 세계의 지도였다. 지도와 미로. 되돌릴 수 없는 것, 다시는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을 그린 지도. 송어가 사는 깊은 골짜기에는 모든 것이 인간보다 오래되었으며, 그들은 콧노래로 신비를 흥얼거렸다.

Once there were brook trout in the streams in the mountains. You could see them standing in the amber current where the white edges of their fins wimpled softly in the flow. They smelled of moss in

your hand. Polished and muscular and torsional. On their backs were vermiculate patterns that were maps of the world in its becoming. Maps and mazes. Of a thing which could not be put back. Not be made right again. In the deep glens where they lived all things were older than man and they hummed of mystery. (286-87).

매카시는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암시를 남기며 한 문단의 간단한 은유로 끝을 낸다. 송어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기억이지만, 남자가 잃어버렸던 “냄새”를 간직한 채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쩌면 송어의 힘찬 모습은 인류보다 오래된 기억일지 모른다. 그러나 “생성되어가는 지도”에서 우리는 소년의 앞으로의 길을 미약하게나마 암시받을 수 있다. “어쩌면 세상의 파괴에서 비로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309)는 남자의 말처럼 다시는 바로 잡을 없는 것들이 다시금 그 힘찬 몸짓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Works Cited

- 매카시, 코맥. 『로드』. 정영목 역. 파주: 문학동네, 2008.
- 이선주. 「코맥 맥카시의 『로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현대사회의 위기와 구원을 위한 내러티브의 가치」. 『미국학』 34.1 (2011): 123-52.
- Cant, John. “The Road.” *Cormac McCarthy*. ed. Harold Bloom. New York: Bloom’s Literary Criticism, 2009. 183-200.
- Edenfield, Olivia Carr. “A Different Kind of Love Story: Cormac McCarthy’s The Road.” *A Companion to the American Novel*. ed. Alfred Bendixen. Chichester: Wiley-Blackwell, 2015. 582-97.
- Estes, Andrew Keller. *Cormac McCarthy and the Writing of American Spaces*. Amsterdam: Rodopi, 2013.
- Greenwood, Willard P. *Reading Cormac McCarthy*. Santa Barbara: Greenwood, 2009.
- Hage, Erik. *Cormac McCarthy: A Literary Companion*. Jefferson: McFarland, 2010.
- Kollin, Susan. “‘Barren, silent, godless’: Ecodisaster and the Post-abundant

- Landscape in The Road.” *Cormac McCarthy: All the Pretty Horses, No Country for Old Men, The Road*. ed. Sara L. Spurgeon. London: Bloomsbury, 2014. 157-71.
- Magid, Annette M. “Hope in the Face of Annihilation.” *Apocalyptic Projections: A Study of Past Predictions, Current Trends and Future Intimations as Related to Film and Literature*.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2015. 226-40.
- McCarthy, Cormac. *The Road*.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2006.
- Palmowski, Michal. “In Search of Meaning after the End of the World: The Vision of the Post-apocalyptic America in Cormac McCarthy’s The Road.” *Yesterday’s Tomorrow: On Utopia and Dystopia*. ed. Pere Gallardo and Elizabeth Russell.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2014. 357-66.
- Rambo, Shelly L. “Beyond Redemption?: Reading Cormac McCarthy’s The Road after the End of the World.” *Studies in the Literary Imagination* 41.2 (2008): 99-120.

Abstract

A Glimmer of Hope: Cormac McCarthy's *The Road*

Jeong, Heeyeon

In *The Road*, Cormac McCarthy's approach to "naming differently" establishes the imaginative conditions for a New Earth, a New Eden. The novel diverges from the rest of McCarthy's oeuvre, a change especially evident when the book is set against *Blood Meridian* because their styles and concomitant worldviews differ so strikingly. The style of *The Road* is pared down, elemental: it triumphs over the dead and ghostly echoes of the abyss and, alternately, over relentless ironic gesturing. And it is precisely in *The Road's* language that we discover the seeds of the work's unexpectedly optimistic worldview. The novel is best understood as a linguistic journey toward redemption, a search for meaning and pattern in a seemingly meaningless world – a search that, astonishingly, succeeds. Further, I posit *The Road* as an argument for a new kind of fiction, one that survives after the current paradigm of excess collapses, one that returns to the essential elements of narrative.

Key Words

Cormac McCarthy, *The Road*, The man, The boy, Hope

2016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학위구분	수여연월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문학박사 (1명)	2016년 8월 25일	서혜진	영어와 한국어의 음성·음운적 유사성에 따른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모음 인지와 발화분석	이상도
문학석사 (7명)	2016년 8월 25일	김은지	영상번역 비평의 번역 평가 규범 분석 - 『테드폴』을 중심으로	윤화영
	2016년 8월 25일	신지현	친족 호칭어의 한영 영상자막 번역전략	배만호
	2016년 8월 25일	권서혜	민족/젠더를 횡단하는 디아스포라 여성적 글쓰기 - 테레사 학경 차의 『덕테』를 중심으로	김용규
	2016년 8월 25일	김초희	영어의 존재 there구문의 통사구조에 관한 연구	장경철
	2016년 8월 25일	신수경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단어 쌍의 어순결정능력에 관한 연구	전지현
	2016년 8월 25일	이다운	흑인의 목소리 찾기 - 『베니토 세레노』와 『열간이 월슨』의 트릭스터 저항서사	이선진
	2016년 8월 25일	전우선	영어 강세현상에 대한 제약 기반적 접근	이상도
문학사	2016년 8월 25일	20명	김영화, 김이슬, 이정우, 김건식, 김지혜, 김혜인, 박정현, 이경은, 이랑희, 이채영, 장주영, 정은영, 최황지, 강부경, 강유리, 백경량, 변지현, 장루루, 하오샤오양, 김태미	

2017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학위구분	수여연월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문학박사 (4명)	2018년 2월 23일	강형진	영어의 수문문과 동일성에 관한 연구	이상도
	2018년 2월 23일	이현정	개념도 활용 독해 향상 모형이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독해력과 회상에 미치는 영향	전지현
	2018년 2월 23일	최정인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동사구 종결성 인식에 관한 연구	전지현
	2018년 2월 23일	신나안	영화포스터 번역의 지역화 전략 - 마케팅 기능수행을 중심으로	정병언
문학석사 (12명)	2018년 2월 23일	한선경	최적성 이론에 의한 영어의 설단음화 연구	이상도
	2018년 2월 23일	김보배	A Study on OCP and its Effects in English Phonology	이상도
	2018년 2월 23일	린제	The Markedness Differential Hypothesis and the Acquisition of English Onset Consonant Clusters by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이상도
	2018년 2월 23일	하지현	영어 서술 형용사의 내재적 타동성의 정도성 연구	박기성
	2018년 2월 23일	이향미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감소어(Diminisher) 사용에 관한 연구	전지현
	2018년 2월 23일	강귀숙	학습자 특성에 따른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의 효과분석 -‘영어 독해’과목을 중심으로-	전지현
	2018년 2월 23일	이성제	평가어 변이 분석을 통한 번역 개입 사례 연구 : Michael J. Sandel의「Public Philosophy」를 중심으로	이상도

	2018년 2월 23일	이은지	『왕좌의 게임』에 나타난 텍스트 왜곡 경향 분석 연구	배만호
	2018년 2월 23일	윤예정	『오만과 편견』 번역본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담화 태도 분석 -서법과 양태를 중심으로	정병언
	2018년 2월 23일	양지윤	불핀치의『오딧세이』 다시쓰기 -이윤기 본을 중심으로	김용규
	2018년 2월 23일	강지수	한·영 시놉시스 비교 및 번역 전략 - 주제 구조와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	전지현
	2018년 2월 23일	권유진	한영 아동문학 번역서와 영미 아동문학서의 결속성 비교 연구	이선진
문학사	2018년 2월 23일	36명	이길준, 김인서, 심대경, 이인규, 홍지용, 김봉근, 이명훈, 정지안, 강세희, 박민교, 박선영, 배정인, 오아령, 이은진, 임예빈, 정지윤, 조혜인, 주윤규, 한예진, 김가연, 김지현, 노희연, 백승서, 육정아, 이가영, 이수진, 임경민, 최하나, 한미진, 허지민, 곽명하, 김은성, 신언지, 이도연, 김소영, 김주희	

2017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연보

분류	제목	기간
해외 연수	BK21 영상산업 번역전문인력 양성사업단 호주 연수 (The University of 41New South Wales)	2017년 1월 18일 ~2017년 1월 29일
학술 행사	대학원 신입생환영회 및 동계세미나	2017년 2월 17일
	대학원 영문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7년 4월 28일
	대학원 어학.문학.번역 봄산행	2017년 4월 29일
	대학원 영문학전공 하계세미나	2017년 8월 19일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7년 8월 26일
	대학원 영어학전공 하계세미나	2017년 8월 28일 ~2017년 8월 29일
	대학원 영어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7년 10월 13일
	대학원 영문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7년 10월 20일
	대학원 번역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7년 10월 27일
	대학원 신입생환영회 및 동계세미나	2018년 2월 19일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8년 2월 23일

『효원영어영문학』 원고 기고 및 작성 요령

• 원고 기고

1. 마 감 일 : 매년 1월 30일
2. 내 용 : 영어학 및 영문학에 관한 논문, 번역, 또는 서평
3. 분 량 : A4용지로 15-20면 내외, 영문 논문은 500행 이내
4. 제출방법 : ‘아래아 한글’ 또는 ‘한글 97’에 담은 사본 1부
5. 제출자격 :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박사과정 및 수료자
박사학위 취득자, 시간강사, 교수
6. 제 출 처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46241)
『효원영어영문학』 편집위원(학과사무실 전화 510-1510)

• 원고 작성법

1. 논문은 제목부터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에 한자와 영문을 쓰지 않기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로 처리한다.
3. 고유명사는 우리말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영문 표기를 제시한다. 인용문은 번역하되, 분리 인용의 경우 번역문 아래에 원문을 제시한다. 단, 영어학 논문에서 영어 구절이나 문장을 분석하는 경우, 해당구절이나 문장은 번역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규정은 미국 현대 어문협회(MLA)에서 발행한 *MLA Handbook for Writers for Research Papers*(1995년판)를 따른다. 국내서적이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각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이름』, 편자,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5. 외국 문헌과 국내 문헌을 함께 인용 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국 문헌을 알파벳순에 따라 열거한 다음, 국내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열거한다.
6. 우리말 논문 뒤에는 20행 이내의 영문 요약을 붙인다. 영문으로 된 논문뒤

에는 A4 용지 1면 이내의 우리말 요약을 붙인다.

7. 영문 원고와 영문 요약은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8. 원고 게재는 일정한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효원영어영문학

제36호

2018년 2월 15일 인쇄

2018년 2월 19일 발행

발 행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인 쇄 만수출판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401-1

Tel : (051) 513-4042, 2662

E-mail : mansu4042@korea.com

mansu4042@naver.com

(비매품)